



10

198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10호

(루게 480)



## ◆◆◆◆◆◆◆◆◆◆ 차 례 ◆◆◆◆◆◆◆◆◆◆

당의 사상리론을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4
우리 당 기발앞에서 .....	6
못잇을 그 배낭속에... ..	7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 .....	7
원철로 .....	8
취사원 .....	9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 문제에 대한 심오한 해명 .....	10
아, 우리 수령님 .....	15
<b>김정일</b> 비서께 드리는 노래 .....	16
우리 말은 진실이다 .....	17
그이는 언제나 함께 계신다 .....	17
8월 3일 .....	18
나는 왔다, 광복거리로 .....	18
새 집앞에서 .....	19
우리는 주체의 한길로 간다 .....	19
길이 전하라 금강산아! .....	20
우리는 아침에 산다 .....	22
모란봉의 운치를 두고 .....	23
력사의 대하를 따라(외 1 편) .....	25
백두의 메아리 .....	25
정심이 .....	26

너도 함께 싸웠다(외 1 편)	36
그 어데 있으랴, 조국땅 아니고야	36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이여!	37
그의 이름	40
높뛰는 숨결	41
나는 왜 용해공이 되였는가	43
고향의 노래	44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	50
쇠내	57
길에 대한 생각	58
펼쳐든 신문에서	59
가까와진 길	60
나의 공장	60
우리의 손	61
철산봉의 달	61
그이가 쓴 원고	62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정신세계에 대한 시적 탐구	69
초소의 별빛(외 1 편)	71
쉬엿구렁은 내리지 않았기에	71
배낭에 대한 생각	72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기술자들의 참다운 형상	73
로반에서 만난 처녀	77
그가 한번 적을 때엔...	78
세멘트(외 2 편)	78
《로동자-사무실》	79
정다운 나의 조국	80

## 당의 사상리론을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는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주체사상교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받아안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문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주체의 문학이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간학인 문학이 사람들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헌이 문학에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리론실천적 지침으로 되는것은 우선 거기에 주체사상의 철학적 세계관이 명백히 밝혀져 있기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는것만큼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인 문학의 교양적목적도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문학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철학적원리를 자기의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야 한다.

문헌이 주체사상을 문학에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리론실천적 무기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적 원리와 혁명리론이 새롭고 깊이있게 밝혀져 있기때문이다.

문학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을 묘사한다. 따라서 사회력사와 혁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인간과 생활을 정당하게 그려낼수 없다.

사회적 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아가는 인간의 운동이며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회력사에 대한 이러한 해명에 의하여 문학은 인간과 생활, 사회현실과 력사발전을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 가장

옳바르게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문헌은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밝히고 매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합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주었다.

우리 문학에서 당정책교양주제나 계급교양주제, 혁명전통주제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주제 등 어떠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도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생활을 묘사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작품이 다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체문학의 면모를 갖출수 있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형태이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력량인것만큼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계급의식과 계급적 원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사상교양의 한 갈래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작품 창작에서는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정신을 힘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사상을 힘있게 구현하자면 민족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민족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가장 존엄있는 민족이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민족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작품에서는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자부심을 훌륭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 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풍모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잘 그려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사람들을 교양할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따라서 작품이 우리 당 정책을 잘 구현하면 할수록 그것이 주체사상 교양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된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예술영화 《보증》과 같이 당정책으로 일관된 작품을 창작하는것이다.

이런 작품을 창작하여야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روشن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가 창작하는 모든 주제의 작품들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문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힘있는 리론실천적 무기가 마련되였다.

문헌에는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그의 중심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해명되였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되는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로서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종합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때문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원리가 독창적으로 밝혀지고 혁명적 수령관이 원리적으로 전개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하고 혁명적 수령관으로 교양하는것이 우리 주체문학의 혁명적 본질과 숭고한 사명으로 된다는것이 뚜렷이 천명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잘 형상하는것이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숭고한 풍모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숭고한 풍모,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그려 력사에서 버림을 받았던 우리 인민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키워주고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령도풍모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또한 작품에서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이며 이 집단의 최고지도인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잘 형상하며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하며 다양한 주제의 작품에서 수령의 령도풍모와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빛나게 부각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종합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 지향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당의 령도적 역할이 심오하고 품위있게 형상되어야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근본요인에 관한 문제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형상에 대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수령과 당의 위대성에 대한 형상은 반드시 인민대중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수령, 당, 대중이 통일체를 이룬 새로운 높은 경지에서 그려질 때 더 빛나게, 감동깊게 안겨올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것, 육체적 생명에는 끝이 있어도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것을 잘 형상하는 동시에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몸바쳐 투쟁하는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심원하게 그려야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관한 주체적인 관점으로 무장하며 그것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작가들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구체적인 인물형상, 특히 자주적 인간의 형상창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문학작품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깊이 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형상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의 심오성과 정당성, 진리성과 독창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서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 우리 당 기발앞에서

최호진

그대 성스러운  
붉은 기폭앞에 서니  
우리 당이 걸어온 혈전만리  
한가슴에 다 안겨오는듯...

당기발이여  
카툼의 그날부터 송엄한 한 빛으로  
얼마나 많은 심장들을 불러일으켰더니  
그대 기발아래 묶어세웠더니

이 기폭아래  
흰 백포자락 날리며 불타던  
30년대의 숨결이 흘렀고  
포화속 락원의 열명 당원도  
불사의 거인으로 일어섰더라

오, 이 기폭 날리며  
세기를 앞당기는  
천리마의 발구름은 울리고  
빛나는 80년대 언덕우에  
속도전의 불바람은 휘몰아치고  
주체의 혈통은 이어지거니

기발이여, 내 새겨안노라  
선렬들 붉은 피 어린  
이 기폭 우리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천만의 발걸음소리  
  
새겨안노라

쓰러지면서도  
이 기폭에 새기고 간  
신념과 넋을

세기를 두고 념원하던 인민의 꿈을  
무궁한 세월에 이어 꽃피워준  
우리 당의 기발이여  
필승의 상징이여  
노을 피는 창가에 손짓는 아기의 붉은 뺨은  
끓어넘치는 용광로의 붉은 쇠물은  
풍년든 가을 하늘에 붉게 피는 노을은  
기발이여, 그대 물들인 한 빛이 아니냐

내 한생의 운명을 지켜주는  
따스한 햇빛도 여기서 비쳤구나  
가슴속 쓰라림은 가시여주고  
푸른 꿈, 푸른 희망 꽃피워주는  
정다운 음향도 여기서 울리었구나

기발이여  
그대 기폭은  
이 땅의 모든 생을 붉게 물들이는  
사랑의 하늘!

아, 광휘로운 그대 빛발  
공산주의 노을로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세기에 떨치리라  
마치와 낮과 붓을 기폭에 새긴  
그 성스러운 뜻을 펼쳐가리라

## 못잊을 그 배낭속에...

강현세

여기에선  
집속으로 사라진 철길  
집속에서 다시 뻗어나왔어라  
우람찬 대형 전기기관차들  
꼬리물고 나오는 여기...

새 조선이 첫걸음 떼던  
못잊을 력사의 그날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  
숨이 지는 철도를 살리시려  
햇눈길 헤쳐오셨던 여기

파괴된 산업, 녹쓰는 철길  
해방은 되었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캄캄하던 노동자들  
수령님 만세를 웨치던 그날의 대오에 내 섰는가  
그날의 그 말씀 가슴에 새기는 심정이어

보고싶어  
보고싶어 왔다 하시며  
로동계급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빈터우에 새 조선을 세우자고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  
  
-우리는 백두산에서  
빈 배낭밖에 지고온것이 없습니다.

아, 쌀이 그립고  
생활이 어렵던 그 시절  
천만톤의 식량과도 바꿀수 없는  
의지와 신념, 단결의 양식 안겨주시며  
가슴마다 애국의 불씨 심어주신 은정이어

빛나는 그 령도, 그 손길에 받들리어  
조국의 대동맥 여기서 뻗기 시작하였고  
철도전기화의 기적소리도  
이 구내에서 울렸거니

나라의 대동맥우에  
붉은기 휘날리는 전기기관차마냥  
혁명의 앞길 열여가는 조선로동계급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주체의 진리로 무겁던 그 배낭을...

##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

홍준성

깊어가는 밤  
멀리 들려오는 폭음소리에도  
잠시 사색을 멈추시고  
벽에 걸린 지도도 굽어보시며

위대한 수령님  
그 누구를 기다리실가  
그 무슨 소식 고대하실가  
송수화기도 다시 드시며...

밤이 깊었다고  
벌써 몇번째 아뢰이는  
부관의 목소리도  
간절히 젖은 밤

경적소리 높이 울렸네  
번호판도 흙투성이 된채  
사령부마당가에 들어선  
자동차행렬...

뛰어내린 군관들  
 위장망도 벗을새없이  
 기쁨의 보고 드렸네  
 -최고사령관동지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신 보고인가  
 서울까지 다녀와야 한다고  
 친히 수표하신 신임장도 내주시고  
 우리의 문화재보를  
 공산주의자들이 구원해야 한다니며  
 뜨겁게 바래주신 수령님

력사를 통채로 안으신듯  
 책갈피를 조용히 살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최고사령부에 보관합니다.

아, 가렬치절했던 그 나날  
 최고사령부에 보관된 력사의 재보여  
 세월의 먼지도  
 전쟁의 재가루도 묻지 않은  
 민족의 년대기들이여

전화의 그밤  
 전선너머에선  
 미체가 피의 침략사를 꿈꾸고있을 때  
 위대한 그이의 품속에선  
 우리 민족의 력사와 미래가  
 순간의 공백도 없이  
 이렇게 빛나고있었어라  
 그날 그 순간을  
 또다시 력사로 빛내이며...

## 원철로

주광남

이 땅우에 아직도 솟아있다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못했으리  
 철의 수풀 무성한 오늘에 없어졌다면  
 그토록 가슴뜨거이 새겨있지 못하리  
 원철로

한그람의 철이 그림던 그날  
 한없이 귀중한 강철공장이었건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여  
 우리 수령님 단호히 폭파해버리신  
 원철로

환희의 웨침인듯  
 가슴치던 그날의 폭음소리  
 깨끗이 실어갔어라, 고역의 설음

깨끗이 실어갔어라  
 고열과 유해의 흔적도...

오늘은 산업텔레비죤 밝은 화면에  
 제 모습 비쳐보며 즐겨웃는 사람들  
 수령님 은덕의 고마움을 두고  
 감격에 젖어 그 이름  
 때없이 외우는 마음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이 더할수록  
 이 세상에 없어진 그 이름은  
 더 자주, 더 뜨거이 불리우리  
 인간사랑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그 이름  
 아, 원철로!



# 취사원

김영근

몇날만에 정적이 깃들었는가  
포화 울부짖던  
1211고지의 밤

이밤, 갯도안에 홀로 남은  
취사원아바이  
또다시 함지박에 들어앉히네  
큼직한 망돌을  
그리고 두툼하게 말아붙이네  
독한 엽초 한대를

이밤 중대는  
모두 습격의 길 떠났네  
뜨끈한 순두부 고향생각 난다며  
떠나며 모두들  
큼직한 그 손을 잡아주었네  
돌아오면  
불이 이는 가슴들에 시원할  
콩랭국을 부탁하면서

아바이는 늘  
이런 부탁이 고마왔네  
그래서 이밤도 코노래 절로 나는가  
그는 잊은적 없었네  
천리 화선에 찾아오신 수령님  
그가 기른 콩나물도 보아주시고  
손수 콩 갈던 망돌도 돌려보시며  
중대살림 잘하는 취사원이라  
높이 치하해주시던 그날의 영광

하여 산발을 툇을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남보다 망돌 두짝의 무게가  
그의 어깨우에 더 실려있었네  
행군의 설참에도 총을 닦는 일보다  
망돌을 손질하는 그 일이 더 많았네

마치도 봄에 앞서  
농쟁기를 알뜰히 손질해두듯-

언제나 등골에  
땀이 마를새 없는 그의 수고로  
야전식탁이 풍성할 때면  
전사들은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했네  
찬비에 젖은 군복도  
따뜻이 장작불에 말리워줄 때면  
그들은 두고온 아버지를 생각했네  
그래서 모두들  
《우리 아바이》라 부르는 취사원

그는 이밤  
멀리 적진에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았네  
승리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전사들 못지 않게  
이밤따라 아바이 가슴에도  
크나큰 기쁨이 차올랐네  
약속한 콩랭국을 걸러놓고  
기다리는 마음 몹시도 들떠있네  
방금 전화로 1211고지 전사들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맨먼저 그의 가슴에 흘러왔거니

아, 그러나  
미제를 죽치고  
기세있게 돌아오는 전사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네  
이밤에 벌써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영웅전사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해주시며  
취사원 《망돌아바이》의 안부를  
물으신것을!

##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 문제에 대한 심오한 해명

한중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후 1년남짓한 기간에 우리 문학예술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이 고전적 로작에서 밝혀진 사상과 이론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명철한 과학적 해답을 주시였으며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갈 휘황한 길을 밝히 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밝히신 사상리론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며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며 주체적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주체적 문예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 방향과 문학예술작품창작의 근본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적 문예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삼음으로써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력사의 새시대인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문학예술을 새롭게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더욱 더 많이 기대하고있다. 주체적 문예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나아갈 끝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문학예술에서의 주체확립의 본질은 문학예술작품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고 자기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인 동시에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과 그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사명을 지니고있는 사회주의문학예술자체발전의 요구이다. 나라마다 사회력사적 조건이 다르며 매개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도 같지 않은것만큼 문학예술작품은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당의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 자기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되어야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문화가 짓밟히고 문학 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났던 우리 나라에서 더욱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을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체이며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도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민족적 형식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과 민족적 감정과 구미에 맞는 형식이며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낡은것을 깃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내용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

를 건설하는 내용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내용,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나가는 내용이다. 이로부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은 문학예술 작품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드는 담보로 되며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변형해나가는것으로 된다. 문학예술은 민족적인 형식에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을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인민적인 형식을 가지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내용을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참다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여야 문학예술을 자기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수 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수 있다. 민족예술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인민은 문학예술발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민족적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선사람의 사상감정에 맞고 우리 인민들이 다 좋아하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조선회화와 민족교예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주체를 똑똑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그의 본색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예술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그 본색을 잘 살리는 문제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요나 민속무용을 한편 창작하여도 민족예술의 고유한 본색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창작하여야 한다.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고 그 본색을 살리는데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복고주의를 반대하는것이다. 민족예술의 본색을 살리는 것과 복고주의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는 지난날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살려야 하며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이라 하여도 시대적 요구와 계급적 요구에 맞게 개작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예술의 본색을 살린다고 하여 문화유산 가운데서 민족적인것을 덮어놓고 되살리거나 낡고 진부한 요소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민족예술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 성과와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체를 세우는것과 배타주의는 인연이 없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다양하고 풍만하게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학예술을 위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 문학예술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한 나라의 문학예술이 다른 나라 문학예술과의 접촉과 교류속에서 발전해나가는것은 인류 문화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현상이며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이러한 접촉과 교류는 더욱 밀접해지고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 문학예술에 대하여 립장과 태도들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데 있으며 그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문학예술의 성과와 경험을 사회주의적 민족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아무것이나 망탕 받아들이거나 통채로 삼키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 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 문학예술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이다.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은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 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입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표현하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사명을 지닌 문학예술인것으로 하여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그 생명을 규정하는 본질적 특성으로, 기본진표로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그 본성과 사회계급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낼수 있으며 혁명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사상문화적 침투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는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썩어빠진 부르조아반동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우리가 온갖 반동적인 부르조아 문예사상과 문학예술의 침습을 막고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그 혁명적 본성과 사회계급적 성격에 맞게 건전한 토대우에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당의 사상적 무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추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이다. 문학예술작품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대중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려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구현하며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할데 대한 사명을 옹바로 다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문학예술작품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할 때 높은 당성을 구현하게 되며 철저한 로동계급성과 풍부한 인민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창작하며 거기에 당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작품에 당정책

이 구현된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은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과정의 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방침에는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으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해나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창작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종자를 똑바로 잡고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푸는 문제도,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진실하고 심오한 형상을 통하여 의의있는 사상을 밝혀내는 문제도 모두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며 당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조건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제는 결국 작품에 당정책이 구현된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귀결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한것이며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근로대중의 실천투쟁에 의하여 실생활에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맺고있다.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재현하며 사상을 밝혀내는 문학 예술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형상속에 반영되여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이 구현되여 위대한 결실을 맺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적 선을 바로세우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며 따라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려면 로동계급적선을 세워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로동계급적 선을 세운다는것은 창작사업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로동계급적 선을 바로 세워야 로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에 맞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문학예술작품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세우지 않으면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작품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한 작품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바로 세우지 않을 때에는 부르조아미학관이 스며들 틈이 생기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의 기구한 운명을 형상하거나 남녀간의 삼각관계를 그리는 것은 바로 부르조아적 미학관의 표현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의 기구한 운명은 전형적인 의의를 가질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허무감과 절망감밖에 줄 것이 없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창작에서 이러한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남녀간의 삼각관계는 우리 인민의 도덕생활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그런 것을 흥미본위적으로 그린 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없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남녀관계를 부르조아미학관에 의거하여 그리려는 경향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새형의 청년남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노동계급적 선을 뚜렷이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전형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하게 형상하며 자본가계급의 착취적 본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잘 그리는 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는 모든 성격형상, 모든 생활화폭에서 표현되지만 노동계급의 전형창조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형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노동계급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제도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노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전형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는 것은 문학예술로 하여금 노동계급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성은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사회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영영 쓸어버리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똑바로 세우려면 마땅히 자본가계급은 가장 반동적인 계급이고 그 착취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가장 반동적인 사회이며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썩고 병든 사회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자면 작품에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출발점이며 생활의 진실성은 작품의 생명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아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릴수록 가치있는 것으로 된다. 생활이 있어야 예술이 있다.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질 수 있으며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는 것은 당과 혁명의 이익에 맞고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는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온갖 반동적 문예사조와 사상조류를 철저히 반대하며 그 사소한 요소의 침습과 표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관철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자연주의, 형식주의는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반동적 문예사조이며 형식주의는 사상에 예술적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만을 내세우는 반동적 경향이다.

문학예술작품들에서 형상적 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거나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는 것은 자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창작경향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하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

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는 현상을 없애고 생활을 사상예술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우리의 문학예술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수정주의는 부르조아 사상과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렇기때문에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정주의의 자그마한 요소와도 강한 투쟁을 벌려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문학예술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인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것이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창작적 개성을 가진 창작가, 예술인들이 다양한 인간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과정인 것으로 하여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으로 된다. 인간의 생활이 다양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개성이 서로 다른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 예술 작품도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현실을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반영하는 사회의식의 특수한 형태이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예술도 다양하게 되어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생활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작가와 예술인들도 모두 개성적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과 감정, 생활체험과 예술경험이 서로 다르므로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며 형상하는데서도 자기 식의 특성을 나타내기마련이다. 그러므로 백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르고 특색이 있는 백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은 특색이 있고 독창적이어야 볼 재미가 있고 사람들을 교양하는데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을 새롭고 특색있게 만드는것은 그 건인력과 감화력을 담보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예술적 흥미를 돋구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를 변혁해 나갈줄 아는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며 창조적인 열정을 안겨주려면 남들이 이미 내놓은것을 되풀이할것이 아니라 새로운것을 탐구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을 높여주고 그들을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문학예술은 마땅히 독창적인것으로 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특색이 있는 독창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려면 도식주의적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인 경향과 류사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작품들이 비슷비슷하고 특색이 없게 되어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 경향과 류사성은 남의 작품을 모방하는데서도 하나의 류형을 만들어 놓고 그틀에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을 맞추려 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창작가로서의 양심이 없는 행동이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거세 하려는 그릇된 창작태도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고 당이 제시한대로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잘 살려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살린다고 하여 당적 원칙을 떠나서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거나 자기의 창작적 개성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높은 당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며 그것을 독창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작품들이 종자도, 사상도, 성격도, 생활도 서로 다른 독창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 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주체의 원칙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최근 1년남짓한 기간에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자랑찬 성과는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딸에게서 온 편지》**와

《3인1당》을 《성황당》식 연극으로 다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혁명연극 《팔에게서 온 편지》와 《3인1당》의 창조는 우리 문학예술이 혁명적 문예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이면서 주체의 길을 따라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확고히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 혁명적 가정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하고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 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의 면모와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시기에 창작된 예술영화 《조선의 별》 제 10부 《불타는 근거지》, 《민족의 태양》 제 1부 《준엄한 시련》,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 그리고 예술영화 《혁명전사》와 《려명》 등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끊임없는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아래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는 5 천명대공연 《행복의 노래》는 당의 향도 따라 70 년대의 전성기를 이어 80 년대에도 계속 줄기차게 발전해나가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특출한 성과작이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주체형의 인간 형상을 통하여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이끌어주는 데서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영화 《새 정권의 탄생》, 《추억의 노래》, 《보증》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우리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 성과와 커다란 교양적 의의를 확증하고 있다.

특히 예술영화 《보증》이 나온 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주체적 문예사상의 빛발아래 당의 로선과 정책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는데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도식주의적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고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데서도 전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시기에 창작된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을 보면 창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며 문제를 참신하게 내세우고 특색있게 풀며 형상 수단과 수법도 자기 식으로 쓰려는 창작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내용적면에서나 형식적면에서 개성적 특성이 뚜렷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은 독자들과 관중을 기쁘게 하고 있다.

최근 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과 눈부신 성과는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살릴 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대한 과시로 된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로작을 더욱 깊이 연구 학습하고 주체적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이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해놓은 위대한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 것이다.

## 가사

# 아, 우리 수령님

전병구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한없이 자애로운분 어디 계시랴  
인민 위한 그 사랑 봄날같아서  
온 나라 가정마다 어버이로 모시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큰 위업을 쌓으신분 어디 계시랴

수천년 알지 못한 주체의 진리  
온 누리에 해빛으로 펼쳐가시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천신만고 다 겪으신분 어디 계시랴  
한평생을 혁명 위해 바쳐오시며  
우리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네

# 김정일비서께 드리는 노래

-그이의 탄생 45돐을 맞으며-

니시무라 다즈미

천지엔 맑은 물 차넘치고  
천리수해 끝없이 설레이는  
백두산 조선혁명의 성산  
항일의 그날에  
여기서 울부짖던 눈보라는  
인민들의 분노였던가  
혁명의 폭풍이었던가  
투사들의 붉은 피  
그 백설에 스미고  
혁명가들의 불타는 마음  
그 백설에 비졌어라  
백두산 백두산  
일제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조선인민은 백두산을 우러러  
민족의 희망과 운명을 맡겼어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  
성스러운 자주위업의 발원지  
여기서 탄생하시여  
밀림에 메아리치는 총소리 들으며 자라나신

**김정일**비서  
격동적인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싸움으로 이어진 나날에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을 키우셨나니  
그이는 진정 혁명의 아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착취와 억압속에서  
신음하여오던 인민대중  
오늘은 력사무대에 땀땀이 나신 그들  
새 지도자를 맞이하였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꽃피워오신  
자주위업을 영원히 받드시여  
몸소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그이는  
주체시대의 령도자 **김정일**비서

동지를 위하시고  
인민대중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는

참다운 공산주의자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어받으시고  
꽃피워나가시는분  
그이께서는 낮에 밤을 이어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시네  
그 길 아무리 험난하고 멀다 해도  
주저없이 헤치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네

혁신 또 혁신!  
전진 또 전진!  
미래에 대한 식을줄 모르는 정열을 안으시고  
사회주의완전승리가 바라보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선 나라  
그 진두에 서시여  
조선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김정일**비서

그이께서는  
자본주의 일본에서도  
그 어지러운 사회에서도  
자주성을 위해 싸워 나간다면  
아름다운 꽃들은 피여날수 있고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주체의 빛발로 깨우쳐주셨네

자주시대가 바라는데로  
력사의 흐름에 맞게  
살며 싸워나간다면  
영생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셨네

나는 끝없는 감사의 정 안고  
자주시대에 사는 인간  
**김정일**비서의 시대에 사는 인간  
그 공지와 영예, 존엄을 간직하고  
그 책임을 지니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일본의 자주화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가리라

**김정일**비서께 영광을 드리노라  
인류의 자주위업에 영광이 있으라  
(필자는 일본 도쿄청년주체사상연구회 회원임)



# 우리 말은 진실이다

김흥권

첫 아들의 이름도 로앞에서 짓고  
첫 손자의 이름도 로앞에서 지으며  
쇠물과 더불어 내 평생을 살아왔건만  
이 한마디 그렇듯 소중한줄 몰랐노라

-철은 넘려하지 마십시오!

이름없는 용해공이 올린 이 한마디  
그렇게도 심중히 새겨 안으시며  
손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웃으시며 용해장을 떠나신 지도자동지

내 진정 몰랐노라  
아득한 차령고개 급히 넘어가실 때  
옷깃을 여미고 따라서던 용해공의 모습이  
그이의 심중속에 함께 가고있었음을

철정광의 품위도 친히 알아보시며  
철산봉의 광부들과 담화하실 때  
용해공의 한마디  
그이의 말씀속에 함께 울리고있었음을

10만 군중대회도 그날에 있었어라

과학자, 기술자 협의회도  
전국의 지배인회의도 그날에 있었어라  
용해공이 올린 한마디 대답을 놓고

한갓 로동자, 소박한 용해공의 말이  
천만근의 무게로 시대앞에 올리도록  
그 말이 위엄있는 로동계급의 선언이 되도록  
걸으신 길, 세워주신 방도는 얼마이시던가

우리 흐느껴 울었노라  
쇠물이 소리치며 쏟아져내릴 때  
용해공의 한마디 말이  
우리마냥 드높이 메아리쳐올 때

우리 말은 진실이다  
우리 말은 빈말이 아니다  
위대한 향도자 운명을 함께 하여주시며  
지키는 마음에 지켜주시는 사랑 더하여 주시기에

오, 용해공의 가슴 두드리며  
쇠물이 광광 쏟아져내려라  
-쇠물은 넘려하지 마십시오!  
천만근의 무게로 올리는 이 말과 함께!

# 그이는 언제나 함께 계신다

박창규

떠나가시기에  
평양으로 가시는줄 알았어라  
만부하로 공장을 돌리자고  
크나큰 과업 맡기시고 떠나가실 때

배움의 눈빛들은  
평양의 하늘을 우리러 젖었는데  
아, 어인 일인가  
친애하는 그이께서  
철산봉에 오르셨다는 소식...

별무리, 별무리 차창에 내릴제  
또다시 달려가신 그이  
룡성의 동무들이 힘을 합쳐  
김철 압연기 로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립공처녀의 스파나도 들어주신 그 길은  
멀고먼 무산령에서 이어가신 길

아들의 어깨 무거울세라  
메워주었던 그 짐  
자신의 어깨우에 덧없는  
아버이 그 마음인가

압연공들에게 주신  
만부하의 그 과업  
자신이 맡으신 과업으로 한몸에 안으시고  
다 풀어주시는 지도자동지

아, 우리더러 수고한다고  
온 나라가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고 꽃목걸이 걸어주는 압연장  
만부하의 동음 세차게 메아리치는  
여기서 그이의 낮과 밤이 흐르고있어라!

## 8월 3일

리의주

달력에 오른  
명절날도 아니었다  
력사에 기록된  
기념일도 아니었다

우리들이 맞고 보낸 어제와 오늘처럼  
보통날의 하루였건만  
어찌하여 뜨겁게 새겨졌는가  
상표에, 매대, 간판에, 상점이름에

자그마한 직매점을 찾아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방 자제, 원료로 일용제품 늘이라고  
하나하나 가지수도 적어주신  
8월 3일

아이들의 응석도 다 들어줄수 있는  
놀이감의 가지가지도  
레사롭게 대하던 부엌일의 구석구석  
우리 생활의 소비품 그 많은 가지가지도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라  
친어머니도 줄수 없는 생활의 순간순간  
우리 생활의 행복함이  
인민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이

그래서 그래서  
만든고장, 만든 날은 서로 달라도  
하나같이 《8월3일일용제품》  
두고두고 그날을 잊지 말자고  
상점이름도 《8월3일인민소비품 상점》

달력에 오른 명절도  
력사에 기록된 기념일도 아니였건만  
그이께서 베푸신 은정 받아안은  
잊지 못할 그날은 영원히 남으리  
꽃피는 생활속에  
누리는 행복속에

## 나는 왔다, 광복거리로

리근지

나는 왔다, 광복거리로  
돌격대 빨간 파견장이 아니라  
잠간 들렀다 돌아가야 할  
평양의 출장증명서를 안고

축조공동무야  
사양하지 말아다오  
작가라고 글만 짓는 사람이 아니다  
먼 후날 이 거리를 거닐며  
내 할 말이 무엇이랴  
어서 쌓아다오  
내 섬기는 이 벽돌장을

내 고향 북방의 먼 해변가에서  
마음 항시 달려오던 이 거리  
우리 수령님 광복의 첫 자욱 찍으신 이 거리에서  
어찌 놓치랴, 요행으로 차례진  
광복거리 건설지원의 이 행운을

여기에 간절한 부탁도 있다  
동해의 조약돌 골라 가방에 넣어주던  
인민학교 막내아들의 깨끗한 마음이  
작업복을 차곡이 개여 넣어주던  
내 안해의 뜨거운 당부도

축조공동무야!  
벽돌장만이 아닌  
이 마음도 엮어다오  
번영하는 조국의 빛발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하고싶은  
한 공민의 이 진정도

내 출장임무야  
하루이틀 밤새워 끝내도 좋다  
행복의 시와 노래를 안고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서는 저 벽체마다  
땀을, 마음을  
영원한 시를 새기려다

# 새 집앞에서

박세영

만경대의 일만경치  
다 안아볼수 있는곳에  
은빛지붕 펼치며 일어서는  
40층아파트앞에서  
문득 걸음 멈춰지노라

아찔하니 아파트는 솟아있는데  
그 높은 집 층층마다에  
넋직한 마당까지 달린것이  
하도 신기해 신기해

논시울 후더웁구나  
리조말엽 아이적부터  
내 거의 한세기를 산 사람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땅 아닌 하늘중천에  
집도 층층 마당도 층층인  
이런 집들을

아, 유서깊은 혁명의 집  
만경대초가집마당을  
집집마다에 잇대여주시려는  
한없는 그 사랑인가

넓은 지구를 쿵쿵 구르라고  
온 세상을 굽어보며 살라고  
만경대의 아침해살  
선참 비쳐드는 저 하늘 높이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시였구나  
행복의 넓은 마당을!

집이여  
이름마저 새로운 《마당이 달린 계단식 아파트》여  
나는 아노라  
네가 뿌리박고 선 이 거리를  
어찌하여 세계 일류급 거리라 하는지...

정녕 지난 세월에야  
생활의 하바닥에서  
나뒹굴던 우리 인민

아, 오늘은  
땅에서 하늘을 딛고  
하늘에서  
땅을 딛고 사노라

가사

## 우리는 주체의 한길로 간다

최준경

우리는 제 힘을 믿고서 력사의 키를 잡았다  
주체의 기발을 날리며 투쟁의 새길을 연다  
운명의 주인되어 스스로 택한 길  
세대를 이으며 빛내여 나간다  
영광의 우리 당 따라서 주체의 한길로

헤쳐갈 진펄이 있다고 남의 길 바라다보랴  
넘어갈 산악이 높다고 예돌 길 우리 찾으랴  
혁명도 우리의 식, 건설도 우리의 식

언제나 이 한길 곧바로 걷는다  
영광의 우리 당 따라서 주체의 한길로

순간도 이 길을 떠나서 우리는 살수 없으랴  
한치도 이 길을 떠나서 혁명을 할수 있으랴  
주체의 우리 신념 끝까지 지니고  
목적한 위업을 승리로 빛내리  
영광의 우리 당 따라서 주체의 한길로

## 길이 전하라 금강산아!

박창민

오를수록 승지라더니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지.

올려다보면 장엄하고 수려하다. 내려다보면 장쾌하고 신비스럽다.

멀리를 보아도 가까이를 보아도 절묘한 기암절벽과 구슬인듯 백옥인듯 쏟아져내리는 폭포수.

어디를 둘러봐도 붉게 타는 단풍.

천태만상의 저 만물상은 필필이 비단을 드리우고 선녀를 기다리는듯.

아, 천하절경 금강산!

너야말로 대자연의 기적,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냐.

기행의 길에 오른 우리는 금강산의 일만경치에 취하여 향방없이 걸음을 옮기었다.

이러다간 한나절 계획한 구룡연길을 해저물어도 못다갈것 같다.

저산너머 삼일포도 가야 하겠는데 《삼일포》가 아니라 《오일포》, 《칠일포》가 되겠다.

이제는 그만 황홀해하고 기행로정대로 어서 기행의 길 다그쳐야 하지 않을까.

한걸음, 또 한걸음... 그래도 냇을 잃고 《야! 야!》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됨을 어찌하랴.

경치도 아름답지만 금강산꿀안을 가득채운 갖가지 산열매의 향기 또 얼마나 가슴을 부풀게 하는가.

그 향기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수정같이 맑고 유정한 옥계수를 마시려는지 《아들딸》까지 거느리고 쌍을 지어 술금술금 다가오는 사향노루며 사슴.

때마침 건들바람이 불더니 숲이 춤을 춘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들쭉나무... 일만봉우리가 솟구쳐 일어서며 쉼-쉼 단풍잎이 설레인다. 금강산이 온통 빨갛게 타는듯했다.

아, 금강산!

이 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주시는 향도의 해발 흘러넘쳐 네 모습 이리도 아름답고 네 모습 이렇게도 일만경치 펼쳐며 천하절경 이룬것이 아니냐.

금강산의 그 어디에나 향도의 거룩한 자옥 어려 있어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한마리의 새도 무심히 볼수 없다.

바로 이 길이였다.

인민의 금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려고 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어가신 위대한 사랑의 길이...

1975년 10월중순 강원도를 실무 지도하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금강산을 찾아주시었다.

(금강산에 가시여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고 쌓이신 피로를 푸시었으면 하던 소원이 이제야 풀렸구나!)

일군들은 기뻐다.

그날 금강산은 환희로 설레이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단풍이 붉게 타는 금강산줄기를 감회깊이 바라보시었다.

인민의 지도자동지를 모신 금강산의 환희인가 총암절벽에서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폭포소리, 온갖 새들의 지저귀는 환영의 대교향악처럼 울려왔다. 붉게 타는 단풍숲은 환영의 꽃바다처럼 설레고.

천변만화의 조화를 피워올리는 물보라는 꽃보라처럼 날리고.

환희의 대무도장을 방불케 하는 금강산은 격동에 설레고 기쁨에 일렁이였다.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그루의 나무, 한마리의 새도 것처럼 사랑에 넘치신 눈길로 바라보시고 꿍이며 노루, 사슴들이 나타나면 놀래우지 말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며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날 금강산의 소나무는 더더욱 푸르러 설레였다.

그이께서는 금강산의 장쾌한 기상을 자랑하듯 파도쳐 설레는 소나무숲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소나무가 좋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드시여 장자산에 몸소 잣나무를 심고 가꿔오시며 푸른숲 설레는 락원의 강산을 그려보시던 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날의 구상이 현실로 펼쳐져 오늘은 이렇듯 여기 금강산에도 소나무숲 설레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의 자랑인 금강산을 더 잘 가꾸고 더 잘 관리하여 리로운 동물들이 육실거리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을 리용하여 리로운 동물을 많이 증식시켜 산들에 사슴과 노루, 꿩, 클락새와 같은 리로운 동물이 육실거리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다음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구룡연으로 가는 길에 오르시였다.

저멀리 상팔담에 쏟아져내리는 구룡폭포의 장쾌

한 소리를 마음속에 들으며 일군들은 기쁨에 넘쳐 걸음을 다그쳤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어서빨리 구룡폭포에 가고싶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이곳을 좀 돌아볼 일이 있으니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이날도 어떻게 하면 금강산을 더 아름답게 꾸리겠는가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고계시었던 것이다.

잠간이면 다녀올수 있는 구룡폭포를 지척에 두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금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시기 위하여 모처럼 마련된 휴식의 한때마저 금강산을 가꾸시는 일에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일군들을 손저어 배려주시는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숭엄하였다.

해방직후의 어느날 금강산을 찾으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한번 가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었던 구룡폭포를 지척에 두시고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리시기 위해 혼연히 산을 내리신 곳도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은 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날의 그때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내가시기 위해 잠간이면 구룡연에 가닿을수 있는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금강산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바로 그때 《땡- 땡-》 하는 장평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골안을 울렸다.

이윽고 푸드득- 푸드득 숲속에 날아드는 까투리.

잠시후 한무리의 땡들이 똥기적거리며 다가왔다. 그것들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모이를 달라고 다가오는 닭처럼 목을 길게 뽑아들고 또 소리쳤다.

《땡- 땡!-》

그에 화답이라도 하는듯 갖가지 새들의 지저귐소리 밀림을 가득채웠다.

오색더구리, 휘파람새, 개구마리, 뻐꾸기, 꼬깔새, 찌르레기... 온갖 새들이 펼쳐놓은 황홀한 《음악회》는 마치도 동물의 대합창처럼 신비롭기 그지 없었다.

나라없던 지난날엔 밀림을 벌거숭이로 만드는 양칼진 도끼소리와 동물들을 닥치는대로 잡는 자지러운 사냥총소리 가슴아프게 들려오던 금강산, 빼앗긴 강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소리 나라없는 설음을 더해주며 가슴에 눈물만 가득채워주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새들이 노래를 한다고 한것이 아니라

새들이 운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어 이렇게 새들의 《합창》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것이 아닌가. 나날이 《출연자》들이 늘어나며, 나날이 행복의 《안삼불》을 맞추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금강산에 땡이 많은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그 일군은 산삼도 많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금강산의 나무 한그루, 새 한마리도 나라의 재부라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는 그이의 말씀이 뜨겁게 울려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금강산의 동식물을 지금과 같이 보호하는 사업을 계속한다면 3~4년 어간에 자연동식물을 많이 번식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금강산에서 리로운 동물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수려한 금강산을 기쁨에 넘치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연, 산림, 동식물을 보호할데 대한 포고문을 내야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그들은 한없이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뜨거웁게 젖어든 두눈을 자꾸만 습벽이었다.

아 포고문!

유구한 세월 형벌의 의미로만 씌여온 포고문을 조국강산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대명사로 바꾸어 놓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착취자들의 유혹지로 금강산이 빛을 잃고 어지러워지던 그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입산을 금지 한다는 저주로운 표말이 곳곳에 박혀있던 여기에, 특권족속들의 음탕한 노래와 요염한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금강산을 병들게 하던 여기에 오늘은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은혜로운 사랑의 포고문을 내시다니!...

아, 금강산아 노래하라.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는 위대한 그 사랑을!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 바라볼수록 생각이 깊어져 우리는 금강산의 경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볼수 없다.

단풍 한잎, 산열매 하나, 새 한마리를 보아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록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금강산!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의 다심한 손길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너를 가꾸어주어 세월이 갈수록 네 모습 더더욱 아름다와지는것이 아니냐.

행복의 봉우리로 높이 솟아 더더욱 빛나며 자랑 떨치는것이 아니냐. 조선의 자랑으로 하늘가에 높이 솟은 금강산!

너의 상상봉인 비로봉의 높이는 알수 있어도 너를 빛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의 높이는 헤아릴수 없구나.

자욱자욱 조국강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수놓아 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우리는 걸음을 다그쳐간다.

비로봉, 구룡연, 집선봉, 만물상, 옥류동, 천선대, 해금강, 삼일포로 기행의 길 어서 가자고.

마음은 자꾸만 재촉하는데 걸음은 자꾸만 더디다.

금강산의 황홀한 절경-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인민의 영원한 향유물로 빛내주시는 그 은혜 고마와.

아,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그래도 또 바라보고싶구나.

조선의 자랑 금강산아!

세계의 절승 금강산아!

## 우리는 아침에 산다

리병철

쨍!

가슴 열리는 청신한 공기로  
어둠을 밀어낸 눈부신 해발로  
온 나라땅  
거리와 마을을 가득채우며  
온통 우리의 몫으로 된 아침이다

아, 아침

아침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힘  
모든 속력과 마력에 생기를 부여주며  
어서 떠나자고 떠나가라고  
출발을 재촉하는 그런 시간인가보다

가만히 불어오는 바람결  
무언가 알지 못할 기쁨을 자꾸 속삭여  
머리 흰 나이도 잊고 나는  
어디론가 멀리  
어데론가 빨리 가보고싶으다

하늘길이면 비행기와 함께 날고싶고  
바다길이면 원양어로선단과 함께  
가슴으로 파도를 맞받아 헤치고싶고  
...

가는곳마다 눈길을 끄오는  
《속도전 앞으로!》의 구호앞에선  
행복의 충고를 쌓고쌓는  
기증기 팽팽한 쇠바줄들이  
자신의 팔뚝에 튕겨진 힘줄인양 느껴진다

아침!

백두의 해돋이에 시작을 둔 아침이기에  
백두의 그 슬기 그 기상을 닮아  
세월은 저물줄 모르고  
사람들은 늙을줄 모르고  
산천도 사뭇 젊어지며 푸르려간다

그렇다 위대한 당의 의지와 사랑이  
밝은 해빛이 되어 비치고  
청신한 공기 되어 흐르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꿈많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아침, 영원한 아침

아침은 아마도  
어데인가 먼곳에서  
무거운 행복의 짐을 싣고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로  
기차며 자동차며 트럭트럭까지  
뒤에 뒤를 이어  
자꾸 와닿는 그런 시간인가보다

하기에 한오리의 오염도 없는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으로  
먼 미래의 숨결도 호흡하며  
우리는 언제나 아침에 산다

## 모란봉의 운치를 두고

김영선

생활이란 대체로 그러하듯이 저마다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차려지게 되는가에 대하여 미처 모르고 지내게 되는 때가 가끔 있게 되는것이다. 더더구나 고마운 은정속에 만복을 누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보면 그 행복의 밑뿌리에 대하여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생활하여야 할것이나 생활과정에는 것처럼 단순한 리치를 잊고있는것으로 해서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게 되는것이다.

내 경우만 놓고 보아도 실로 알고서 받는 행복보다도 미처 다 모르고 받게 되는 은정이 더 많은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한두번만 있는것이 아니다.

함북 지방에 가게 되면 《50 고개에 늦철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뜻이란 나이들어서 늦게 철이 들어 세상 물정을 알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나 역시 50 고개를 눈앞에 바라보게 된 나이임에도 지금도 가끔 당이 베풀어주는 고마운 혜택과 은정의 깊이를 미처 다 모르고 지내온 탓으로 해서 사회앞에서는 물론 가정과 자식들 앞에서까지 후회막심한 자책으로 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게 된 때가 있었던것이다.

얼마전이었다.

부서에서 제기되는 급한 용무로 하여 근 한달가까이 지방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마침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먼길에서 돌아오느라고 쌓인 피로도 풀고 또한 출장으로 해서 거의 한달가까이 쥐여보지 못한 낚시줄도 드리워볼 생각으로 다음 날의 일정을 작정하고있었다.

보통강에서나 대동강에서 낚시대를 쥐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여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을 일이지만 나 역시 토요일저녁부터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낚시도구를 《정비》하느라고 공연히 들락날락하며 부엌일에 바쁜 안해와 딸까지도 거끔내기로 불러대면서 시중을 시키곤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른때 같으면 이처럼 기뻐하면서 낚시터에 함께 가자고 졸라댔을 중학교 2학년생인 딸애가 별로 심드렁해서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여느때 같으면 쿵당쿵당 뛰어돌아갈 딸애가 이리고있는데는 무슨 사연이 있음직해서 조용히 물었다.

《성희야, 너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데가 있는것이 아니냐?》

남들도 다 그러하듯이 나 역시 외팔이다보니 팔애의 눈섭 한오리 등한히 보게 되지 않는 마음이여서 무엇때문인지 어설픈 그림자가 비낀 팔애의 마음을 알고싶었다. 그런데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난 몰라. 아버지 그저 낚시대만...》 여전히 뾰로통한해였다. 가뜩이나 작은 입을 꼭 다물고 앵돌아진 팔애를 쳐다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부터 터져나왔다.

《허허, 우리 성희가 오늘은 몹시 성났는데 ?》 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팔애가 어째서 그렇게 좋아 하고 따라다니던 낚시질을 마다하고있는지, 그렇다면 휴식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자고 해서 그러는지 미처 가늠할수 없었다.

그때까지만도 부엌칸에서 설것이를 하던 안해가 아마도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있었던지 알은체를 하면서 딸의 역성을 들어주는것이였다.

일인즉은 내가 출장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모란봉에 올라가서 꽃단풍묘목을 심자고 모녀간에 약속이 되었던것이다. 안해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보니 마당웃머리에 가마니로 밑뿌리를 감싸고 새끼로 엮동여맨 자그마한 꽃단풍나무묘목이 어떻게 되여 나타나게 된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사실 지난해 봄에도 다른 집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란봉에 올라서 나무를 심자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그때도 내가 출장지에서 피치 못할 일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이번까지 모녀의 정성을 몰라주고 낚시줄준비부터 갖추었으니 더더구나 딸애가 나를 고깝게 생각함직도 한일이였다.

명절날은 물론이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면 걸음보다 앞서 마음이 먼저 모란봉에 오르곤하는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굳어진 생활이였다. 그럴때면 모란봉은 은근한 품으로 나를 친근하게 맞아주곤하여서 마음속에 안고간 가지가지 사연을 마치 친근한 동무에게라도 이야기하듯이 고스란히 터놓고싶었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짙은 잎새를 흔들어주며 아릅드리 소나무며 애어린 수삼나무, 연두색 목란꽃나무까지 멀리 손저어 바래워주는듯만싶어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사랑의 봉이기도 하였다. 나는 가끔 모란봉에 오르면 정을 주고 정을 안는다는 말이 사람들 호상간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인 아름다운 자연과 누리고 받게 되

는 그 《정》을 의미하기도 한데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자연이란 그만큼 인간에게 가깝고 친근한것이 아니겠는가.

하다면 내 마땅히 쉬는날이면 이 모란봉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 몸을 잠금이 응당할것이다.

하건만 나의 짧은 생각이란 안타까우리만큼 협소하여 이미 벌써 터득해야 할 이 초보적인 리치를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겨우 터득하게 되었으니 터놓고 말해서 먹은 나이가 여사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더우기 모란봉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56년 3월에 몸소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곳이 었다.

불멸의 뜻이 아로새겨진 모란봉이다....

이튿날 나는 때늦은 자각을 안고 딸애와 함께 모란봉에 올랐다.

주단을 펼친듯한 푸른 잔디밭, 짙은 록음속에 비껴간 푸른 하늘, 지저귀는 산새의 노래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봄별에 무르녹아 한결 풍치를 돋구고있었다. 노란 피쵸새가 쌍을 찾아 분주히 날아에는 숲속의 정서란 특이한것이어서 벌써 첫발을 들여놓자부터 마음은 날듯이 상쾌해졌다.

언제부터 전해져내려 오는 말인지는 몰라도 맑은 물을 보러거든 푸른 산을 먼저 보라고 했었는데 나를 두고 돌이켜보면 여직껏 물에 취해 드문히 쉬는 날을 흘러보내긴 했어도 이 수려한 모란봉의 풍치를 한결 더 질게 할 생각이란 거의나 해보지 못하고있었고 수려한 운치에 찬탄은 보내면서도 땀과 노력으로 빛내여주는 일은 거의나 못한터여서 이번 만이라도 실컷 땀을 흘리고싶었던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오르고 보니 모란봉마루엔 여느때없이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젊은 남녀들이 아니면 꽃양산을 쓴 부인들이 어린애들을 손잡고 걷는 모습이 아니면 대학생들의 드바쁜 걸음들이 엇갈리던 여기에 가쁜한 작업복차림의 사람들로써 차넘쳐있었다.

방송차가 앞서고 오색기발을 든 청년들이 모란봉 등성이길로 물밀듯이 차흐르고있었다. 나는 며칠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또다시 이 모란봉에 오르시였다는것과 인민의 모란봉으로 꾸리어주시려는 그이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온 평양시가 펼쳐나서게 된 경위를 상기하게 되었다.

울밀대에서 멀지 않은곳에 구멍이를 깊이 파고 텃거름을 주어가면서 꽃단풍 한그루를 다 심고서

땀을 들이고있는데 누군가가 울밀대 란간에 올라서 옛 시인의 시구를 읊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 왔다.

안개걸는 아침의 모란봉은

망울진 꽃봉오리 완연하고

락락장송 우거진 봉이엔

백학이 날아서 절묘하구나

등고보니 실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모란봉이 었다.

찬란한 역사를 지키며 수수백년 애국의 명장들이 비껴들었던 그 서리발 장검의 푸른 빛이 아직도 그대로 서려있는 이 역사의 봉우리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르셨으니 우리의 오늘과 래일을 꽃피우시려고 기울이시는 그이의 한없이 높은 뜻과 사랑앞에 가슴뜨거워지는 심정을 금할수가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땅의 산은 산대로, 강은 그 강대로 예나 다름없어도 그 산, 그 강이 어찌하여 이토록 이름난 산이 되고 강이 되어 만사람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어찌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인가. 흘러간 력사도, 하늘의 힘으로도 결코 어쩔수 없었던 이 나라의 천산백강이 인민을 위해 가슴을 헤쳐놓게 한 그 무한대한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세계의 경탄이 그럴진대 인민의 복리를 위해선 천만산악도 다스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영예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과 대해와 같은은정이 그대로 모란봉의 수려한 운치로 되고 아름다운 꽃과 청고운 산새들의 지저귂소리로 들리고있으니 인민의 유원지 -모란봉은 또 얼마나 아름다와 질것인가!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속에 자연으로서의 산발의 키가 낮아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란봉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상상봉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모란봉을 내려오는 나의 마음은 기뻐다. 그것은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아름다와질 래일을 그려보는 그 마음과 함께 당의 전사 된 마음으로 당의 은정에 보답한다는것이 얼마나 값높고 순결한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된 그것때문이었다.



## 력사의 대하를 따라외 1편

한장희 (중국)

력사의 대하를 따라  
백년세월을 걸어나오니

저토록 파아란 하늘처럼  
내 가슴속에도  
푸른 물결이 출렁이네

처얼썩 처얼썩  
집채같은 바위돌 부시며  
산악을 삼켜버린  
저 거세찬 흐름이

하얀 물보라 휘뿌리며  
해빛속에 별빛속에  
눈부시게 반짝이거늘

굽이쳐 흘러온 그 길이  
천리였던가  
만리였던가  
대하가 소리치며 흐르나니

기둥처럼 하늘을 받쳐선  
주체사상탑이 비끼여  
창공에 흰갈기 날리는  
천리마가 비끼여

물결소리에 화답하듯  
쇠물이 사뭇치고  
이삭이 설레이고  
행복의 노래 울려퍼지누나

아, 력사의 대하를 따라  
백년세월을 걸어나오니

저토록 파아란 하늘에  
기폭처럼  
노을이 붉게 타네

1983년 11월 22일

-조선혁명박물관에서-

## 백두의 메아리

천지가에 올라서니  
내 한껏 가슴 풀어웨친다  
-아 겨레여!

마음과 마음  
한데 부딪쳐 뿜기는가  
열여섯 봉우리들  
하나의 목소리로 화답하누나

서로 말이 갈아서  
천지의 물보라우에  
형제의 정 오가고

함함한 만병초도  
불멸의 력사를 자랑하듯  
방시레 웃는데

밝은 해발이 비낀

장수봉-백운봉사이에  
어느덧 쌍무지개  
휘우듬이 걸렸구나

저기 구름너머 아득히  
운무속에 사라지는  
백두의 메아리

혈육의 정을 담아  
뜨거운 피줄을 타고  
하늘땅 끝까지  
울려가나니

천만년 여기 서서  
내 웨치고싶어라  
-아, 겨레여!

1986. 7. 11.

-안도현 명월구에서-

## 정심이

박종철

## 1

버스에서 내린 석준은 버릇처럼 넥타이를 바로 매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십분전 세시였다. 이제 강변까지 가느라하면 정확히 약속된 시간이 될것이다.

그러나 마음만은 조급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정심의 행복에 젖은 무엇인가 파는듯 집요한 눈이 얼른거렸다. 수집음을 머금은 차분한 귀밑머리도 안겨왔다.

(사랑하는 정심이, 이제 우리 함께 마음껏 일해 보지요...)

그처럼 그리던 보람찬 사업과 함께 행복한 생활의 꽃대문이 그들을 부르고있다. 그는 어린애가 된듯 혼자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걸음을 다그쳤다.

어느덧 복잡한 네거리를 지나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있는 대동강변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거기에 정심이 나타날것이다. 날씬한 몸을 감싼 파아란 달린옷을 입은 그가 나비처럼 달려올것이다.

혹시 그에게 뜻밖의 일이라도 생겨 오지 못한다면...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불쑥 머리속에 떠올랐다.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이 무뎠음을 멈춰세웠다.

했으나 석준은 곧 도리머리를 흔들며 걸음을 다그쳤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정심이 오지 않다니...

순간 그의 귀전에는 어제 그의 전화를 받던 정심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나왔다.

《...뭐라구요? 그런 중요한 일을...어쩌면...》

숨이 차오르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찌르륵 찌르륵 가느라란 수화기의 소음을 뚫고 다시 울려오던 정심의 대답.

《네, 가요. 꼭 가요. 잊지 않고...》

그것은 웅대한 대답이었으나 왜서인지 석준의 가슴을 것처럼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나눌 귀중한 벗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행복때문일까...

실로 이 며칠간은 석준에게 기쁨만이 차고넘친 날들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는 외교단성원으로 외국에 가게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있을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믿음을 받아 외국출장의 길에 오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번에 떠

나면 몇년후에야 돌아올수 있는 정황에서 오래 동안 무르익혀온 정심이와의 사랑을 성사시켜 결혼하고 함께 떠나려고 생각하였다.

아직 터놓고 사랑의 약속도 나눈적이 없는 그들이었으나 마음속깊이 간직된 어린시절의 추억과 현실생활에서의 우정은 모름지기 이 모든것을 약속하고도 남는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일년나마 건재공학연구소에서 일해 오면서도 소녀시절의 수집음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정심이였다. 언제 한번 그림다는 말조차 해본적이 없는 그였지만 둘이 함께 거닐다 갈라지군하던 합숙앞 작은 길에서 가로수뒤에 몸을 숨기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던 눈길을 온몸에 느끼며 처녀의 깊은 생각을 송두리채 받아 안곤 하였던것이다.

드디어 유보도에 들어선 석준은 자기의 추측이 그대로 맞은데 만족하여 저도 모르게 다시한번 빙긋 웃음을 지었다. 정심이 벌써 거기에 와있지 않는가. 바로 휘늘어진 버드나무그늘밑에 늘 입고 다니던 파아란 달린옷을 입고...

《정심동무!》

석준은 이렇게 부르며 달려갔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무뎠 멈춰서고말았다. 그가 서있는 나무옆에 누군가 또 한사람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나이든 남자가 서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무슨 일때문인지 그 남자는 심각한 얼굴로 정심을 마주보고있었는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심이란 그에게 무슨 말인가 했으나 그나마도 인차 그쳤다.

이윽해서 정심이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남자에게 다가가 당기듯 그의 팔을 잡았다. 남자는 말없이 그가 이끄는대로 따라갔다. 이윽하여 그들은 공원의 짙은 록음속으로 사라졌다.

누굴가 하는 의혹이 석준의 머리를 휩쌌다. 잠시 후에 그것은 (아버지다. 정심의 아버지...) 하는 놀라움으로 변하였다. 그제서야 석준은 그를 미처 몰라본 자기를 후회하며 그들이 사라져간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방금 내린 손님들만 하나 돌출어져 가는것이 보일뿐 공원옆 정류소에 멈춰섰던 버스는 벌써 멀리 사라지고있었다. 오가는 사람들 틈에 서서 정심이 아직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있었다.

그는 석준이 다가온것도 알지 못했다. 왜서인지 얼굴에는 알지 못할 수심이 어렸었다. 석준이 불

러서야 고개를 돌린 그는 황황히 눈을 깜박이며 생기있는 웃음을 지어보이고 버릇처럼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참, 오셨군요. 제가 너무...》

그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아버님이 아니시오?... 왜 그냥 떠나보냈소?》

정심이 눈을 들어 방긋 웃었다.

《알아보셨군요. 이제 썩 늙으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댔소. 왜 나에겐 알리지 않았소?》

정심은 석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우람한 체구와 유표하게 눈이 끌리는 연황색의 줄이 간새 옷차림을 이제야 발견한듯 생글생글 웃음을 지어보았다.

《저, 시간이 급하시다며... 회의에 오셨었는데 저의 일이 걱정되어 잠깐 들렀다고 하시더군요. 참 부모들 생각이란...》

그는 방금전 아버지앞에서 심각해있던 그답지 않게 다시 방긋 웃었다. 그러나 석준은 따라웃을수 없었다.

《저의 일이라니... 우리 문제말ियो? 동문 뭐라고 대답했소?》

《아이 아무것도 안예요. 그건 아직... 제 걱정 말고 어서 내려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번에 말하던 <교-6>건재... 그 원로때문에 고향엘 한번 다녀 오겠다고 했어요. 다시한번 실험을 할수 있게... 원료를 좀 가져오자고말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을 깜박이며 석준을 조심스럽게 쳐다본다. 석준의 얼굴에 짙은 실망의 그림자가 비꼈다. 생각밖에도 <교-6>건재라니?

그것은 정심이 대학졸업논문으로 작성했던 연구과제로서 지방의 건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한 큰 발견이었다. 바로 정심과 석준이 나서자란 한 고향땅, 저 먼 바다기슭의 혼한 부석돌로 만든것이다.

거기에는 정심의 어린 시절 꿈과 피타는 노력이 고스란히 바쳐져있다. 석준도 정심의 졸업론문에 처음부터 관심해왔고 방조도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그 실험에 성공을 하고 논문으로까지 완전히 통과 하게 된 날 그들 둘은 우산도 없이 봄비 내리는 대동강기슭을 달음박질하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고향의 바다가에서 뛰놀던 어릴적 그 시절처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그 건재로 아담한 살림집들이 적지 않게 일떠서고있다 한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교-6》이란말인가.

(아버지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야 하는건데...)하고 석준은 약간 도드라진 이마와 아래로 내려오며 빨라진 하관, 영특한 재주를 간직한듯 자주 깜박이는 그 녀자의 두눈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말도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류달리 큰

저 눈,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것일가.

《저, 정심동무, 어제 내가 전화로 말하다싶이 동무만 동의하면 우리 함께 갈수 있다 그 말ियो... 그러니 이것은 조국의 명예를 위한 사업의...》

그렇게 하고싶었던 사랑의 고백이었던만 말은 왜 서인지 번두리만 에돌며 씹먹어지다가 그나마도 끊어져버리고말았다. 대신 숨결만 높아지고 몸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러나 석준은 불타듯 빨강게 달아오른 정심의 볼에 허둥이는 눈길을 멈추고 부질없이 두손만 부벼댔다.

(에잇 사내대장부라는게...)

《정심이, 물론 내 요구가 좀 이른것 같긴 하지만...》

석준은 다소곳이 숙여졌던 정심의 머리가 천천히 들리며 한껏 수줍음을 담고 아연히 쳐다보는 눈에 끌리어 말을 멈췄다.

《저, 제가 꼭 같이 가야만 할 일인가요?》

《정심이, 이제 가면 몇년이 걸릴지 모를 일ियो. 정심동무도 어린이가 아닌이상...방금 아버지도 동무때문에 근심되어왔다면서...》

《아이참...》

석준의 말에 정심은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입을 싸쥐고 돌아섰다. 이윽해서 고개를 돌린 그는 무슨 잘못이라도 사죄하듯 조심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석준동무, 우리 그 일을 후에 다시 논해요. 그러지 않아도 전 머리가 복잡하답니다.》

《그건 무슨 말ियो. 왜 아까부터...》

석준이 들었던 기분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듯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그쳐물었다.

이번에는 정심이 더 놀랐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회고하듯 다급히 눈을 깜박여보이고는 석준을 향해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그렇게 제가 부질없이... 전 석준 동무를 녀두에 두고 말한게 아니예요.》

회오리바람이라도 지나간듯 두사람이 같이 놀랐으나 그것은 곧 꺼졌다. 대신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그들은 늦여름의 록음이 짙은 가로수 밑을 말없이 걸었다.

정심은 가끔 고개를 돌리고 그 반대쪽, 이미 그의 아버지가 사라져간 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길이 끝나는곳에 그들의 고향마을이 있다. 사철 푸른 물 출렁이는 바다, 세찬 바람, 먼지이는 땅... 한생 고향마을을 꾸리는데 바쳐오는 아버지, 이제는 군소재지로 된 거기에서 건설사업을 맡아보는 부위원장을 하고있다고 한다. 그 아버지가 왜 왔댔는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갔을가?

《석준동무, 축하하네... 두분이 다 여길 보시오.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처녀동무...》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그들은 머리를 들었다.

앞에 석준이포래의 청년들이 사진기를 메고 서 있었다. 아프리카사람처럼 몸이 가름하고 다리가 긴 청년이 벌써 사진기를 눈에 갖다대고있었다.

《저… 우리 동무들이요. 자, 인사하오…》

석준이 느닷없이 나타난 친구들에 대한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며 정심에게 말했다.

정심은 뜻밖의 일에 당황하여 두손을 마주잡고 어디를 보아야 할지 눈만 깜박이었다. 그 순간에 찰칵 사타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치너동무, 사진을 잘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손상이 가지 않게… 약속합니다.》

몸이 가느다란 친구가 만세라도 부르듯 두손을 높이 쳐들고 한참 떠들다가 지나갔다. 그 일로 해서 인지 석준은 다시 유쾌해졌고 아까보다 한결 용기도 생겼다.

《정심동무, 이제 말을 떼오. 혹시 나한테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참, 동무두… 어차피 우린 일생울…》

석준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정심은 뒤따라오다가 아름답드리나무뒤에 멈춰섰다. 그의 높뛰는 숨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아니예요. 전 숨기는게 안예요.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단꺼번에… 이자리서 다 말할수 있어요. 그 리구 또…》

애원에 찬듯한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얼른거렸다. 무엇인가 말하고싶어 하면서도 못하는 심정이 석준의 앞에서 한번도 그를 놀래워줄만한 용기를 가져본적이 없었던 순진한 얼굴에 그대로 어렸다.

《후에 또 만나요… 그때 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리고는 토닥토닥 땅을 걸어차며 앞서 걷기 시작하였다.

《정심동무-》

석준은 갑자기 가슴에 창이라도 찔린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를 뒤따라 달려갔다. (정심이는 무엇때문에 그토록 피로워 하는가?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분명 여기에는 말할수 없는 사연이 있을것이다. 혹시 그의 아버지가 반대하는게 아닌가?)

《정심동무, 아까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지. 거긴 내가 갔다오겠소. 그러지 않아도 한번 다녀오려던 고향이었소.》

정심이 숙였던 고개를 쳐들고 석준을 바라보았다. 수심이 어렸던 그 얼굴에 생기가 피어났다.

《정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그게 정말이라면…》

석준은 그의 보드라운 귀밑머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눈에는 전에없이 정기가 넘쳤다.

석준은 그앞에서 부락을 잊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루가 지나서 석준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게 되는 고향이다.

기차의 고르로운 동음이 자장이 시절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자꾸 그리로 이끌어간다.

정심의 아버지가 지금 거기에 있다. 어느해인가 바다물에 빠진 그를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석준은 지금도 그때 너럭바위처럼 넘적한 그의 등에 업혀 물속에서 나오던 일을 잊을수 없다. 그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정심을 찾아왔었는지, 자기에게는 왜 말 한마디 않고 서둘러 떠나갔는지…

기차가 산골이를 돌아가며 길게 기적을 울렸다. 석준은 귀를 기울이었다. 그 소리는 어느덧 먼 고향의 배고동소리로 변하여 석준의 가슴을 고요히 흔든다. 바로 그 배고동소리를 들으며 석준이 고향을 뜨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날은 십년도 훨씬 지난 어느해 가을 날이었다. 그날 바다가에는 바람도 몹시 세차게 불었지. 하늘에는 떼구름이 무엇에 쫓기듯 황급히 달리고 바다우에는 물바래인듯 뽀얀 해무가 쉬임없이 날리고있었다.

그런날 석준은 난생 처음보는 큰 배에 올라 혼들거리는 란간에 몸을 기대고 서서 방금 떠나온 고향마을을 바라보고있었다. 거기 나지막한 등성이 너머 키낮은 집들이 있는 크지 않은 읍거리에서는 뽀얀 먼지가 날리고있었다.

(그래 잘됐어. 에이 끝내 떠나는구나.)

그는 읍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오늘 이 바람세찬 고장을 떠나간다. 큰 무역항에서 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는것이다. 거기에 가면 그도 큰 도시의 유리창이 번뜩이는 층높은 살림집에서 살게 될것이다.

했으나 지금 석준의 마음은 그닥 좋지 않았다. 여기서 늘 함께 놀며 같이 자라 동생처럼 따르는 정심을 두고 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다 그가 자기를 바래주러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석준은 꼭 할 말이 있었는데 그가 나오지 않다니, 자기를 원망하지나 않는지, 아니면 잊자고 하는것이냐 아닌지…

밑에서 보면 산악처럼 높던 배가 파도에 움푹을 못하고 흔들거린다. 세찬 파도가 배전을 쳐서 물갈기를 거기 석준이 서있는곳까지 날라왔다. 발목이 흥건히 젖었다. 그러나 석준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여기서 보면 고향은 푸른 산밭과 바다가운데로 들쭉날쭉하며 해만물상을 이룬 기묘한 바위들로 하여 더 말할데 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그러나 실지 이곳은 예로부터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었다.

대륙으로부터 수십리구간을 무연한 습지와 바위

로만 이어진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만한 땅 한뼉기 변변한곳이 없었다. 게다가 바다가에는 오랜 세월 해풍과 잔물에 부식된 흩아닌 흩이 또 몇십리 펼쳐져있었다. 그리하여 풍치 아름다운 바다가에는 집을 지을만한 흩무지 하나 없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부식된 돌들은 조금만 다쳐도 흩처럼 부서져내렸고 그래서 흩인가 하면 가는 모래알로 산산이 흩어지고마는것이였다.

그것으로 집을 짓자고 외를 엮은 벽에라도 발라놓으면 바람부는 날에는 먼지로 날려가고 비오는 날에는 물에 씻겨내려가 집은 말그대로 어느새 녹아없어져버리고만다. 그래서 이름도 없던 이고장에 《녹구지골》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이 거칠고 황량한 땅에 정심과 석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살았다. 한것은 이 바다에 조개며 게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얼마든지 많았기때문이였다.

집들은 기묘한 바위벼랑사이에 돌들을 쌓아 흩이 날아나지 않게 간신히 발라놓은 집아닌 집이였다.

어느해인가는 왜놈들이 이곳에 별장을 짓자고 측량도 하고 말뚝도 박으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놈들도 건설자재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실어와야 하는 일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인지 끝내는 철회리고말았다.

전쟁이 끝난후 그나마 이곳에 살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전선에서 돌아온 정심의 아버지가 그들을 붙잡고 여기에 새 마을을 일떠세우자고 호소하였다. 그무렵 이곳에 큰 수산사업소가 생겨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이름 없던고장에도 첫 건설의 동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설이라야 막돌을 제외한 모든것을 먼곳에서 날라와야 했다. 그것으로 일년내내 뛰어야 단층집 몇채 짓지 못한다.

정심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고심하며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곧 이 바다가에 무진장한 부석돌이였다. 비록 부서지기는 잘 하지만 그 성질을 변화시키면 탄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부석돌을 잘 이기여 불에 구워도 보고 압착도 해보면서 오래동안 고심하였다.

마침내 그것은 성공하여 단층집을 지을수 있게까지 되였다.

그래서 일떠서기 시작한 새 집, 했으나 역시 집들은 지붕이 낮고 벽체는 부스러지기 잘했으며 거리엔 먼지가 일군하였다...

《오빠, 오빠야-》

누군가 찾는 소리에 석준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래주러온 사람들이 부두가에 웅기중기 서있다. 그들과 좀 떨어진 선창 바로 배밑에 정심이 바짝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심아, 네가 왔구나.》

석준은 갑자기 몽클 가슴을 떨며 그를 잘못 생각했던 자기를 후회하였다. 부두가 통채로 흔들거리며 정심을 바다에 떨어듯 물방울을 튕긴다.

《애, 좀 물러서라 그러다 빠지겠다.》

석준은 자기 배가 흔들리는줄을 모르고있었다.

《오빠 정말 가니 ?》

정심이 울롱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버지가 가니 따라가는거지 뭐.》

《가면 다시 안오겠구나.》

《놀러 오군할게, 대신 공부를 잘해. 그러면 너도 도시로 올수 있어.》

《오빠 여길 잊으면 안돼.》

《어쨌든 포부를 크게 가져라. 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어.》

정심은 얼굴을 감싸쥐고 돌아섰다.

석준도 가슴을 떨며 저도 모르게 눈을 습벽이였다. 이렇게 헤어지다니, 저 귀엽고 사랑스럽던 정심을 떼여놓고 혼자 가다니.

갑자기 그와 함께 놀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노상 함께 뛰놀고 다투던 나날들, 진정 그를 두고 혼자 갈수 있을가.

그는 계단이 놓여있는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배고동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놀라 정심이 고개를 돌렸다.

석준은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정심은 란간에 몸을 기댄채 까딱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도드라진 이마밑에 류달리 크고 서늘러운 눈이 더 검고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따라왔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정심이, 내 말을 잊지 말어. 꼭...》

석준이 안타깝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배는 다시한번 길게 목메인 소리를 지르고 물을 걷어차며 바다가운데로 미끄러져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점점 멀어져간다. 정심의 모습도 작아져 갔다. 그러나 정심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다. 그럴수록 석준은 왜서인지 정심의 시선이 지긋게 자기를 따르는듯한감을 느끼며 가슴을 조이였다.

그 마지막 시각에 자기는 왜 그렇게 불안을 느끼었던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가 고향땅에 들어섰던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봄비는속을 뚫고 서둘러 역사를 나섰다. 벌써 저녁녘이 다가오고있었다.

했으나 그는 역사앞에서 한동안 당황한채 서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수 없었던것이다.

키낮은 단층집만 나란히 섰던 거리에 여기저기 큰 건물들이 늘어섰고 그가운데로 넓은 길이 쪽 뻗어나갔다. 특히 그의 눈을 끈것은 저쪽 산릉선에 회백색의 2, 3층 살림집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있는

것이였다. 정심이 만든 《교-6》 전제로 지은 집들이라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그는 환희에 잠겼다. 보면 볼수록 신기해보이기만 하는 집들이다. 저기에 정심의 뉘와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여, 이게 누구야? 석준이 자네가 어떻게...》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길 건너쪽에서 한집이나 되는 그물을 어깨에 멘 웬 사람이 킁킁 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있다.

《자네 날 모르겠나. 원 이렇게두, 늘쌍 말상판대기라구 놀려주더니 그래 몰라본단말이야 ?!》

그가 자랑스럽게 자기 소개를 해야 생각났다. 얼굴이 길고 코가 눈언저리에서부터 낭떠러지처럼 미끄러져내려 그렇게 놀려준적이 있다. 그를 이렇게 보게 될줄이야...

《자네 장가를 갔나, 난 벌써 아들이 있어, 저녁에 집에 가자구. 우리 집사람은 시내에서 데려왔는데 볼건 없어. 그러나 뭐...》

그는 석준이 꼭 와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그물을 쫓아 올리춘 다음 다시 길을 건너갔다.

《참 저게 우리 집이야, 저 세번째 3층집...》

그가 길가운데서 다시 돌아서 가리킨다. 방금 보고난 그 집들이다.

석준은 기분이 좋았다. 또 누구를 만날듯 모두 낮이 익고 본듯한 얼굴들이 마주 다가온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심이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장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느 다른 곳에 나가고 방에 없다고 한다.

후에 만나기로 하고 그는 혼자 바다로 나갔다. 가보지 않고서는 건드릴수 없게 그리운 바다였다.

거기는 벌써 황혼이 깃들고있었다. 물우에는 수천수만의 태양의 잔광이 한데 모여 춤추며 노닐고 물소리는 간단없이 발밑에서 흥떡이였다. 끼룩이는 갈매기울음소리가 그를 어딘가 먼곳 소꿉시절로 이끌어갔다.

끼룩-끼룩-

그래 그때도 갈매기들이 저렇게 울었었지. 이 바다를 사철 떠나지 않고 날아예는 저 갈매기, 철썩이는 물소리, 구르는 모래알들...

모래사장은 저녁노을이 짙은 색으로 물들었다. 그우로 석준의 외줄기발자국이 뚜렷이 찍힌다. 그러나 이전에는 혼자가 아니었지. 어느 때나 두줄기의 발자국이 동화속의 숲길을 걷는것처럼 조그맣게 나란히 찍히곤하였다. 심술궂은 파도가 지우면 그들은 또 찍어놓았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달리며... 이렇게 그들은 이 기슭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미역도 감고 감둥이아이들처럼 온몸이 새까맣지도록 모래판을 딩굴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이처럼 바다가 조용해졌을 때 뛰놀던 놀음에도 지친 그들은 땅우에 엎드려 손

바닥을 모래무지에 묻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며 자기들의 조그마한 《집》을 짓고있었다. 자기들은 온 뉘와 념원이 깃든 《행복의 집》이였다.

그들이 한창 그 일에 열중하고있을 때 갑자기 머리우에서 갈매기 한마리가 큰 소리로 울었다. 정심이 무심결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석준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오빠, 저것봐, 저게 뭐야. 저 집들...》

석준은 돌아섰다. 순간 그는 꿈인듯 한참 눈을 꿈쩍이고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야, 도시다, 도시...》

방금전까지 푸른 물밖에 없던 바다우에 큰 도시가 생겨났것이다. 물속에서 불쑥 솟구치기라도 한듯 크고 높은 집들과 공장들로 이어진듯한 적황색의 대도시가 바다우에 등실 솟아올랐다.

《야, 저것봐, 차들이 달리는것 같네, 영화에서 본것하고 꼭 같애... 저기 저 높은 집에선 유리창이 반짝여-》

정심이 그 신비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찾아낼듯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모든것이 살아서 그대로 움직인다. 다만 소리가 없이 고요할뿐.

《정심아, 우리 저길 가볼가?》

《응, 그래 가자!》

신비의 세계에 끌린 그들은 똑같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몇걸음 앞에는 푸른 물이 철썩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없이 뛰어들었다. 첨벙거리며 물을 가르고 걸어차며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물은 자꾸만 깊어지고 신비의 도시는 아직 아득히 멀다. 마침내 힘이 진한 그들은 찌물만 몇모금씩 들이킨채 밖으로 나왔다. 그때는 벌써 해가 산을 거의 넘어가고 물우에 솟았던 도시는 점점 희미해져가고있었다.

《오빠, 다 없어져가, 저길 붙잡아, 응? 꼭 잡아.》

정심이 힘이 진한 몸을 석준에게로 가까이 일으키며 말했다. 그러나 잠시후에 그 모든것은 꿈속에서 보았던듯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높은 구름에서 비치는 잔광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속을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였다.

《오빠, 그것들이 어디로 갔어. 왜 우리 고향에 왔다가 그냥 갔어? 왜 갔을가, 이제 또 올가?》

정심이 석준에게 매달리며 안타까이 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한채 떨어질줄 몰랐다.

했으나 이미 사라져간 도시는 다사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석준이 후에 그것은 빛의 꺾임작용으로 일어난 신기루현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심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해지는 저녁이면 매일처럼 바다에 나와 뿔어질듯 먼 곳을 바라보곤했다. 마치 조그마한 집을 짓던 자기

의 온 녀이 신비의 세계에 솟았던 층집들에 매혹된 듯, 아니면 사라져간 신기루를 다시 불러 영원히 자기 곁에 붙잡아두기라도 할것처럼...

그때로부터 몇해후 그들은 학교소년단에서 조직한 도소재지견학을 갔던적이 있다. 영화나 사진에서 보던것 말고는 처음 도시구경을 하는 그들이었다.

그들은 한주일동안이나 다니면서 많은것을 보았다. 그런데 견학이 끝난 마지막날 있어야 할 정심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찾았다.

한참만에야 석준이는 새로 지은 높은 살림집결에 서있는 정심을 발견하였다. 석준이 온것도 모르고 그는 층높은 살림집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석준이 깜짝 놀래워야 그는 잊었던 자기를 찾은듯 방싯거리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오빠,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지?》

그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살수 있어.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런데로 나올수 있거든.》

《우리교장엔 짓지 못하나? 오빠가 지어봐.》

《안돼, 거긴 짓지 못하는대야.》

석준이 말하자 정심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울퉁한 눈속에 의혹과 놀라움이 한데 섞여 까딱없이 그자리에 굳어졌다.

그런 정심을 보는 석준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자기 고향이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인들 왜 모르랴. 하지만 아직 단층집도 짓기 힘든 고향을 두고 실없는 말을 할 필요는 또 무엇인가.

했으나 정심은 내내 그 의혹을 그치지 않았다. 석준이 고향을 떠나던 날에도 바로 그 의혹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주지 않았던가. 석준이 마지막 시각에 느낀 불안은 바로 그때문이었던것이다.

### 3

이제는 그 모든것이 영원히 지나간 일이다. 정심이 끝내 자기 뜻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그때 보았던 신기루의 높은 높은 층집들이 여기에도 일어서고 있다...

저녁에 석준은 정심의 아버지를 만났다.

짐작했던바대로 그는 어른이 된 석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소개를 하자 몹시 반가워하며 집에까지 데리고갔다. 술병까지 꺼내놓는다.

《날 만나러 왔다가? 그래 무슨 일인가.》

그가 허물없이 잔을 따르며 묻는다. 석준은 서둘러 자기가 가지고 온 병을 꺼냈다.

방에는 불빛이 밝게 비치고있었다. 자식들을 모두 내보내고 단 두식구뿐인 그들 내외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어느덧 석준은 그들앞에 느껴지던 어려움도 잊었다. 자기 집에 앉은듯 아늑하고 친절한 기운이 그를 휩싼다. 어느새 그는 자기가 찾아오게 된 사연을 전

부 말했다.

《외국으로 간단말이지,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듣고난 아버지가 어느덧 심각한 안색을 띠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정심이와는... 무슨 의논이라도 있었던가?》

아버지가 물었다.

석준은 머리를 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수 있으랴. 어렸을 때의 추억, 다시 만나게 된 기쁨, 수도에서 보낸 그 뜻깊은 날들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석준이 그를 다시 만난것은 세해전에 진행되었던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그간 석준은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문에서 얼마간 사업하고있었다. 그날 석준은 대학생들의 발표모임도 그렇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의 열정에 몸을 잠겨보고싶어 발표모임에 참가했었다. 휴식시간에 전시회장의 넓은 휴게실에서는 모임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론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화제는 청년들의 행복에 대한 문제였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론점이 거기로 향해가고있었는데 그에 대한 청년들의 견해가 저마다 각이했다. 어떤 동무들은 행복이 거대한 과학적 발명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했고 또 누구는 한생 후회가 없도록 말없이 사는것도 행복일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새겨들던 석준은 모두가 말은 하면서도 명확히 찾지 못하고있는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동무들의 말이 옳습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이윽고 석준이 이야기에 끼어들며 입을 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새로 나타난 석준의 류다른 외모에 쏠렸다.

《그러나 동무들의 그 주장은 개별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청년의 행복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자기를 얼마나 참답게 바치는가 하는데서 찾아야 할것입니다. 조국을 위한 일에 자기를 더 많이 바칠수록 행복은 그만큼 큰것입니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은 청년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떼어놓을수 없기때문입니다...》

장내에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저마다 자기 식의 행복관을 주장하던 그들이 모두 석준의 말에 찬동을 표시하였고 론리정연한 사고에 공감하였다.

석준은 자기에 대한 더없이 만족한 기분으로 전시회장을 나왔다. 자기도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를 말마디들이 다시 떠올랐다. 열렬한 박수, 진정 어린 찬사들...

그러나 이때 그는 누군가 자기를 뒤따르는듯한 의혹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분명 누가 자기를 따

르고있다. 아까 토론회장에서부터 붙잡고있던 누군가의 지점은 시선이다.

그는 돌아섰다. 예감은 틀림없었다. 거기 문밖에 한 처녀대학생이 서있었다. 석준을 보는 순간 그는 흠칫 몸을 떨며 문손잡이를 꼭 잡는다. 그러나 눈만은 여전히 석준을 향하고있다.

《저, 석준동무가 아니세요. 이전에 <녹구지골>이란 바다가에서 살던...》

석준은 알수 없는 의혹을 품은채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푸른색 대학생복을 입은 날씬한 몸매, 파도처럼 굽이쳐 어깨까지 흘러내린 술많은 머리, 여전히 뚫어질듯 보고있는 눈...

(누굴가...)

박정심이란 이름이 떠올랐으나 바다가에서 가느다란 다리로 선창가에 붙어 서서 자기를 작별하던 그때의 애 어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다만 아직도 자기를 향하고있는, 심연의 호수처럼 맑고 그윽한 정기가 넘치는 그 눈만이 그를 급작스레 옛시절로 이끌어가며 변함없는 그 모습을 되살려주었다.

웁다. 정심이다. 바다우에 솟았던 그 신기루를 보고 잠시도 떼지 못하던 눈, 그리고 떠나는 자기를 끝없이 바라보며 지긋게 쫓아오던 그 눈이다.

《정심이... 정심동무-》

석준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그대로 정심에게 달려갔다.

《왔구만, 동무가 끝내 여기로 왔어... 잘했소.》

정심도 기쁨에 넘친 가슴을 활짝이었으나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얼굴에만은 그 모든 말마디를 대신하는 맑고 고요한 웃음이 소리없이 넘치고있었다.

《어쩌면 고향엘 한번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이윽고 정심이 뽀족한 턱을 제 가슴에 묻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것은 잊을수 없는 사실에 대한 회고였으나 석준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우린 이제 다시 만나지 않았소. 난 이렇게 되리라고 믿었소.》

《전 석준동무의 연설에 감동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더라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거예요. 참 행복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그들은 그날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내를 거닐었다. 주로 자기들이 지나온 경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이었다. 그러나 정심의 가슴에 시종 관통하고있는 감정은 석준이 감동적인 연설이 자기들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환희였다.

이렇게 그들은 만났다. 석준은 그때 정심이 왜 자기의 연설에 그렇게 감동하였는지는 후에야 알았다. 정심이 벌써 그때에 《표-6》건재에 대한 연구를 한창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바로 새 건재에 대한 연구로 조국에 이바지

하고 자기의 행복도 찾으리란 결심을 가졌던것이다...

다음부터 석준은 그의 연구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실로 그 연구는 밤낮으로 이어진 피타는 노력과 탐구의 과정이었다.

더구나 정심의 졸업날자가 다가오면서 그 사업은 더 본격화되었다. 졸업전까지 연구를 완성하고 논문도 통과해야 했다.

석준은 퇴근후이면 늘 정심에게 찾아가 실험실에 같이 있었다. 거기서 실험기재도 거들어주고 원료도 퍼날라주었으며 도서관들에도 뛰어다녔다.

마침내 그는 연구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 건재가 태어난것이다.

아, 그때 정심이 못지 않게 기쁘고 즐겁던 날을 석준은 잊을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심이가 반대를 한단말이지...》

이야기를 다 듣고난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이윽히 입을 열었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네. 전번에 내가 그 애를 만나 <표-6>건재로는 2, 3 층살림집밖에 지을수 없는데 좀더 강도를 높여 다층살림집도 짓게 할수 없겠느냐고 말을 한적이 있네. 하긴 그 애가 나보다 사실을 더 잘 알고있긴 하데만.

그러나 그게 무슨 큰일이겠나. 나라를 위해 가는 자네한테 도움이 된다면야 걱정 말고 같이 가도록 하게...》

《그럼 그 건재는...그것으로...》

석준이 뚫어오르는 감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떠뽕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걱정 말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자네들의 앞길을 막을수 있겠나.》

그가 다시 말했다.

석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가 승낙을 했다. 그토록 근심스럽게 불안을 자아내던 아버지, 알고보면 얼마나 뜻이 깊고 너그러운 아버지인가, 자식들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는 부모님...

석준은 다시한번 그의 등에 업히며 물속에서 구원되어 나오기라도 한듯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 4

뜻하지 않게도 근심하던 일이 쉽게 풀린데 만족한 석준은 다음날로 돌아서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들린 고향이라서 떠나자고 보니 발길이 그대로 돌릴수 없었다.

그는 먼저 《달상관》의 집에 들리어 시내에서 데려왔다는 얼굴이 둥실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안주 솥찌도 맛보았다. 막상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보니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도 일일이 찾아보고 학교에도 들리어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했다.



그러느라니 하루이틀 예견했던 고향방문이 닷새나 지나서야 끝났다. 이제 고향에 대한 인상은 어느면 외국방문을 한것만치나 강하게 남았다.

저녁에 떠난 열차는 아침녘이 되어서야 수도에 와닿았다. 밤새 피로도 없지 않았으나 석준은 빨리 정심을 만나고싶은 조급성에 사로잡혔다. 그로써 힘들게 마련된 두사람의 행복이 활짝 꽃피게 될 시각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들앞에는 아무것도 거칠것이 없다. 정심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깜짝 놀라며 못처녀들이 그러한것처럼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다음에는 기뻐서 어찌할줄 모를것이다. 남들보다 별스레 수줍음이 더 많은, 그래서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정심이...

아직 출근시간이 되지 않았으나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자꾸 들떠오는 기분을 겨우 누르며 순서를 기다려 뺄스를 타고 곧장 정심이 있는 합숙으로 찾아갔다. 그가 이렇게 일찌기, 그것도 호실이 있는 5층까지 정심을 찾아올라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호실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채 열리지도 못한채 문은 안에서 울려오는 새된 소리와 함께 도로 꽁 닫기였다. 눈이 부엉이처럼 둥그런 처녀가 실내복차림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경악을 하듯 놀랐던것이다.

이어 외랑으로 길게 이어진 복도의 여기저기서 문이 열리며 흐트러진 긴 머리들과 실박한 어깨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누구래, 누구?》

《새벽부터 꽤나 보챈다. 바쁜게지.》

호기심에 얼굴을 내밀었던 처녀들속에서 누구인가 갑자기

《외교관이다-》 하고 지르는 소리에 모두가 참새떼처럼 날아들어갔다. 이어 방아간에 모인 참새들처럼 처녀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밖까지 새어나왔다.

석준은 당황해서 몸이 굳어진채 한동안 서있었다. (어째서 정심동무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윽하여 기다리던 정심이대신 옷차림을 끝낸 그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처녀가 문앞에 나타났다. 처녀들이 또 와르르 뒤편라섰다.

《<외교관>선생님한테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심동문 없습니다. 무슨 수속때문에 일찍 누구를 만나고... 실험실에도 들려야 한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롱담하지 마오. 수속은 무슨...》

또다시 짜그르 웃음이 터졌다. 석준은 얼굴이 빨개졌으나 역시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정심이 호실에 없는것만은 사실이었다.

오늘따라 일찍 나갔다는것이였다.

석준은 다시 수많은 처녀들의 웃음과 귀가 터질

듯한 찬사의 배움을 받으며 합숙을 나왔다.

(정심이 벌써 수속을 하다니, 그사이에 벌써 우리 직장과 합의를 보았는가?... 처녀들두 그렇게 재잘거리기를 좋아한다구야 참...)

석준은 혼자 걸으면서 이렇게 타발을 했으나 역시 그들로 해서 더해진 흥거로움은 어쩔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석준은 무작정하고 그가 일하는 연구소로 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걸음을 돌려 이번에는 좀 떨어진 실험실로 향했다. 거기서 이미 안면이 있는 정문지기아바이가 그를 맞았다.

《음 자넌가. 정심인 금방 왔다갔는데... 무슨 일로 자넌 기분이 좋았구만. 섭섭치 않은게지?》

아바이가 코수염을 손등으로 누르며 그를 눈여겨 쳐다본다. 석준은 의아했다.

《섭섭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서로 떠나간다며? 정심인 요새 그 일로 노상 밤을 새운다네, 그전에 불일을 다 보겠다며...》

석준은 더 어리벉벉해졌다. 서로 떠나가다니, 또 그 일로 해서 밤을 새우다니, 그 일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참 아까운 녀자야. 말이 쉽지 어디 제가 애써 완성한 논문을 부정할수 있다던가.》

《논문을 부정하다니요? 그게 무슨...》

이번에는 아바이가 의아해서 석준을 쳐다보았다.

《자네 아직 모르는가? 그 애가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있는것두?...》

참 이렇다니, 사랑한다는것이 꿈무니만 따라다닐 줄 알았지 영 요새 젊은것들이란...》

아바이는 다시 수염을 꺾꺾 누르고는 화가 난다는듯 정문쪽으로 다가갔다.

석준은 아바이를 뒤편라갔다. 그리고나서야 그사이에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다녀간후 정심은 노상 실험실에서 살다 싶이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교-6》전체로 2, 3층집밖에 지을수 없는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다. 강도가 약했던것이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거기에 새 첨가제가 있어야 한다.

정심은 그 첨가제를 기본원료가 풍부한 고향마을 가까이에서 찾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있는것이다.

고향, 정심이 다시 거기로 내려간다. 그렇듯 애써 마련한 이곳 생활을 버리고, 자기의 간절한 요구까지 무시하고... 석준은 한동안 자기를 잊고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나 뒤미처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정심을 찾아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사이에 그는 벌써 합숙에 와있었다. 석준이 다가가자 그는 기다리고있었던듯 밖으로 달려나왔다.

파아란 치마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품에 안길듯 석준이 앞에 다가왔다.

《아이참, 절 찾으셨더군요. 오늘 오실줄은 모르고… 안됐어요.》

응당 기다리고있어야 했던것처럼 그는 죄스러움을 느끼며 고개부터 숙인다. 한없이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 아직도 바람이 자지 않는 보드라운 귀밀머리…

그러나 석준은 그 모든것을 가리지 못한채 정심의 팔을 잡고 한옆으로 끌고갔다.

《동무가 자기 론문을 부정했다는게 사실이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는것도…》

심장이 광광 흉벽을 두드렸다. 사실이 아니기를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열정의 피가 소리치며 끓어올랐다.

《석준동무, 전 그 문제를 조용히 토론하려고 했어요.》

《난 벌써 다 토론했소. 동무의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고향에 내려갔던 일은… 참 그 부석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머리를 들었다.

(?…)

석준은 잠시 의아해졌다. 떠날 때 생각은 했으면서도 이제 그것이 무엇에 필요하랴 해서 그만둔것이다.

정심의 눈이 덤비지 않으며 석준을 찬찬히 더듬는다. 믿음을 저바린 힐난의 목소리를, 아니면 땅이 꺼질듯한 한숨소리를 들을듯 석준은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정심은 한껏 들이켰던 숨마저 소리없이 새겨버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시선을 멀리 운무에 싸인 층높은 건물 위로 옮긴다.

《석준동무, 우리가 만든 <교-6>전재는 확실히 결함이 있어요. 전 그 사실을 이미부터 알고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너무 조급히… 졸업을 앞두고 성공에만 급급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만한 높이에 오른것만도 성공이 아니요?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할 근거는 뭐요.》

《조국앞에 참답게 이바지 못하는… 언제가서 다시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에 부담이나 줄 그런 집들을 짓게 한다면 그건… 최악이 아닐까요.》

석준은 머리를 들었다. 두사람의 눈길이 한점에 서 부딪쳤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석준이 어딘가 궁해지는 자신의 립장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완강히 계속하였다.

《난 그 문제를 이미 토론했던말이에요. 동무가 다시 그 일에 손을 대지 않아도 좋다는 응낙을 받았소. 거기에도 그 연구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사람들

이 있단말ियो.》

정심이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검은 눈확속에 일매지게 하늘을 향해 펼쳐져 나간 긴 속눈썹, 보고 또 보아도 깊어만 보이는 맑은 눈동자, 그것이 석준을 향해 그린듯 움직이지 않는다.

《석준동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의 결심입니다. 저의 량심이… 그렇게 시켰기때문입니다.》

이윽고 그가 까딱 움직이지 않으며 말했다.

석준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정심이, 그렇게도 온순하고 아름답기만 하던 처녀, 유순이 녀자의 첫째가는 미덕이라면 자기에 대한 정심의 태도를 그 표본으로 삼을수 있다고 보아오던 그였다. 그 정심이 자기앞에 이렇게도 완고할수 있단말인가.

《량심이 그렇다고 하니… 동무 생각대로 하시오. 나로 말하면 지금껏 동무를 위해 애쓴 사람ियो. 동무의 성과를 남먼저 기뻐해주고 동무의 성공에서 그 누구도 느낄수 없는 행복을 감수하던나요. 그걸 버리구… 동무 마음내키는데로… 가겠단말이지 ? 후- 좋을대로 하시오.》

석준은 힘들게, 그러나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이런 말을 뱉어버렸다.

정심의 얼굴에 진한 홍조가 어리듯싶더니 인차 검히고 창백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내가 동무의 그 마음을 모르고있다고 봤… 어쩔 그렇게까지…》

정심은 가슴을 꼭 부여안으며 놀람과 실망이 뒤섞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가 그 말을 하려 했던건 아니지만… 요즘 난 동무의 행동에서 불안을 느끼고있는것만은 사실ियो. 물론 나의 주관일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두는게 좋겠소. 난 나의 의사를 동무에게 강요를 하려고는 않지만 그대신 동무가 후회되는 일이 없길 바라요. 후에…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찾아오우.》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자리를 돌아섰다.

정심의 시선이 또 자기를 따른다. 그를 대할 때마다 매번 느끼군하는 그 집요한 시선이다.

어디선가 자동차의 경적이 울렸다. 한순간 그것은 먼 고향의 배고동소리처럼 목매게 들리며 그의 가슴을 허비였다. 또다시 경적소리…

그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자기가 자동차길 복판에 서있었던것이다.

그 시각부터 그는 정심을 기다렸다. 부서에서는 떠날 날이 다가오는 석준에게 미리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시를 주었다. 특히 이미 일정에 오른 결혼문제도 빨리 결속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정심은 그를 찾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뒤따라 달려올줄 알았던 정심이 하루가 지나고 이를 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이제는 석준이 그를 찾아가고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진정을 알아주기 바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때이든 그가 자기를 찾아줄것이다.

언젠가 사진을 찍었던 몸이 가느다란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참 기막히게 아름다운 녀잘세. 사진을 자네한테 주기가 막 심술이 날 지경이구만. 하지만 어찌겠나. 남한테 떼우기전에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기쁨과 놀렘과 의혹이 한데 섞인 정심의 웃는 얼굴이 그를 향하고있다. 마주잡은 두손은 가수가한껏 높은 음을 뽑기 위해 차비를 한듯 부풀은 가슴 위에 둥 떠있다.

이 순간 정심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행복에 어린 모습, 수심에 잠긴 얼굴, 고요, 변함없이 또렷한 눈초리... 정심동무, 동무는 진정 자기를 후회하지 않는가.

한주일이 지났다. 호실에 들어서니 동무들이 그를 빙 둘러쌌다. 정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결혼식 때 한상 단단히 차리겠다는 약속을 해야 주겠다는 것이다.

《사람들두, 떡줄이는 생각지두 않는데 김치국부터 내라누만.》 하면서 석준은 봉투를 급히 뜯었다.

석준동무,

몇번이고 동무한테 발길을 뗐다가, 동무의 다정한 그림자가 비낀 창문앞에까지 갔다가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석준동무, 저는 동무를 사랑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동무의 뜨거운 열정을 대할 때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듯한 행복에 취하곤하였습니다. 실로 석준동무와 함께 있는동안은 저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즘에 와서 저의 생각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의 신임을 누구보다 높이 받고 떠나는 동무의 사랑을 제가 다 받아안을수 있을까. 저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저 역시 거기에 보답할만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물음을 놓고 저는 자신의 량심을 내대지 않으면 안될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석준동무, 이미 말했던것처럼 《고-6》건재에는 확실히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젠 저는 그것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로 그 원료가 풍부하고 그 첨가제까지 얻을수 있는 우리 고향 마을에 가서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 저의 심정을 누구보다 석준동무가 잘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성공하여 거기에 큰 건재기지가 꾸려지고 조국의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높은 층집들이 일어선다면 그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줄곧 꿈꾸어오던 신기루와 같은 그 신기한 집들이말입니다....그때에야 저는 비로소 동

무를 사랑한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참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니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나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동무는 청춘의 행복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자기를 얼마나 참담게 바치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지요.

그러고보면 저는 석준동무가 그때 간직했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셈입니다.

순간도 잊을수 없는...

석준은 편지를 다 읽지 못한채 가슴에 꽉 그러안았다. 심장이 터질듯 고동치고 숨결이 세차게 끓어올랐다.

정심이, 그가 이런 동무였던가, 순간도 자기를 모르고 참다운 복무속에 행복을 찾는 그 순결한 량심속에 자기를 바칠줄 아는 깨끗한 모습, 그런 정심을 석준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였고 늘 그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였다. 사랑에 대해서도, 행복에 대해서도 말로는 하면서 그 깊이를 몰랐었다. 그가 바라는 사랑, 그가 찾고있는 행복,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입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나오던 그 말마디가 것처럼 크나큰 의미를 안고 그의 가슴속에 잦아들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석준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구름속을 헤치고 각이한 이국의 도시들과 아아한 빙산들을 날아넘으며 머나먼 나라들을 찾아간다. 조국이 멀어져가고있다.

그러나 석준의 눈앞에는 조국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있다. 웅장화려한 수도의 거리, 소소리높은 공장의 철탑들, 경치 아름다운 고향의 바다... 그가운데 신기루가 솟아난다. 적황색의 신기한 빛에 싸인 층높은 살림집들, 우뚝우뚝한 굴뚝들, 길게 뻗은 도로들... 그 한가운데 정심이 서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몸에는 흙이 묻어 있다. 그러나 그는 석준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한껏 웃음을 짓는다.

어제날 푸르른 바다위에 비낀 황홀한 신기루위에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보던 정심이를 몰라준 나는 오늘 또 뜨거운 가슴속에 자리잡은 사랑의 신기루위에 조국을 고이 간직한 정심이를 몰라주지 않았는가. 석준의 가슴은 젖어왔다.

석준은 고개를 들었다. 정심의 눈길이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있다. 그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듯...

석준이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마주웃었다. 그앞에도 역시 행복이, 조국을 위해 참담게 바쳐야 할 새 일들이 기다리고있다. 비행기는 더 빨리 날았다.

석준이는 이 길이 정심이와 함께 가는 길임을 잘 알고있었다. 석준이의 마음은 조국을 향해 날고 있었다.

## 너도 함께 싸웠다외 1편

조성관

초연속에 피어난 한떨기 진달래에도  
연분홍 저고리 그 모습 떠올라  
보풀이 일도록 모서리 닳도록  
읽고 다시 읽은 한장의 편지

-기다리노라, 오직 한날  
승리의 그날을 믿어 기다리노라!  
기약 없는 리별의 날에  
상봉의 기약을 준 처녀의 편지

너도 함께 싸웠다  
돌격전에도 습격전에도  
배낭속에 지고 다닌 처녀의 순정  
소중히 간직한 한장의 편지

너도 함께 싸웠다  
세월은 묻지 않고  
믿어 기다린 오직 한마음  
승리의 날, 상봉의 날 앞당긴 처녀의 편지

## 그 어데 있으랴, 조국땅 아니고야

수양버들 휘늘어진 앞내가에  
그들은 나란히 앉았네  
소꿉동무 그 시절처럼

돌아온 병사  
총각의 가슴엔  
위훈의 훈장이 빛나고

다소곳이 머리속인  
처녀의 얼굴엔  
함초롬히 꽃이슬이 맺히고

조약돌 씻어 흐르는  
맑디 맑은 내물속처럼

마주 들여다보는 서로의 마음

무슨 말을 더 하랴  
함께 헤쳐온 불비속 삼년세월  
시련의 나날이 다 말해준것을

오, 하늘의 별무리들도 부러워하랴  
승리한 이 땅우에 빛나는  
한쌍의 꽃, 땅우의 별을

그 어데 있으랴, 조국땅 아니고야  
아름다운 순정 영글릴 터전이  
아름다울수 있으랴, 이런 꽃들 없이 이 땅이

시조

##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이여!

### 내 조국이 시작된곳은

서진명

굽이쳐 흐르는 강물도  
첫 썩터가 있고  
아름드리 거목도  
땅속에 내린 그 뿌리가 있나니  
하다면 이 땅에 무성한 행복을 안아 가꾸는  
은혜로운 조국이여  
너의 시작은 그 어디

푸른 숲속  
날려버린 활촉들이 묻혀있는곳  
천년 이끼오른 그 옛 성터인가  
이 나라 갈래많은 길이 시작되는  
먼 북변의 그 기슭인가

아니면  
단발머리 녀선생이 배워주던  
우리 말의 첫 자모인가  
아버지의 눈물자욱 아직도 식지 않은  
분여지의 그 발머리인가

어찌 그렇게 찾으랴  
날바다를 막으며 대갑문을 세우고  
만톤프레스의 거대한 힘으로  
강철기둥을 버려내는  
위대한 내 조국의 그 시작을

그러면 그 어디?  
내 눈앞에 마주 오누나  
수령님 사랑으로 펼쳐진  
급나락 설레이는 들  
수령님 손길에 받들려 솟은  
화려한 거리와 마을  
치솟아오른 철탑의 숲이...

그 모든것 위에 빛을 뿌리며  
안겨오누나  
오랜 세월 덧쌓여온 어둠을 끝장낸  
숙망의 언덕위에  
광명의 분수령인듯  
솟아있는 만경대가

조국이여

네 심장의 첫 고동이 울리지 않았던가  
고향집 그 키낮은 책상앞에서  
지원의 뜻을 담아 조선이란 두 글자를 쓰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붓끝에서

고향집 그 프락을 백두밀림에 이으시며  
수령님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리실 때  
너의 가슴은 그렇듯 세차게 높뛰었고  
장장만리 눈보라를 헤쳐오신 그 길에서  
너의 머리위에 밝은 하늘이 열리지 않았던가

고향집 피창가  
타오르던 그 한점 등불이  
주체의 봉화로 타오르는 이 강산  
만경봉 소나무에 비겼던  
사랑의 그 무지개에 실려  
이 땅에 차넘치는 행복은 실려왔나니

바라는것  
천으로 만으로 다 안겨주는  
조국이여  
네 품이 은혜로울수록  
우리 생각이 달려가는  
아, 만경대

반만년의 어둠이  
거기에서 동트는 새날로 열리었고  
천만년의 밝은 앞날이  
거기에서 첫 해살로 솟아오른  
만경대는 인민의 행복이 시작된 첫 기슭

세월을 넘으며  
대를 이으며  
우리 당이 끝없이 빛내주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더듬어보는  
그 이름속에 내 조국이 다 안겨있어

아, 진정 거기에서 시작된것이구나  
만경대 프락에서 시작된  
내 하늘, 내 땅, 내 행복  
인민의 나라  
위대한 나의 조국은...

## 빛

김병두

수수천년 물러오며  
변치 않는것  
흙빛인줄 알았더니  
변하고 변하였구나  
후치령 기슭의 발이랑 이랑들

새들이 환희로이 날으는  
저 두렁과 두렁을 넘으며  
고향의 흙처럼 평범한 농민  
그대는 십년을 하루같이 묻었구나  
쌓으면 산을 이룰 그 많은 두엄을

분여지 발머리에 부모들이 떨군  
기쁨의 눈물맛을 알기에  
이슬내린 새벽에 달뜨는 저녁에  
그대 한단의 풀도 더 베어낸 농민

아기를 키워가는 어머니 마음이기  
읍에 갔던 길에도 거름 한차 실고와  
사래긴 이랑이랑에 숨결을 주며  
손이 땅과 한빛이 되도록  
땅을 걸구어온 그대

자나깨나  
그대 바란것이 있었다면  
수령님과 당의 뜻대로  
더 알차게 무르익힐 금빛 이삭뿐

아, 깨끗한 그 마음 그 진정  
땅에 옮겨져  
메말랐던 고향등판도 옥토로 되고  
그 땅우에 억만이삭  
그대 부르고싶던 삶의 노래 떠신고  
해마다 흥치며 설레거니

살오른 등판 변해진 저 흙빛에서  
티없는 진정을 바친  
그대 량심의 빛 어려오고  
온 나라가 돋우어보는 그대 얼굴이 안겨와라

말없이 조국을 받드는 길에  
한생의 기쁨을 엮고사는  
오, 그 아름다운 삶의 빛은  
부강한 조국에 밝은 빛을 더해주었구나

## 나는 조선사람

최정용

레사로운 날  
서둘러 걷는 출근길에서도  
아이의 손목잡고  
즐거 거니는 유보도우에서도  
마음에 그 이름 새겨본다  
나는 조선사람!

세상에 이름높은 학자도  
위훈 떨친 영웅도 아니건만  
내 어디에 가도  
그 이름 지너  
떳떳이 머리들고 사는  
나는 조선사람!

남보다 잘살아서  
이리도 긍지높은것인가  
큰 나라 민족이어서  
이리도 가슴 설레는것인가

명예와 황금의 재부는 내게 없어도  
하늘 땅을 다 준대도 바꾸지 않을  
세상 귀중한것 내 가슴에 있나니  
그것은 내 눈에 지혜로 어리고  
내 발걸음에 힘으로 이어지고  
내 심장에 맑은 피로 고이는  
주체의 녀

그 녀으로  
세상 없는 길을 내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누리에 빛나오른 조국과 함께  
궁지높은 나의 삶

이처럼 가슴 뜨거우라  
이름조차 빼앗겼던 그 세월  
흘날리는 비구름처럼  
타향만리에 피눈물을 뿌려보지 않았다면

알수 없으리  
운명의 주인으로 억센 이 마음을  
온 세상을 굽어보는 오늘의 이 기쁨을

아, 어제날은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였다  
조선사람!  
오늘은 존엄의 대명사로 이름높은  
조선사람!

그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위대한 태양, 우리 수령님  
이 땅의 주인으로 나를 내세워주시고  
운명의 수호자 우리 당을  
하루같이 따르며 내 살기에

정녕 별이라도 따올듯  
만리대공 나래치는 희망도  
산악을 떠옮기고  
날바다를 휘여잡는 담력도  
거기서 오는것

아, 조선사람!  
세상이 나를 안다  
나는 높이 올리는 행복의 이름  
나는 높이 올리는 영광의 이름

주체의 뉘트로  
뼈를 굳히고  
주체의 맑은 피로  
가슴을 뚫이는  
아, 나는 조선사람이다!

## 그대 하나뿐

김송남

내 어릴적  
포근히 안기였던 어머니 젖품은  
파고들어도 파고들어도  
그 끝을 알수 없던  
기쁨의 세계

꿈이였던가  
그 살뜰함  
그 부드러움  
한가닥 추억으로 남았는가

생각하면  
나의 집 따뜻한 온기속에  
보람찬 일터의 즐거움속에  
내 기쁨 아이때처럼 끝없어

머리 희여지는 오늘에도  
나를 안아주는 따사로움에 목메이나니

그대였구나, 조국아  
기쁨에 기쁨을 이어주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며  
딜고 선 땅과 같이  
머리에 인 하늘같이 변함 없는  
내 삶의 영원한 요람

아, 어머니 애뜻한 정도  
나의 한생도 다 함께 안긴  
이처럼 크나큰 사랑의 품은  
그대 하나뿐이여라  
향도의 해발 넘치는 나의 조국아!

## 청춘의 이름으로

량덕모

안기여 응석만 부리던 시절엔  
너무 쉽게 불러왔구나  
이 심장 다해 받들어가는 오늘엔  
한번 부르자 해도 가슴 울렁이는  
나의 조국이여!

날이 갈수록

들꽃 한송이 조약돌 하나도  
정을 다해 안아주고싶은 마음  
아, 험히 그대를 물려받았다면  
나의 사랑 이다지 불타지 않으리

후날에 태여날 우리를 믿어  
유명무명의 전사들

가랑잎 깔고 쪽잠 자면서도  
그려보던 그 하늘이어서  
원췌의 화점에 뛰어들면서도  
지켜낸 그 땅이어서...

문득 나의 눈길 마주치는 산봉우리도  
어느 선열이 묻고 간  
그 청춘으로 하여 푸르른것인가  
창조의 흰연기 뿜는 저 공장굴뚝은  
그 뉘의 후더운 숨결 안고 서있는것인가

그저는 옮겨디딜수도  
바라볼수도 없어라  
나를 기다리는 공원의 작은 의자도  
유보도의 낮은 돌계단도  
값비싼 피와 땀이 어려있어  
더없이 소중한 조국이여!

정녕 가볍게 부르지 못할  
그대를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것을 대를 이어 빛내라고  
쉬임없이 깨우쳐주며 이끌어주는  
당의 목소리  
이 가슴 울리거니

행복하여라!  
당의 빛발로 눈부신  
천만년 미래를 내다보며

그대를 위해  
불타는 내 심장 바칠수 있음은

내 오늘에 흘리는  
그 땀 한방울도 기쁨으로 빛나오르고  
내 한몸 흠여진다 해도  
후손만대가 뛰어놀  
행복한 이 락원에 깃들리

허나 그대를 받들어  
내 오늘을 잘못산다면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  
긴 세월을 두고 흘린 피와 땀이 깃든  
이 땅을 딛고 살 권리가 있을것인가

서슴없이 아낌없이  
나의 사랑 다 쏟으리라!  
만약 흠을 다룬다면  
그대 한줌 흠에 얼굴 비비던 투사들처럼,  
만약 물을 다룬다면  
그대 샘물 하나 위해 목숨바친 전사들처럼

오,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그대와 운명을 같이할  
나는 그대의 아들  
청춘의 이름으로 터치는  
가슴속 가장 귀중한 말은 한마디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이여!

## 그의 이름

권정춘

먼동이 트기전 삽자루 둘러메고  
논둑길로 걸어가는 새날의 첫 사람  
물관리공아바이 수고한다고  
분조장쳐너 인사는 하면서도  
어찌 알았으랴 농장의 당비서인줄

해저문 저녁  
포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  
예찰원동무 수고 많다고  
군에서 오는 지도원 인사는 하면서도  
어찌 알았으랴 농장의 당비서인줄

그래서 놀라며 손 잡으면  
농립모밀에 빙그레 웃는 그 얼굴  
때없이 어디서나 볼수 있더라  
때없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더라

우물공사장에서 옷웃을 벗고  
《힘차게, 더 힘차게!》 구령도 높아  
사람마다 웃으며 부르는 걸썩 《가래장부》  
모내기 들판에선 귀잡이도 숨쉴있게 박아  
누구나 자랑하는 《모내는 기계 운전공》

아, 사람도 그 한 사람  
직분도 하나이건만  
사시장철 온 농장벌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친근히 불리우는  
농장의 당비서

언제나 혁신의 기수로  
이끌어주더라  
마을의 농장원모두가  
나라의 쌀독 책임진 《농장의 참된 주인》  
당이 바라는 그 한 이름 지니도록!



## 높뛰는 숨결

양해

북방의 철의 도시 청진을 다녀가는 사람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 2 계단 확장공사장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그는 먼 후날까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터전을 잡아주시고 첫단계 공사로부터 2 계단 확장공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의 현지 교시와 수백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여 갈대만 설레이던 사봉농포 10 리벌에 현대적인 철강재생산지기가 짝 들어차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북방의 드넓은 철의 기지를 좌우로 갈라놓은 직두천의 흐름을 따라 우안기슭으로 한참 걸어나가다가 동해바다와 맞닿은곳에서 취재의 걸음을 멈춰세우기로 하였다.

직두천우안, 사봉농포벌에 펼쳐진 대압연기지를 강철의 산줄기에 비긴다면 그 높은 봉우리들속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찾아가면 거기 바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 2 계단 확장공사의 중요대상의 하나인 석회배소로 원료공급계통공사장이다.

석회배소계통의 많은 건물들중에서 주봉인 원료공급장의 맨 꼭대기를 쳐다만봐도 흰구름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어지럼증이 나는것 같지만 우리는 마음의 신들매를 다시 한번 든든히 매고 건설자들이 오르는 층계를 따라 높이 오르고 또 올라갔다.

강철건물의 맨우, 수십메터높이의 건물마감층에 올라서니 이미 오래전부터 조업의 현연기 몽게몽게 뿜어올리는 강철전로장의 배풍장굴뚝과 1, 2 호가 열로의 굴뚝들이 서로 키돋움하듯이 마주보였다. 눈길을 다시 낮추어 좀 낮은 건물들인 사별장과 랭각장, 중계사건물들을 차례로 둘러보느라니 원료공급장건물의 높이와 위치 그리고 그 건물을 주봉으로 다정한 형제들인양 이어져있는 원료공급계통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표상은 어느정도 석연해졌다.

우리는 이 대상을 맡은 건설사업소 현장지휘부로부터 쓰고있는 이동식 철집에서 기사장 장영진동무와 만났다.

40, 50 대 나이에 침착한 자세를 가진 일군, 기술자출신일군에게 특유한 사색질은 눈길, 드바쁜 정황을 여유작작하게 처리해나가는 그의 일본새는 첫눈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그칠줄 모르는 전화종소리와 무엇인가 다급한 정

황을 안고 찾아드는 지휘성원들... 잠시도 멈춤을 모르고 뚫어번지는 여기서 기사장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다는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바쁜 크고작은 모든 일들에 앞서 기사장 장영진동무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바쳐주었다.

《확장되는 철강재기지에서 원료계통은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대상입니다.》 하고 말하는 기사장의 비유는 적절한것이였다.

이 계통에서도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두개의 대형회전로였다.

우리는 철집을 나섰다.

원료공급장건물은 20~30 층 살림집높이에 그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는데 회전로는 그 아래 부분에 좌우로 길게 뻗어있었다.

이미 동체조립을 끝낸 회전로의 심내기에 여념이 없던 30 대의 기계조립공이 바로 1 기계 조립반장 윤인준동무였다.

얼마전에 그는 공훈건설자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을 받고 지금은 1 호회전로의 심축작업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것이였다.

요즘에 거둔 성과를 좀 말해달라는 우리의 부락에 윤인준동무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같에선 한몸이 열, 백이 되고 하루가 한달, 1 년으로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들뿐입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잠간사이에도 그는 일손을 놓지 못하고 측량기를 쥔 시공기사 김대석동무와 긴장한 눈길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의 몸에서 열정과 기백이 그대로 내뿜고있는것 같았다.

기계조립공으로 몸에 배인 듬직한 자세, 몇천분의 일 미리메터를 따지는 예리한 눈길, 고집이랄지, 탐구심이랄지 대상물속으로 금시 뚫고 들어갈것만 같은 표정... 그의 표정과 동작 그리고 숨결에서 우리는 그가 일에서는 그 누구와도 비길수 없는 《육심쟁이》이며 자기가 한번 결의한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실천하고야마는 《고집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알고보니 우리의 첫 인상은 들어맞았다. 1 호회전로의 동체 조립공정만 해도 지난날의 전례를 따르면 몇달, 아니 해를 넘기기도 하는 어려운 공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식의 시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회전로를 단 한달동안에 조립하였고 지금 그 다음공정까지 기적적으로 앞당겨가고있는것이였다.

윤인준동무와 설비조립공들이 하였고 또 해내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들을수록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것들이었다.

그가운데서 동체의 조립과정에 대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원래 모든 야금로들의 조립이 다 그러하지만 용광로나 전로들과 달리 아래우로가 아니라 옆으로 길게 누워 돌아가는 회전로의 경우 동체조립은 특히 까다롭고 힘겨운 공정으로 알려져있었다.

땅과 수직으로 솟아있는 다른 모든 야금로들의 경우에는 허용될수 있는 편차가 땅과 수평으로 되어 자체로 회전하면서 운영되는 회전로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작은 편차도 앞으로의 생산단계에서 두고두고 지장을 주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회전로동체의 조립시공안은 가장 심중하고도 기술적으로 높은 요구성이 제기되는 까다로운 공정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곳 금속공장건설사업소의 기술자들과 설비조립공들은 기존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기존공식은 회전로의 여러개 동체들을 두개의 기중기로 맞잡아 하나하나 가조립한 다음 수백립방미터의 목재로 가조립된 회전로를 떠받드는 가설공사를 한후 다시 처음부터 한토막 한토막을 용접으로 끊어놓고 힘내기를 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중기 한대만으로 일체 부대설비를 하지 않고 가조립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조립 하는 우리 식 시공안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처럼 어렵고 까다로운 힘내기 작업의 질을 담보할수 있는가? 이런 책임적인 물음 앞에서 가슴을 내던것은 이 시공안을 내놓은 시공기사 김대석동무나 작업반장 윤인준동무만이 아닌 여기 이 공정을 맡은 모든 기술자, 모든 일군, 모든 기계조립공들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건설장을 현지도하여 주셨을 때 건설자들이 받아안은 그 믿음, 그 사람이 그대로 우리 식 사고방식을 낳게하고 그 어떤 기적적인 목표도 한 가슴으로 막아나설 무비의 담을 안겨주었던것이다.

세상이 아직 모르던 이 대담한 우리 식 시공안이 성공되어 회전로동체는 몇달이 아니라 한달안에 그것도 술한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 완공되었는데 지금 그 힘내기의 마감공정이 끝나가고있는것이다.

알고보니 회전로의 거창한 동체의 여기저기에서 여러가지 측정계기와 스파나를 켜 기계조립공들이 긴장한 눈길로 윤인준반장과 김대석기사의 일손을 지켜보고있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총탄이 우박치는

적진을 향해 돌격구령을 기다리는 병사의 비장한 각오와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였다. 이윽고 측량기를 들여다보던 김대석기사가 한손을 쳐들어 마감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자 윤인준반장과 모든 기계조립공들이 일시에 환성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새 고지를 가릴한 전투끝에 점령한 병사들 만이 터뜨릴수 있는 보람과 긍지, 환희와 기쁨의 폭발이였다.

이 공정을 료해하는 과정에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된 우리의 마음 역시 그들과 함께 환성을 울리고싶었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였다. 다음순간 윤인준반장이 어느새 새 도면을 펴놓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 누구의 표정을 봐도 보다 새 전투를 앞둔 병사의 얼굴들에만 나타날수 있는 비장한 각오와 자신만만한 투지가 력력히 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한다는 크나큰 감격과 충성의 맹세가 여기 윤인준반장만이 아닌 모든 일군들, 모든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에 차넘치고 있거니 그들은 그 어떤 기적적인 성과에도 결코 만족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기적적인 성과가 너무나 평범한 건설장의 일과속에 소문없이 스쳐지나가고마는것만 같았다.

10 여년전 1 계단 공사때에만 하여도 이런 혁신, 이런 성과들이 얼마나 세상에 널리 소개되었던가.

나의 이런 마음을 윤인준반장에게 말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때보다 두배, 세배로 달려야 할 때지요. 그러니 이제 이런 일이야 보편적인것으로 되어야지요.》

그 단순한 대답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지난날 세상을 놀래우던 기적들이 오늘은 범상한것으로 되고 그 어떤 성과에도 만족을 모르는것이 바로 여기 이곳 건설자들의 사고방식이자 이 건설장의 기상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앞에 다진 이곳 건설자들의 충성의 결의가 얼마나 뜨거운 열도에서 또 높은 자원에서 실천되고있는가를 천백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해주고있는것이였다.

어찌 이들이 일하는 석회배소로 원료계통에서부터 이라. 얼마전에 조립한 3 호전로는 1 계단 공사때에 온 세상을 놀래운 1, 2 호 전로조립때의 시공법과 공사기일을 또다시 훨씬 룡가하는 기적적인 성과였다.

또한 얼마전에 조업한 5 호조리기건축과 설비조립, 전기자동화 공사과정들에서 지난날 기준량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들이 창조되었다.

허나 그전날 기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던  
이 모든 성과들이 오늘은 평범한 하나의 일과로 소  
문없이 스쳐지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사회주  
의의 완전승리와 제 3 차 7 개년계획이 우리앞에 펼  
쳐준 미래가 너무나 휘황한 래일로 다가오고있으니  
그 길로 줄달음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기상이

여기 북방의 철의 기지 건설자들의 몸과 마음, 일본  
새에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우리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 2 계단 확장공사  
의 하나의 대상건설장에서 온 건설장의 빛나는 래  
일을, 아니 온 나라의 휘황한 미래를 가슴 벅차게  
받아안으며 또다시 새로운 벅찬 생활이 기다리는  
새로운 취재지로 걸음을 옮겼다.

## 나는 왜 용해공이 되였는가

허린정

쇠물에 바친 아버지의 한생이  
내 마음 불렀던가  
자랑으로 불리우는 용해공- 그 이름이  
꿈많은 나를 불러  
불타는 로앞에 세워졌던가

반백의 오늘에도  
드팀없는 이 마음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랑스러울  
용해공이 된 이 마음  
언제부터이던가  
내 가슴속에 소리없이 찾아든것은

아마도 그날에 깃들었으리  
아직은 일학년생-  
철없던 나까지 불려왔히고  
재무지를 밟으시며  
수령님 첫새벽에 제철소에 오시였다고  
너선생이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던...

이 마음 정녕  
그날에 깃들었으리  
우리 수령님 또다시 찾아오시여  
긴긴밤을 구내에서 지새우시며  
제철소의 복구사업 몸소 지도하신다는  
아버지의 갈린 음성  
가슴 울렁이며 들던 그날에...

어느새 자랐던가  
하많은 유혹의 꿈을 밀어버리고  
나는 성큼 들어섰노라  
로동의 첫길-  
마음의 지침이 가리키는 그 한길에

내가 막아드리자  
쇠물을 보시는 수령님 영상 우러러  
로앞에 서리는 그 열풍을,  
그 유화앞에서  
내 철 없던 유년시절과  
영영 작별하지 않았던가

쇠물앞으로 왔다  
아버지의 갈린 음성 귀가에 들으며  
너선생의 물기어린 눈동자를 그려보며  
잠못들고 뒤척이던  
그 많은 밤들을 한가슴에 안은채

오, 쇠물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  
수령님 바라시는 그것임을 나는 알아  
이 가슴에 뜨거운 쇠물이 먼저 끓어  
쇠물앞에 나는 왔다

한마디로야 어찌 말할수 있으랴  
내가 왜 용해공이 되였는지  
하지만 말할수 있노라  
아이적부터 피처럼, 살처럼 내 몸에 배인것  
그것은 일생동안 꽃피울  
다시 없는 나의 삶이었다고

나는 쇠물을 터친다  
반백의 오늘에도  
드팀없는 이 마음  
쇠물로 끓여  
쇠물로 끓여

## 고향의 노래

정해경

분대장 대석이는 포연이 점차 가셔지는 전호둔덕에 뿌리박힌 돌처럼 굳어져 움직일줄 몰랐다.

전호를 수리하던 삽질소리도, 갯도로 들어가자고 부르던 중대원들의 목소리도 기억속에서 사라진, 언제인가 먼 일처럼 대석이에게 그 어떤 자극도 불러주지 못했다.

지금 대석이의 머리에 꽉 차서 출로를 찾는 용암처럼 끓고있는것은 전호앞까지 기여왔던 미국놈들을 모조리 썰갈기지 못한 후회와 격분, 분노였다.

총포탄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던 고지는 심연처럼 조용하였다.

고지의 나무등걸들을 그슬리며 구물거리는 검은 포연이며 뽕얇게 떠도는 흙먼지, 질식시킬듯한 화약내, 너저분한 파편조각들과 탄피들, 이런 전투의 스산한 흔적만 아니였던들 누가 방금전에 이 고지에서 한개중대의 병력이 놈들의 증강된 대대무력과 맞서 싸웠으랴싶게 정적이 흘렀다.

이런 감정을 더 짙게 해주는것이 저녁안개다. 밑에서 기쳐오르는 안개는 마치 입원실의 백포처럼 고지의 상처를 가리워주며 주위에 정숙을 선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아픔을 호소하는 눈빛과도 같이 명멸하는 불씨들은 여기저기에서 안개의 장막을 뚫고 튀여오르며 대석이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멀리 뒤쪽에서 담가에 실린 부상병들이 떠나고 있었다. 대석이는 이것을 눈으로가 아니라 부상병들을 달래는 간호원들의 애투한 목소리며 주고받는 전사들의 서로의 부탁에서 느낄수 있었다.

대석이는 주먹을 들어 허공을 가르며 전호둔덕을 내리쳤다. 골짜기밑으로 탕수처럼 빠져 달아나던 놈들을 뒤쫓아 가서라도 덜미를 걸어잡고 총박죽을 먹이지 못한것이 못내 가슴을 저미었다.

그제 있는 육박전투때 공병삽과 주먹으로 미국놈을 일곱놈이나 까부셨다. 하여 《돌주먹분대장》이란 이름이 붙은 대석인지라 밀려왔던놈들에게 모조리 죽음의 대답을 주지 못한 후회가 가슴에 돌덩이처럼 걸려 차마 전호에서 자리를 뜰수가 없었다.

《에익 개놈들, 어디 두고보자.》

대석이는 입안에 서걱거리는 돌부스러기들을 뱉어내며 거울진 몸을 전호우로 스적스적 움직이고 있었다.

묵직한것이 발길에 걸채웠다. 고지우는 흙으로가 아니라 철로 덮인듯 밟히는것은 파편조각들과 탄피

들뿐이었다. 하기가 벌써 나흘째나 놈들의 집중포화가 들썩워지고있고 또 그만큼 놈들에게 총탄을 날려보내기도 한 고지였다.

대석이는 밤길에 채운 파편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명이 붙어있는 미국놈의 상통처럼 보여 이가 부득 같렸다. 놈들이 쏘아보낸 대구경박격포탄 파편이었다. 눈에 보이는놈들보다 보이지 않는 대구경박격포가 중대앞에 더 위험했다.

놈들의 박격포탄만 아니였던들 고지가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되지는 않았을게고 뼈아픈 인명손실도 적게 내었을것이었다. 중대의 이름은 변함없으나 중대인원은 이 며칠사이 수태 줄어들었다.

대석이는 파편조각을 놈들의 시체가 걸레짝처럼 널려있는 고지아래로 힘껏 내던졌다. 잃은 전우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덩이가 푹푹 떨어졌다. 대석이는 언제든지 놈들의 포를 자기손으로 까부시고 야말리라 버르었다.

누가 전호수리를 채 못했는지 앞쪽 전호에서 삽질소리가 났다. 가까이 가보니 3 분대장 기선이와 입대한지 얼마안되는 신입대원 인길이가 앉은 걸음을 치며 부지런히 전호밑바닥을 파헤치고있었다.

《뭘하오?》

대석이는 어쩐지 기선이가 하는 일이 이상스러웠다.

《통소를 찾네.》

기선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석이는 뭔가 썩 늘한것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것만 같은게 공허한 생각이 들었다.

《뭘? 통소?》

《폭풍에 어디 묻혔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이 천구 통소는 제법인데 약기 관리는 락체란말이야.》

대석이는 입을 무겁게 다물었다.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얼마나 통소에 움혔으면 전호로 나오면서 갯도안에서 불던 통소를 들고 나왔으랴...

전사는 신대원이니까 그렇다치고 기선이가 화선 약기요, 통소합주요 하며 부산을 피우고 돌아가는 것이 눈에 거슬렸다.

대석이에게 있어서 노래는 전쟁과 인연이 먼, 평화시절의 아늑한 저녁에 통소를 붙어대던 우물집 할아버지의 표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어깨에 누런 줄을 석줄씩이나 달고있는 분대장이란 사람이 사선을 헤치고있는 고지에서 한

가스레 통소를 찾고있는것을 보니 기선이가 평화시절의 어느 고요한 저녁에 낚시질을 하러 지령이를 파고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전투원들은 차차 줄어들어 1인당 방어구역은 점점 넓어졌다. 놈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고지를 먹어보려고 런일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

전사들은 눈에 피발이 서서 팽팽한 긴장속에 전투구령만을 생각하고있었다. 전사들의 얼굴을 보면 전쟁의 무슨 구호판처럼 사격, 돌격, 이런 글발들이 너무도 력력히 새겨져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전쟁만을 생각하해도 생각이 모자라는 때에 총이나 수류탄같은 전사들의 무기가 아니라 통소를 찾고 있다는것이 꿈처럼 생각되었다.

《기선이, 총알이 눈섭에 불을 다는 때에 통소가 뭐야. 지금 언제 썬평종계 통소를 물고있을새가 있어? 고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걸 생각을 해야지.》

《차, 이거 언제는 노래가 좋다구 하구선...

저녁에 노래를 불러서 우리 경도안에 고향사람들을 한가득 불러오자는거네. 대석이 고향의 그 <통소할아버지>도 불러오자는거야. 백두산의 백학이 날아올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한 기선은 휘파람으로 《발같이 노래》를 휘휘 불어대며 보병삽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대석이는 통소바람에 고지에 무슨 사달이 날것만 같은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어깨에 석죽씨이나 단 분대장이 전사들에게 무기를 가르치고 전투를 가르칠 대신 통소를 들려가지고 쿵쾅거리다니...

기선이앞에서 통소를 찾고있는 인걸이라면 며칠전 전투때 파편에 모자채양이 달아난것도 모르고 전투보고를 하느라 귀박죽우에 손을 올려붙였는데 입귀가 굳어져 인차 말도 하지 못했던 신입전사이다. 싸움판의 호랑이로 키울 대신 그를 데리고 통소를 찾느라 극성을 부리고있으니 기가 막혔다.

《기선이, 제발 통소에 너무 미치지 말게. 전사들이 보는데서 그제 뭐가. 고지를 뭐 평화시절의 고향집 트락으로 생각하는게 아니야?》

대석이는 문득 저녁이면 기다란 통소를 휘저으며 마을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이던 《통소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말했다.

대석이는 기선이가 말 대상이 되지 않아 자리를 뜨고말려다 한마디 더 내쏘았다.

《여, 여기는 싸우는 고지이고 놈들은 총과 대포를 가지고 달려들고있네. 통소가 무슨 일을 치겠다고 그러냐?》

《그래두 이제 두고보라구. 싸움은 총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디 두고보세. 전승의 열병식때 뭘 메고 나가나. 통소를 메고 나가지야 않겠지?》

대석이는 이렇게 박아주고 전호를 훌쩍 뛰어넘어 경도로 들어왔다.

그런데 경도안 한쪽구석에서 자오록히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지 않는가? 연기나는곳으로 다가가 보니 불을 피워놓고 놈들의 총에서 빼낸 소제대를 달구어 나무에 구멍을 뚫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무릎에 끝을 납작하게 만든 소제대를 끼워놓고 기다란 나무대를 손바닥으로 굴러대고있었다.

《아니 뭇들을 하느라고 연기를 피우오?》

대석이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했다.

《통소를 만듭니다. 분대장동지도 한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전사가

《아니, 한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말을 수정했다.

대석이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다물고말았다.

이때 이들앞으로 중대장이 다가왔다.

대석이는 중대장의 출현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이제 군사규률에 엄격하고 요구성이 강한 중대장의 입에서 통소를 건어치우라는 불호령이 떨어질것이었다.

《?...》

대석이는 중대장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추궁이라기보다 통소를 들고 물어보는 그의 얼굴엔 그들을 대견히 여기는 빛이 석연히 어려있었던것이였다.

중대장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대석이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었던지 대석이의 어깨를 눌러 자기옆에 앉히는것 이였다.

《대석동무, 중대에 통소합주단을 한번 꾸려보자는거요. 난 기선동무 제기에 찬성했소. 예술이란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거든.》

중대장은 원수들에게 사격을 부르짖던 목소리같이 않게 마치 옛말의 서두를 때듯 그윽한 목소리로 말하며 통소를 불어대는 전사들을 둘러보는것이였다.

그의 목소리는 전투장의 경도안이 아니라 고향의 어디 잔디밭에 누워 구름이 떠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처럼 서정에 넘쳐 말했다.

《알고보니 기선동무 전쟁전에 광산에서 일할 때 썬쿨을 했더군.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러 산업건설에 이바지한 좋은 경력을 가지고있더라말이요. 이제 두고보오. 기선동무가 통소를 가지고 우리 중대

를 대대로, 련대로 만들지 않나.》

이렇게 말한 중대장은 잠시 동안을 두고 가슴속에 간수해 두었던것을 더듬는듯하더니 눈가에 그윽한 향수를 피워 올리며 입을 열었다.

《난 전쟁전에 우리 제철소구내의 야외가설무대에서 도립극장 배우가 불렀던 고향에 대한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소. 이제 통소소리가 은을 낼게요. 대석동무도 예술을 사랑하라우. 예술이란 참 숭고한거요. 싸움은 총만으로 하는게 아니거던.》

무슨 서정시를 읊듯이 감정을 실어 말한 중대장은 자리를 일더니 통소구멍을 뚫고있는 전사한테로 다가가는것이였다.

이때 기선이가 인길이를 앞세우고 입귀가 들썩해가지고 들어왔다.

《중대장동지, 인길동무 통소를 찾았습니다.》

기선이의 보고였다.

《저녁에 통소합주를 한바탕 올려보지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사들이 통소를 불어대면 죽을 꿈을 꾸던놈들이 질겁을 할게요.》

중대장의 말에 웅원이라도 하듯 인길이가 뒤통지리며 입김을 몰아 통소를 불고있었다.

대석이의 가슴은 다 탄 심지처럼 빠질빠질 타들었다. 이러다가 통소때문에 중대의 전투행동에서 무슨 일이 생길것만 같은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기선이는 대석이의 이런 마음에 든장질을 하듯 자기 둘레에 통소를 가진 전사들을 모아놓고 음색이 어떻소 박자가 어떻소 하면서 두팔을 흔들며 지휘를 하고있었다.

갱도밖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장이라면 갱도안은 무슨 명절전야처럼 쿙작거렸다.

통소를 입에 대고 기선이의 음악적 요구를 따르느라 열성을 내는 전사들의 거동을 보면 도무지 결사전을 치르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대석이는 자연 기선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석이가 기선이를 알게 된것은 49년도 가을 하사관훈련소에서였다. 그때 기선이는 악보를 들고 다니며 척척 새 노래를 배워주기도 하고 씨클을 지휘하기도 하여 인기가 대단했다.

농촌태생인 대석이는 오선지우에 콩나물대가리처럼 생긴 기호를 보며 노래를 불러대는 기선이를 신비롭게까지 생각했다.

하사관훈련소를 졸업한 이들은 한 중대에 배치되어 둘 다 분대장이 되였다.

대석이가 기선이와 더욱 가깝게 통성하게 된것은 중대생활을 시작해서 며칠후였다. 알고보니 기선이는 입대전에 어느 광산에서 일하면서 도씨클 경연에까지 참가한, 예술에 조예가 깊은 친구였다.

《전쟁이 아니였다라면 어느 극장의 인기 있는 배우가 될걸 그랬군.》

《아닐세. 일하면서 로동생활을 노래하고싶었네. 말하자면 로동자작곡가쯤 꿈꾸었겠지.》

《여 그 꿈을 살려보라우. 나같이 큰대자에 돌석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저녁에 소잔등에 꼴집을 엮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한곡조 뽑고싶더란말이야.》

이런 일은 다 전쟁전에 있던 일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노래를 놓기 아수해하는 기선이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이 얼마나 후회막심한지 몰랐다.

차마 기선이가 총포탄이 불꽃튀는 고지에까지 와서 통소를 펼쳐놓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것이 다.

대석이는 생각하였다. 기선이가 통소바람을 불어넣고있는 인길이를 쇠소리나는 모범전투원으로 키워 전사는 조국앞에 무비의 용감성으로 자기임무를 다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리라고.

×

기다리던 때가 왔다. 중대의 전투행동에 저애를 주는놈들의 대구경박격포를 까부실 습격전투 임무가 나선것이다.

대석이를 습격조장으로 임명한 중대장은 대석이의 요구대로 습격조원들을 선발할 권한을 주었다.

대석이는 세명의 구대원을 선출하고자해서 마지막으로 인길이를 뽑았다. 구대원들은 난다편다하는 전투원들을 제쳐놓고 인길이를 뽑는데 의문을 표시했다. 대석이는 이번 습격전투를 통해 인길이에게 전사의 근본을 실제행동으로 가르쳐주고싶었다.

기선이는 자기가 뽑히기라도 한것처럼 기뻐했다. 통소를 함께 불어대던 전사들은 인길이를 부러워하며 고무의 말들을 해주고있었다.

중대장은 말했다.

《인길전사를 잘 도와주오. 난 기선동무를 통해 인길이가 열아홉살이 아니라 열여섯살이라는것을 알았소. 인길이 배낭밑에서 중학교 3학년 국어학습장을 발견했는데 그 책갈피에 <고향>이란 숙제답안지가 있었소. 화선음악가가 잘 싸울게요.》

고향이란 말에 대석이는 코언저리가 시큰해났다.

고향과 조국앞에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투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온것이였다.

《인길이 잘 싸우라우. 통소는 내가 보관했다 주겠소. 돌아와 멋지게 백두의 백학을 불려보잔말이야.》

고지 마지막코숭이까지 따라온 기선이가 인길이에 힘피에 자기 수류탄을 끼워주며 하는 말이였다.

《대석이, <돌주먹분대장>의 본패를 보여주라우.

우리 화선음악가를 부탁하네.》

기선은 어딘가 부러운 눈매로 대석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돌출부고지를 내린 대석이는 습격조원들을 자기 곁에 바짝 붙여가지고 야음을 리용하여 골짜기를 빠져 놈들의 화력이 덜 미치는 츠렁바위 기슭에 다가 붙었다.

바위를 넘어서면 놈들의 박격포진지가 고대였다.

칼날같이 번뜩이는 탐조등불빛, 뿔뿔거리는 놈들의 지껄임, 뛰어다니는 구두발소리, 두서없이 울리는 총소리, 놈들은 경비를 증강해 놓고도 겁에 질려 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대석이는 츠렁바위의 돌뿌리들을 리용하여 바위를 뚫아올라 나무밑 등에 바줄을 잡아매고 바줄을 아래로 던졌다.

습격조원들은 바줄을 타고 순식간에 바위우로 올라갔다.

대석이는 수첩을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불빛을 리용하여 놈들의 포진지, 병실, 수송기재보관고, 탄약고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대석이는 돌아갈 때를 예견하여 바줄을 나무밑에 사려놓고 거미줄처럼 얼른거리는 철조망밑으로 기어나갔다.

철조망을 빠져서 놈들의 보초를 감쪽같이 해치운 다음 꺼먼 방수포들을 쓰고있는 박격포진지로 접근해갔다.

박격포마다에 썩은 나무등걸이처럼 쭈그리고앉아 잠에 푹아떨어진 놈들이 보였다. (개놈들, 어디 맛을 좀 보아라.) 대석이는 급해나는 마음을 억제하며 옆을 바라보았다.

대석이 곁에 바짝 다가붙은 인길이가 눈이 초롱초롱해서 랑손에 반전차수류탄을 빼들고 대석이 구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길이가 제법 인걸. 이제 돌아가면 화선악단 단장 <이 순간 기선을 이렇게 부르고 싶었다>에게 인길이가 포잡은 이야기를 하게 될걸. 그때 인길이가 통소나 불 사람이 아니라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것을 말해줘야지.》

대석이는 매개 조원들에게 습격분담을 주고 뛰쳐 일어나 포진지로 화살처럼 달려갔다. 중심구역으로 뚫고 들어간 대석이는 움두꺼비처럼 틀고앉은 놈들의 포신밑에 수류탄을 집어던졌다.

대석이가 던진 수류탄의 작렬과 때를 같이하여 좌우앞뒤에서 화광이 증천하면서 폭음이 일었다. 불빛에 놈들의 포가 물먹은 토담처럼 나가넘어지는 것이 보였다.

포열에 쭈그리고앉아 푹아떨어진 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총을 란사했다. 여기저기서 호각소

리며 총성이 급하게 울리고 싸찌라이트불빛들이 포진지로 쏘렸다.

대석이는 인길이쪽으로 달려가 아직 틀고앉아있는 포를 제겼다.

《분대장동지!》

이때 인길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금속성처럼 쟁쟁히 울렸다. 인길이는 자기가 잡아야 할 포를 대석이가 잡은 것이 미안한지 아니면 섭섭한지 방금 엉망이 된 포진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내뒤편 따를것!》

대석이는 철수구령을 내리고 츠렁바위쪽으로 달려갔다. 습격조원들이 어느새 대석이의 뒤편을 따르고 있었다.

대석이는 환희로운 감정이 술기운처럼 전선에 퍼지는 것을 어찌는 수 없었다.

《분대장동지 날쌔던데요. 펄펄 날더군요 참!》

인길이가 전투의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대석이 앞에 찬사를 쏟아놓았다.

아직 철이 없고 햇풀처럼 아련한 줄로만 알았던 인길이가 그간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포잡는 솜씨가 괜치 않았다. 파편에 모자채양이 달아난 것도 모르고 파랑게 질려 전투보고를 했던 전사같지 않았다.

이제 돌아가면 아예 통소같은 《놀이감》을 쉼버리게 하고 모범전투원으로, 영웅으로 키우리라 생각했다.

대석이 습격조가 놈들의 포진지를 벗어나 츠렁바위우로 다가가고 있을 때 바로 눈앞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놈들이 쳐 놓은 매복에 걸린 것이었다.

놈들의 싸찌라이트불빛이 일시에 대석이네쪽으로 초점을 모았다. 위기일탈의 순간이었다.

《인길이, 중대에서 만나자구.》

대석이는 함께 남겠다고 저마다 나서는 습격조원들에게 퇴각을 명령하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인길이에게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놈들에게 따바리를 휘둘러대며 츠렁바위옆으로 놈들을 끌어 내었다.

대석이는 습격조원들이 나무밑에서 바줄을 찾아 밑으로 던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전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놈들이 츠렁바위쪽으로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야 했다.

대석이는 놈들이 자기한테서 떨어질까봐 자신을 로출시키느라 연신 점발사격을 하며 옆으로 유인하였다.

향방없이 던지는 적들의 수류탄이 대석이의 앞뒤에서 터지면서 무성한 풀대들을 쓸어눕혔다. 전투에서 무서운 것이 수류탄이다. 조성조문에 의한 조준이 없이 파편들이 제갈대로 달아나며 미움을 부리는 것이어서 몸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대석이는 될수록 교전을 피하며 몸을 빼느라 신경을 썼다. 얼마쯤 따라와 대석이의 뒤를 놓친 놈들이 액액거리며 갈광질광거리고있었다.

대석이는 츤렁바위를 멀리 벗어나 산굽이를 끼고 돌고있었다. 이때 눈앞에서 작곤 하고 불기둥이 일었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아찔했다. 얼굴에 무엇이 사정없이 휘뿌려졌다. 몇놈이 앞질러 달려 온 모양이었다.

대석이는 본능적으로 수류탄을 뽑아 던지고 총신을 휘둘러댔다. 그리고는 수풀을 헤치며 중대를 향하여 뛰고 또 뛰었다.

놈들의 총소리가 멀리 뒤에서 울렸다. 이제는 놈들의 목표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생기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습격조가 무사히 빠졌을가? 인질이는 꼭 돌아갈거야. 아, 그런데 내 발이 왜 이럴까?)

갑자기 걸음이 허청허청해지면서 온몸이 무력상태에 빠지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동무들이 나를 기다릴텐데 무엇이 발을 자꾸 밀로 잡아당길까.》

대석이는 이름모를 산중턱의 풀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석이는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었다.

대석이의 육체적 기능은 더이상 대석이를 지켜줄 힘이 없었던지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몽롱해지는 의식, 눈앞에 아롱거리는 노란 동심원...

노란 원주는 점차 넓어지며 희미해지더니 대석이의 가느다란 의식마저 흐려졌다. 눈앞에 짝 차드는 안개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다시 희미하게 떠도는 가느다란 노란 원주, 차거운 아침대기, 너무나도 고요한 정적, 마주한 높은 하늘... (내가 왜 여기에 있을가. 여기가 어딜까. <둘주먹분대장>이 여기에 누워있다니... 가야 한다. 가구말구.)

대석이는 지못게 달라붙는 어지러운 환영들을 털어버리려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무엇이든 잡히는것을 쥐고 몸을 끌었다. 그러기를 그 몇번...

눈앞에 무지개빛 반점들이 무수히 가물거렸다. 대석이는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땅속깊은 나락에서 끌어당기는것만 같았다.

대석이는 더이상 몸을 움직일수 없었다. 대석이는 마지막 힘을 모아 총을 당겨 품에 꼭 안았다. 돌배처럼 익은 별들이 무수히 열린 하늘, 그 별들은 새물새물 웃기도 하고 잠에 취한 어린애들의 눈동자처럼 깜빡거리기도 하며 대석이를 근심스럽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별무리속에 기선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

굴은 물결에 실린듯 출렁거리며 한발이나 길어졌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떠오르며 습박곡질을 했다.

통소를 만드느라 연기를 피우던 전사들의 모습이 스케치하여 놓은 그림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내가 왜 기선이한테 지청구를 했을가. 통소가 뭐라고 참... 전쟁판에서 친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다니...)

남시줄의 동맹이처럼 깜빡거리는 별속에 이번에는 중대장의 얼굴이 비치었다. 총이 센 눈썹, 눈썹 위에 쇠장대를 올려놓아도 끄떡없다던 중대장, 보기엔 강파롭게 생겼어도 속내깊고 인정한 중대장이었다.

흐려가는 의식은 대석이에게 희미한 생각마저 더 이상 불러주지 않았다. 수풀이 무성한 이름모를 고지중턱에 쓰러진 대석이를 그냥 둔채...

눈앞에 잔잔한 물결이 주절거리며 흐른다... 아, 그것은 여름이면 정쟁이를 건어붙이고 반두로 고기잡이를 하던 물벼룩 우거진 개울가, 미역을 감다가는 따끈한 돌우에 배를 지지며 귀에 든 물을 빼던 두부바위, 겨울이면 팽이를 치고 썰매를 타던 곳, 그것은 고향이었다. 아, 고향, 정든 내 고향!

은은한 발품금소리 들으며 고무공을 하늘높이 띄워 올리던 백양나무 둘러선 학교운동장, 까만 칠판에 우리 고향이란 글자를 써놓고 어린 가슴에 조국이라는 뜻을 새겨주던 선생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타고 고향마을이 펼쳐졌다.

발같이하는 소를 따라 버들피리 불며 뛰어다니던 기름진 땅, 습박곡질과 군사놀이로 밤가는줄 모르던 마을뒤동산 밤나무숲, 그 시절에 얼마나 꿈이 많았던가. 주머니가 볼록하게 콩을 담아넣고 나와 노나먹으며 모기쑥불냄새 구수한 트랙의 멍석우에서 할아버지에게 옛말을 조르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절의 소꿉놀이 친구들, 마을 어른들이 그리웠다.

동구앞 들메나무밑에서 대석이를 전신으로 바래우던 어머니의 정다운 손길, 네가 좋아하는 수수무살미를 싸왔다고 대석이의 품에 뜨끈한것을 안겨주며 못내 뜨거운것을 웃고름에 찍던 어머니, 아, 그 어머니가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대석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

《어머니-!》

대석이의 심장이 박동쳤다. 정다운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 손을 내밀었으나 잡아주는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보고싶었다. 대석이는 슬며시 눈을 떴다.

새벽이슬에 젖은 별들이 은하수에 실려 어디론가 소리없이 흐른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흔들며 들



려오는 소리...

그 소리는 어딘가 멀리 하늘가에서, 땅속깊은 나락에서 울려오는듯 이으락그치락하며 대석이의 몸을 어루만진다.

《통소할아버지-!》

대석이는 소리쳤다. 그러나 목이 꽉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통소할아버지》둘레에 모여앉은 마을사람들의 얼굴이 달빛에 어련듯 희미하게 떠올랐다.

대석이는 자기가 꿈을 꾸다고 생각했다.

통소소리는 이으락그치락하며 샘줄기처럼 대석이의 뇌리에 흘러들었다.

고향이 그리웠다. 아들이 온다고 동구밖으로 달려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대석이는 손을 내밀었다. 이슬에 젖은 축축한 풀이 손길에 맞혔다.

대석이는 눈을 떴다. 자기가 살았다는것을 도무지 믿을수 없었다.

허를 꼭 깨물어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대석이의 뇌리속으로 또다시 울려오는 통소소리... 대석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었다. 분명 중대쪽에서 울려오는 통소소리였다.

통소소리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이 정답게 고향의 저녁안개와도 같이 부드럽게 대석이의 몸을 어루만져주었다. 그 소리는 《발갈이 노래》였다.

대석이의 눈확에 이슬이 함함히 고여올랐다. 생을 되찾은 희열, 다시 싸울수 있다는 기쁨,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 눈귀에서 떨어졌다.

꿈속에서처럼 고향을 불러주고 어머니를 불러준 것이 저 소리, 고지에서 울려오는 《발갈이 노래》였다. 그 소리는 꺼져들었던 대석이의 숨결을, 생의 불길을 다시 지펴주었다.

중대전우들이 그리웠다. 중대장한테 한시바빠 인 길이가 포잡은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통소소리는 점점 더 크게 의식속으로, 혈관속으로 배여들었다. 대석이는 그 통소소리가 어쩐지 중대장의 목소리처럼 기선이며 중대전우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아니 그 통소소리에 어머니의 부름도 동생들의 목소리도 함께 울려왔다. 그 소리는 자기 몸에 미쳐온 고향의 손길, 중대의 목소리였다.

맥박이 꿈틀거리고 가슴이 진동했다.

(기선이 돌아갈게. 통소소리를 들으며 내 중대로 돌아갈게.)

대석이는 머리로 손을 내밀었다. 애슬그루가 잡히었다. 대석이는 그것을 꼭 잡아쥐고 몸을 당겼

다. 차거운 이슬이 얼굴에 끼었어졌다. 몸이 앞으로 미끄러져나갔다.

땅에 매운듯 그렇게도 무겁고 둔하던 몸이 앞으로 움직였다. 싸우고싶은 힘이 생겼다. 한치, 또 한치, 통소소리에 끌리워 중대를 향하여 전진했다.

(기선이, 좀 더 크게, 그렇지. 내 지금 통소소리를 들으며 가고있어.)

대석이는 기고 또 기었다. 고향에서 뻗쳐온 보이지 않은 힘이 그를 이끌어주고있었다.

고향, 중대, 아, 이것을 놓고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었다.

잠시라도 통소소리가 바람에 날리면 그것이 영영 끊어질가봐 가슴을 조이며 귀를 강구었다.

대석이는 한치 또 한치 통소소리에 끌리어 중대로 가고있었다...

대석이가 정신을 차린것은 중대깡도에서였다.

《대석이!》

《분대장동지!》

기선이, 중대장, 인길이, 그리운 목소리가 대번에 대석이의 몸을 감쌌다. 아! 정다운 얼굴들, 중대전우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습격나갔던 전우들의 눈귀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중대장동지가 분대장동지를 찾으러 떠나면서 <돌주먹분대장>은 죽지 않는다고, 꼭 살아온다고 했습니다. 기선분대장은 떠나면서 우리보고 통소를 불라고, 그러면 대석분대장동지가 살아올게라고 했습니다.》

대석이는 기선이를 찾았다. 그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눈구석에서 뜨거운 땀이 솟구쳐올랐다.

대석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크낙한것을 담아 이렇게 속삭였다.

(기선이, 난 전쟁에서 큰것을 배웠네. 자기를 낳아주고 첫걸음마를 떼여주고 조국의 첫 모습을 익혀준 고향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어머니처럼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며 마음속에 함께 있는것이 고향이었네. 고향은 전사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줄걸세.)

대석이의 눈앞에는 다시금 고향마을의 전경이 펼쳐졌다. 밤나무술 우거진 뒤동산이며 잔디푸른 개울가며 nim실거리는 전야며 아들들을 기다려줄 마을 어른들이며...

대석의 가슴속에서 정답고 귀중한 고향의 노래가 은은하게 흐르고있었다.

##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

양해모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난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생활이 나에게 준 첫 책벌이었으니까요…》

××금속공장건설사업소 제관조립 직장장 박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오랜 직장장으로서 직장계획을 못해본적이 없고 사람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받고있는 그에게 과연 생활이 어떤 책벌을 줄수 있었단말인가.

땅거미가 들기 시작한 직장장실 뒤창밖으로 한그루의 백양나무가 건설장의 눈부신 용접광들을 막아주며 풍만한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박진구직장장은 그 백양나무로부터 지난날의 그 어떤 추억을 불러오는듯 하염없는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그 눈길이 미치는곳에서 금방 그 어떤 화폭이 펼쳐지는것 같았다.

## (1)

…똑똑, 똑.

문기척소리에 박진구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문이 열리더니 연공반원 유찬명이 들어서는데있었다. 밖에선 보슬비가 내리는지 유찬명의 체소한 몸은 후줄근히 젖어 더구나 작아보였다.

크지 않은 키에 수수한 얼굴, 특징이라면 눈이 크고 선량해보여서 어디서 본것 같은 생각이 들게하는 50대의 연공이었다.

《…저를 불렀습니까?》

유찬명은 자기 옷주체를 몹시 민망해하며 어줍게 물었다. 그리고는 박진구가 권하는 의자에 앉아서도 말없이 박진구의 눈치를 살피는것 같았다.

《유동무도 이제 늙는구만요.》

박진구는 측은한 눈길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유찬명에게 해야 할 자기의 말이 본인의 공감을 받으리라고 믿어온 박진구였지만 어째서인지 불안을 느꼈다.

《유동무, 이제 연공일이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박진구는 잔주름이 가기 시작한 유찬명의 선량한 눈언저리를 새삼스레 눈여겨보며 은근하게 되물었다.

《뭐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유찬명이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하는 대답이었다. 역시 박진구가 예견했던 대답이었다.

박진구는 유찬명의 곁으로 의자 한개를 옮겨놓고 가까이 다가왔다.

《유동무, 우리 직장에 와서 오래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몸에 맞는 다른 일로 옮겨볼 생각은 없소?》

《…?》

박진구의 질문이 너무 의외의 일이어서인지 아니면 생각할 여유를 두는것인지 유찬명은 잠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박진구는 계속하여 사업소에 새로 조직된 주택건설직장에서 로력한명을 요구한다는것, 그래서 아무래도 연공일이 힘에 부친것 같은 유찬명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보내려 한다는것, 등 직장의 취지를 다 말했다. 그러나 만사 사람을 위하여 다 좋게만 해주고싶어하는듯한 유찬명의 유순한 눈길만 보고는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박진구를 초조하게 했다. 유찬명에 대한 처사가 직장을 위해서나 본인자신을 위해서나 다같이 유익한 일이라고 타산한 자기의 생각에 빈틈이 없기를 바라는 박진구였다.

《유동무, 그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진구는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유찬명의 입이 선선히 열렸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진구는 자기가 바라던 대답이었던만 유찬명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고보니 마음이 가벼워질 대신 더 불안해지는것이 이상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갈마드는 이 불안의 원인을 단순하게 해석해버리고말았다.

함께 일할 때에는 별치 않던 사이의 사람일지라도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아쉽고 서운한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일진대 유찬명으로 말하면 직장에 있어도 아직은 누구의 짐으로 된적은 없고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도 아니었던만 인간으로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인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니 그를 떠내보내야 하는 직장장의 마음이 어찌 허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납득시키면서도 박진구는 유찬명에게 무엇인가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고는 자기 마음을 달랠수 없었다.

《유동무, 사실 동무의 나이가 그리 많은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두해 지나갈수록 힘내기로 해야 하는 연공이야 더 힘에 부치게 될게 아닙니까?》

이렇게 허두를 뻔 박진구는 이제 주택건설장에 가서 있을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며 늘어놓았으나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조차 개운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지는것

을 어쩔수 없었다.

박진구의 말에 비긴 불안한 음조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유찬명 역시 착잡한 생각이 비긴 눈길로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있었다.

《...?》

박진구는 유찬명의 눈길을 따라 직장장실 창문너머로 얼굴을 돌렸다.

어둠은 어느새 건설장을 콕 덮어버렸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용접광들이 창문앞에 홀로 서있는 백양나무의 앙상한 자태를 얼핏얼핏 드러냈다.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그 누가 옮겨 왔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와 여기에 뿌리를 내렸는지 누구도 여겨보지 않는 사이에 거목이 된 백양나무, 잎이 푸르른 계절은 다 지나고 마가울 찬바람에 누런잎새마저 다 날려버린 백양나무의 자태가 이 순간 더없는 련민의 정을 자아냈다.

생각은 백양나무로부터 유찬명에게로 되돌아왔다.

《직장장동무, 내 문제를 가지구는 조금두 넘려마시우. 이제 내가 가야 할 주택건설장에는 직장장동무나 분초급당비서랑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라우》

《아니 그 동무들과 아는 사이란말입니까 ?》

박진구는 유찬명의 말이 내심으로 몹시 반가웠으나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다.

유찬명이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구 내 젊었을 때 미장일을 좀 해본일이 있었지요. 그게 거기 가면 써먹을수 있을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말하는 유찬명의 얼굴엔 천진한 표정이 떠돌았는데 그 억양, 그 표정을 보고서야 박진구의 마음속에 무겁게 앉았던 불안이 좀 가시여지는것 같았다.

박진구는 유찬명을 보내는것이 직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한것이였다는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찬명을 위해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싶었다.

《유찬명동무, 주택건설직장에 사람이 요구되교 또 동무자신을 위해서도 보내기는 하지만 만일 그곳에 가서 지금 생각과 달리 조금이라도 불편한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되돌아오시오. 우린 아무때나 유동무를 받아줄것이며 동무의 체질에 맞는 일을 찾아줄것ियो.》

박진구는 유찬명이 그 어떤 불편을 못이겨 되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장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유찬명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누리고 싶었던것이다.

## (2)

며칠후, 퇴근시간이 펍 지난 저녁에 손기척도 없

이 직장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직장이 닫은 새 대상 도면들에 정신을 쏟고있던 박진구는 얼굴을 쳐들지 않고도 들어온 사람이 연공반장 김형진이라는것을 알았다. 이제 김형진은 늘 하는 습관대로 의자 한개를 직장장의 책상맡은 편에 옮겨놓고 그 장대한 몸을 《광》 소리나게 앉을것이였다. 그리고는 《직장장동지, 우리 작업반은 남의 뒤처리나 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라고 웨치거나 아니면 《직장장동지, 이거야 어디 해먹겠습니까.》 하고는 붓초리같이 일어난 눈섭을 부르르 떨며 박진구를 마주볼것이였다.

하지만 얼마후에는 박진구의 여유작작한 태도에 어린애처럼 수그러들고는 멧적은듯이 머리를 굽적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설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만은 아무말없이 출입문곁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박진구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눈길을 땅우에 떨어버렸다.

박진구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형진을 눈여겨보았다.

형진의 철색얼굴엔 전에없이 심각한 고민이 실렸는데 박진구에게 무엇인가 말할듯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

박진구는 보던 도면들을 훌 밀어버리고 형진을 주시했다.

김형진은 모든 사색과 행동이 굳어버린듯 초점이 분명치 않은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며 조각상처럼 한모양을 하고있었다.

《여, 형진이, 왜 그래 ?》

박진구가 말을 건니자 형진은 마비상태에서 풀려난듯 눈길에 초점이 분명해졌는데 그 순간 짜증인지 웃음인지 분간 못할 그 어떤 표정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쩔수 없는 그 어떤 고민에 쫓기우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반장동무! 형진이!》

박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불렀다.

형진이 주춤 서자 박진구는 그를 붙잡아 자기책상 맞은편에 주저앉혔다.

《직장장동지, 유찬명아바이를 꼭 보내야만 합니까?》

어두운데 흥두께내미는격으로 형진이가 묻는 말이었다.

형진의 입에서 예상외로 유찬명의 이름이 나오자 박진구는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며칠전 유찬명과 단둘이 나누던 대화를 돌이켜보며 박진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김형진은 박진구를 점도록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거야 본인을 위해서도 리로운게 아니요 ?》

박진구의 물음에 형진은 대답없이 눈을 감았다.

형진의 기분상태를 청우계처럼 먼저 말해주는 북소리같은 눈썹이 제자리에 곱게 누워있었는데 이것은 평시에 우락부락 해보이는 형진의 철색얼굴을 더없이 순진하고 선량하게 만들었다.

잠시후 형진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왜그런지 그 아바이를 아주 보낸다고 생각하니 일손이 잡히질 않는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반원들두 모두 허전해하구...》

박진구는 형진의 눈가에 물기가 핑그르 어린것을 보았다.

《...?》

박진구는 당황했다.

며칠전 연공작업반원명단을 놓고 한사람한사람을 따져보던 때의 일이 되살아왔다.

...누구를 보낼것인가? 우에서 요구는 책임성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찍어졌지만 박진구는 직장장의 립장에서 한명한명을 따져보았다.

(최상준... 그는 연공반의 최고기능공이다... 박윤진... 좀 뽀이 사납기는 하지만 철덩이를 엇가락 다루듯하는 제관공이 아닌가... 공장대학생 하섭이... 기발한 착상과 창안, 발명의 주인공, 그가 없이는 연공반의 성과를 생각할수 있으랴...)

이렇게 그의 머리에 떠오른 때 사람은 자기나름의 장기와 무게를 가지고있었다. 심지어 직장에 온지 얼마 안되는 염돌이마저 날과람있는 고공작업으로 박진구의 관심을 끌었다.

박진구의 눈길은 어차피 유찬명의 이름우에서 벗어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유찬명은 말썽이 없는 사람이라는 가장 범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뿐이었다.

《반장동무, 유찬명이 작업반에서 손꼽히는 높은 기능공이야 아니지 않소?》

박진구는 확신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글쎄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두... 할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형진의 두어깨는 폭 처저내렸다. 그리고는 도간을 두고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반원들이 너무들 섭섭해하는걸 보니 내가 일을 저지른것만 같아서...》

김형진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잠시 서성거리더니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박진구의 눈길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려는듯 뺨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리는것이였다.

쿵, 쿵, 쿵! 복도바닥을 울리는 김형진의 발자국소리가 박진구의 가슴에 야릇한 여운을 주며 점점 멀어져갔다. 그 소리가 아주 사라져 버렸을 때 박진구는 갑자기 허탈이 오는것을 느꼈다.

(유찬명... 유찬명...)

몽롱한 안개속에서 멀리 서있는 체소한 모습이

환영처럼 마음속에 맴돌아친다. 지난 추억의 그 안개를 헤치고 또 헤쳐보아도 어째서인지 유찬명에 대한 표상은 짙은 안개속에 있을뿐이였다.

그 짙은 안개속에서 겨우 하나의 표상을 들추어냈다.

...해마다 한번 작업반별 썬클경연이 있는 2월 16일에 손풍금을 메고 무대에 나서던 유찬명, 언제 어떤 연고로 그가 손풍금을 배웠는지?... 그보다 썩 높은 수준의 손풍금수들이 직장에만도 수두룩하지만 연공반원들이 늘 새 노래를 먼저 부르는것은 아마도 유찬명의 노력일것이었다.

그러나... 김형진이나 연공반원들이 그리도 서운해 할 정도로 유찬명이 여기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갈마들기 시작한 불안한 마음에 대한 위안으로 되기도 했고 그가 동정한 한 인간을 위해서는 괴로운 일이기도 했다.

박진구는 건설장에서도 《심장부》를 막아나선다고 하는 제관조립직장을 책임지고 그 어떤 큰일도 자신있게 처리하여 후회할줄 모르는 사람이였지만 이날만은 유찬명에 대한 자신의 처사를 두고 다시 곱씹어 생각하느라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3)

이른아침, 마가을 날씨치고는 무근하고 청명한 날이였다.

박진구는 직장이 새로 진출한 석회배소로 구역으로 바뀐 걸음을 옮겼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갈대만 설레이던 바다기슭에 산악같은 기초구조물들이 뿌리를 박았는데 그우로 소소리높은 강철기둥들이 밀림처럼 들어찬 현장은 용접불꽃과 쇠소리, 기계동음과 호각소리, 때때로 사람들의 웨침소리로 잠시도 안정을 몰랐다.

박진구는 현장과 좀 떨어진 바다쪽으로 부지런히 걸었다. 맨 선참으로 나가있는 연공작업반 휴계실에 그쪽에 있었다.

연공반휴계실- 이동식 철집안은 조용했다. 낮고 대인원은 아직 출근전이고 새벽교대성원들은 휴계실에 와당을 시간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런데 박진구는 휴계실연통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누가 벌써 나왔을까?)

유리창을 통하여 휴계실안을 들여다보니 인적이 없다. 그런데 휴계실옆에 붙여지는 이동식 창고에서 난데없는 톱질소리가 났다.

박진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고문앞으로 다가서는데 톱질소리가 멎더니 《누군지 빨리 좀... 오시오!》 하는 숨가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구는 창고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어둡시그레한 창고안에서 누군가 《여기... 여기

로… 빨리…》하고 점점 더 바쁜소리를 쳤다.

가까이 가보니 천정이 닿게 쌓아나오던 토막나무들이 무너져내리는것을 누군가 몸으로 간신히 막아 서고있었다.

두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토막나무들을 바로 잡아놓는 사이에 어둠에 익숙해진 박진구의 눈에 모 든것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러자 땀과 톱밥으로 얼룩진 유찬명의 얼굴이 박진구를 어둡게 마주보고있 었다.

《직장장동문걸 난 또… 우리 동무들인가 했군 요.》

이렇게 말하는 유찬명의 손에는 손톱이 들러있었 는데 녹한점 까지 않고 번쩍이는것이 이날따라 박진구의 주의를 끌었다.

며칠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창고에 절반나마 차 있는 나무토막들… 박진구는 문득 며칠전 일을 끝 내고 들어올 때 유찬명이 진창길에서 찢기고 이즈러진 나무토막을 힘겹게 끌어내는것을 본 생각이 났다.

그때는 길에서 썩는것이 아까와 집에 화목으로라도 보탬하려는가 하고 무심히 스쳐지났는데 지금에 와보니 그 나무들이 여기에 토막으로 찢리워 쌓여진것이었다.

《!》

박진구는 가슴이 후터워져서 그 나무무지에 다시 눈길을 보냈다.

이제 보니 한 길으로 토막쳐 무져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는 건설장의 모래감탕에 묻혔던 자리와 중기 계들의 무한게도 바퀴에 짓뭇여진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박진구의 기억속에 눈보라 사납던 어느 겨울날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른아침 출근길을 걷던 박진구는 후끈한 온기가 그리워 연공반 휴계실로부터 들어갔다. 언제봐야 맨 먼저 불이 지펴져있는 휴계실이였기때문 이였다.

그런데 늘 직장적으로 먼저 피어오르던 그 난로 불이 그날따라 싸늘한채 있었던것이다.

한 젊은 연공이 재먼지와 연기를 몹시 피우며 《에이참, 유아바이는 왜 이런 날 대휴를 놀면서 남의 고생을 시킨담.》하고 룡담으로 불평을 터뜨리 던 일이 생각한다.

박진구는 그때 《매일 난로불 피우는 사람이 따로 정해있는가.》 하며 그녀석의 뒤더수기를 한대 먹여 댔었다. 그런데 그 비위좋은 녀석은 대답하기를 난로불을 피우는 《기능》에서 유찬명을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는것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유찬명은 하루도 한달도, 한해 만도 아닌 긴긴 나날 겨울마다 이른아침에 난로불을 스스로 말아 피워온것이였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물론 난로를 피우는 일은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눈에 습관될 정도로 매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놀래운 런속조리빋트의 침강이나 전로동체의 조립같은 큰일 못지 않게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 누구나가 다는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젠 됐수다. 수고했습니다.》

유찬명이 오히려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에야 박진구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 유찬명의 어진 얼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유찬명아바이!》

어째서인지 박진구는 저도 모르게 《동무》가 아니라 《아바이》라 불렀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고 또 느끼지조차 못했다.

박진구는 유찬명에게 대답할 여유를 주지 않고 투박하고도 곧은 평시의 말본새로 따지듯이 물었다. 《아바이야 갈 사람인데 뭇땀에 아직도 여기서 이런 수고를 사서 하면서 그러니까?》

유찬명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듯 얼굴을 붉히며 잠시 허둥거렸다. 그러더니 《직장장동무, 겨울이 다가오고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박진구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또 유찬명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였다.

(그렇지, 겨울이 다가오고있지!)

박진구는 저도 모르게 유찬명의 대답을 마음속으로 받아외었다.

가슴이 더더욱 달아올랐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떤 책에서도 이런 말을 읽어보기는 힘들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긴 그래. 겨울이면 많은 화목이 필요하구말구!》

마음속의 충격에 비하면 단순하고 실무적인 박진구의 말이 었다.

박진구는 이 순간 어째서인지 직장장실 창밖에 찬서리를 들썩쳐 서있는 백양나무를 생각했다.

(우린 한때 그 백양나무를 찍어버리자고 한적이 있었지. 봄철에 화려한 꽃으로 별 나비를 끌지도 못하고 가을엔 열매가 주렁지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만일 그때 그것을 찍어버렸더라면…)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또 이 생각이 왜 이 다지도 자기 가슴을 여리게 하는지 박진구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백양나무를 놓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찍어 버렸더라면 얼마나 큰일을 저지를 뻔했는가.

박진구는 무더운 여름낮에 그 그늘밑에서 가끔 땀을 들이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얼마전 여름밤에 그밑에서 무엇인가 속삭이던 한쌍의 젊은이를 본생

각이 났다.

박진구의 생각은 백양나무로부터 다시 유찬명에게로 되돌아왔다.

어제저녁 직장장실에 들렸던 김형진이 그리도 허전해하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일손이 잡히지 않는 다던 반원들의 말이 귀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아바이, 아바이는 주택건설장에 가는 것이 정말 만족합니까?》

박진구는 새삼스레 그것이 알고 싶어졌다.

직장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담화는 이미 며칠 전에 끝냈지만 지금은 오직 인간으로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 질문앞에 뜻밖에도 유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실로 숨김없는 대답을 바라는 박진구의 눈길 앞에서 더는 본의아닌 거짓을 말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 순진한 큰눈에는 말로는 표현 못할 크나큰 고뇌가 깊이 깃들어 있었다.

《...》

말보다 더 강렬한 그 표정에서 박진구는 유찬명이 얼마나 정든 일터를 떠나가기 힘들어 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지금은 저리도 피로와하는 유찬명이 어째서 며칠 전에는 아무 불만도 없이 아니 오히려 박진구의 마음을 위안해주며 선뜻 떠나겠다고 나섰는가.

박진구의 이 의문에 대한 유찬명의 대답은 역시 단순하였다.

《직장장동무, 내가 안가면 그 누구라도 거기에 가야 할 게 아닙니까.》

《!!》

언제나 단순하고도 명백한 유찬명의 대답이 박진구의 가슴을 뚫기도 뒤흔들었다.

자기보다 남의 피로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습관된 유찬명의 본심을 알게 되면 될수록 박진구는 자기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 언제였던가... 삭막해진 기억속에서 또 하나의 화폭이 되살아났다.

열간압연분공장건설로 바쁘던 나날... 60톤급 기중기를 뒤늦게 받아온 유찬명앞에서 짜증을 참던 일... 아, 그렇지. 그때 유찬명의 말도 지금과 다름이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쓰면 그 누구든 그만큼 일에 지장을 받을 게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중기가 오는 길에 이웃직장 일을 좀 도와줬다 해서 그날 할 일을 못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는 생각이었고 당시로서는 기중기를 몇 시간 뒤늦게 끌어온 유찬명을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진구자신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생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으로는 넘어서기 힘들어 하는 《자기본위》의 계선을 유찬명은

늘 손쉽게 넘어서곤 했다.

만일 유찬명이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이런 건설장의 연공일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다른 일터에 옮겨갔었다면 그는 지금쯤 분명히 일에서 뚜렷한 자기 몫을 찾았을 것이었다.

그러고보면 이제 그가 가야 할 주택건설장은 좁은 감은 있지만 그의 말년을 좀더 의의있게 보내게 하는 데서 유익한 곳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박진구의 무겁던 마음을 어느 정도 가벼워지게 해주었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다. 무엇인가 유찬명을 위하여 자기 노력을 바치고 싶었고 보상해주고 보람해주고 싶었다.

이날, 마가을 날씨치고는 보기드물게 해빛이 유난히도 밝게 비쳤고 북방건설장에 특유한 모래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대형 강철트라스들이 련이어 리륙하는 비행기처럼 확대조립장을 떠나 까마득한 강철기둥들사이에 올라가 불고 그우에 밤빛지붕판들이 빨리도 덮이여 원료공급장전물은 시간이 다르게 자기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드바쁜 일속에 몸과 마음을 다 잠그면서도 박진구는 이날 하루일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 (4)

날이 저물자 건설장은 조명등들과 용접불광으로 하여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진구는 몸과 마음에 폭 배인 건설장의 불야성을 떠나 주택건설직장이 있는 련곡리쪽으로 바쁜 걸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한 걸음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가파롭고 험한 산길, 숲속의 밤정적과 나무가지들이 설레이는 소리... 이속을 헤치고 박진구는 걷고 또 걷는다. 해가 떨어지자 온몸에 엄습해오는 차거운 랭기를 그는 불이 나게 걷는 것으로 이겨내며 주택건설직장의 불빛을 목표로 삼고 부지런히 걸었다.

울퉁불퉁한 돌에 발을 채이고 진탕에 얻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걷고 또 걸었다. 걸음을 헛디디여 한길 버랑에 나딩굴었다가도 다시 길우로 기여올라 걸었다.

유찬명을 위하여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익한 일을 해준다는 생각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에 비하면 이 까짓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10리 산골길을 얼마나 빨리 걸었던지 부엌기지에 다달았을 때는 아직 8시를 넘지 못한 초저녁이었다.

유찬명의 말과 같이 주택건설직장장이나 분초급당비서는 다같은 동년배로 보였다. 그들은 박진구가 그곳까지 찾아온 데 대하여 고맙게 여기면서도 유찬명에 대한 설명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유동무에 대해서야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처럼 잘 알고 있는데...》

박진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유찬명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서 마저 류다론 사랑과 궁지까지도 느끼는것 같은 분초급당비서 앞에 박진구는 자연 위압되어 유찬명에 대한 온갖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로동파에서 유동무명단이 우리게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압니까. 물론 직장장동무도 그런 사람을 내놓는것이 너무 아파서 이 밤길을 온줄 압니다...》

분초급당비서의 말이 끝나기전에 주택건설직장장이 말허리를 끊으며 또 나섰다.

《우린 처음부터 유동무를 끌어오려고 했지요. 물론 유동무에게는 일반건설일이 그의 체질에 더 적합하다는 말로 들이댔지만 사실이야 사람이 욕심이나서 그런게지요. 우린 젊었을 때 돌격대생활을 같이 했으니깐요.》

박진구는 얼굴이 훗훗 달아오르고 가슴이 얼얼해왔다.

돌아오는 길은 피로운 길이었다. 그 누구에게선가 만회할수 없는 모욕을 받은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반대로 자기가 그 누구를, 그것도 선량하고 어진 사람을 배반함으로써 사람들앞에 얼굴을 쳐들고 나서지 못할 처지에 떨어뜨린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가을 찬비라도 콧 피부어 온몸을 사정없이 적셔주었으면, 천길만길 벼랑이라도 앞을 막아서 툭아오르고 굴러떨어지고 하면서 마음속의 아픔을 잊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자기가 어느새 석회배소로 강철건물조립장에 이르렀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켜서시오!》

머리우에서 벼락같은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까마득한 철기둥우에서 염돌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순간 박진구의 머리우에 큰 그늘을 지우며 집채같은 강철트라스가 허공중으로 올라가고있었다.

박진구는 염돌이가 서있는 강철기둥의 수직사다리를 타고 날래게 기어올랐다. 한참 올라가서야 4층작업대우에서 신호기를 휘두르는 염돌이옆에 이르렀다.

땀이라도 흠뻑 흘려 일할수 있는 일감과 맞다들리고싶었다.

연공반에서 이름있는 작업조장인 박윤진이 바로 그옆에서 떡메같은 함마로 뒤틀린 강철보를 바로 잡아 나가고있었다.

박진구는 박윤진의 손에서 함마를 앗아취자 바로 잡히기 시작한 대들보를 무섭게 내려치기 시작했다.

쨍-

건설장의 혼잡한 동음속에 기분 좋게 융합되는 쇠메질소리는 마음속의 시름을 날려보내며 거둑 울렸

다.

쨍, 쨍-

얼마나 세관게 함마를 휘둘러댔던지 두터운 강철대들보가 물썩물썩 변하는것 같았다.

《직장장동무, 쉬엄쉬엄 하우다.》

박윤진이 연거퍼 담배 두대를 태우면서 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박진구는 쇠메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쨍, 쨍 울리던 기분좋은 쇠소리대신에 《탁》하는 소리가 울렸다. 무푸레나무로 만든 함마자루가 부러졌던것이다.

《허참!》

박진구는 박윤진을 미안스레 쳐다보며 김빠진 소리를 냈다.

《함마자루가 무쇠라구한들 직장장동무의 그 성미야 이겨내겠소?》

박윤진이 혀를 끝끝 차며 목이 부러진 함마자루를 매만졌다. 일에 들어서는 그 누구라 해도 막무가내로 짜증을 퍼붓기 잘하는 박윤진이 이날따라 퍼그나 너그러워졌다.

박진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박윤진을 마주보았다. 그러자 부러진 함마자루에 생각깊은 눈길을 박고있는 박윤진의 전에없던 표정을 보았다.

《...?》

《젠장》

부러진 함마자루를 진채 잠시 멍청히 서있던 박진구는 누군가 자기앞에 무푸레나무감을 내미는것을 보았다.

《이건 유찬명이 지난해 휴가때 해온 마지막 망치자루감이네.》

어느새 작업반의 좌상이자 최고기능공인 최상준 아바이가 박진구앞에 서있었던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유찬명의 말이 나오게 될줄은 몰랐다. 박진구는 긴장하여 다음말을 기다렸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유찬명이 그 사람한테 내 한번 혼썰나던 일을 당대 잊을수 없네.》

최상준아바이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한때 《호랑이연공》으로 소문이 높던 최상준이 그 유순한 유찬명에게 혼썰났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데다가 지금 그 말을 꺼내는 의도 자체를 박진구는 이해할수 없었다.

박진구는 함마자루를 갈아 맞추면서 최상준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난 성질이 못돼먹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엔 싫어했지. 60톤 기중기를 저 제관장에서 끌어올 때였는데 오전중에 와야 할 기대도 사람도 나타나질 않더구만.》

기다리다 못해 한달음에 달려가는데 글썽 기중기가 설비조립직장 천정기중기조립을 하고있질 않겠소. 우리 일도 긴장한 때라 눈에 불이 일었지.

난 다짜고짜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기증기운전칸에 뛰어올라 짧은 운전공녀석을 붙이나게 다그어댔지. 기증기가 물었던 물동을 풀려고 하는 때였는데 누군가 운전실문을 두드리더라만말야.

내 눈을 부릅뜨고 문을 열었더니 글썽 설비조립연공이 아니라 우리반 연공 유찬명이 <아바이 하던 일은 해주고 가야 합니다.>라고 하질 않겠소. 이젠 뭐 주객이 바뀌여두 한도가 있지 이럴수가 있는가. <안돼! 어서 가거나 해!>

내가 그때 얼마나 청을 높였던지 배짱이 실하던 운전공녀석도 꿈틀 놀라거꾸만.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유찬명, 그 친구가 나를 맞받아 벼락같은 소릴 질렀단말야.

<아바이인 옳지 못해요! 본위주의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지, 이게 정말 어찌된 일인가. <뭐라구? 이 제 밥도 못찾아먹는...> 나는 채 말을 끝맺지 못했네. 그 유찬명이 나를 무섭게 노려보는데 내 입이 저절로 굳어지더라만말요.

그 흰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해쓱해졌는데 주먹을 후두두 떨더라만말요. 그전까지 그 누구앞에서도 승벽을 굽혀본적없는 내가 그때는 어떻게 되어 유찬명이한테 끄떡 소리를 못했는지, 나뿐아니라 그때 모두가 유찬명의 의사를 꺾지 못했지. 그가 천만번 옳았으니까...

그가 떠나게 된 오늘에야 모든게 석연해지네. 그는 옳은 말, 옳은 행동만 했네.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보탬을 줬지.>

최상준은 말을 잠시 끊고 불을 실룩거렸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는 펍 가라앉은 억양이 흘러나왔다.

《...그런 유찬명이를 이제 누가 대신하겠나. 내가 없으면 박윤진이 나를 대신할수 있고 염돌이도 좀 더 일하면 나보다 높은 기능공은 될수 있겠지만... 하지만 유찬명을, 그의 마음을 대신할수 있는 사람은 여기엔 없네! 없단말이요!》

광, 광. 사정없이 쇠파로 심장을 내려치는듯한 말이었다. 박진구는 그것을 직장장인 자기에 대한 공정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선고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유찬명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는것은 그가 사람들을 위하여 마른일 곳은일 가리지 않고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박진구는 비로소 깨달았다.

유찬명은 박진구가 동정의 눈으로 내려다볼 그런 약자가 아니었다. 박진구자신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큰 심장으로 사람들을 폭넓게 또 뜨겁게 사랑할줄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아바이!》

박진구는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서 아바이는 이제야 그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잘 물렸다는것도 잘못이지만 아바이야, 그리고 동무들이야 유동무를 더 잘 알고있었는데

왜 이제야 말하는가말이요? 지금이라도 일을 바로 잡으려면 유동무를 보내지 말아야 할게 아닙니까!...내가...》

이때 최상준의 청높은 목소리가 그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그렇게는 안되네!》

한때 박진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입당보증인으로 되었던 최상준은 박진구의 손에서 채맞추지 못한 함마자루를 앗아내었다. 그리고는 투박한 주머니칼을 꺼내더니 무서운 기세로 맞추기 시작했다.

최상준의 억센 손탁안에서 쇠파자루는 순식간에 새로 맞추어졌다. 그는 늙은이답지 않게 함마를 휘둘러 강철보를 때리기 시작했다.

최상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나 쇠파질소리는 더욱 힘있게 울렸다.

《아바이, 강철보가 젓혀집니다.》

박윤진이 질겁을 하며 최상준을 멈춰세웠다.

《글썽 이따위 대들보야 젓혀져도 바로잡을수 있구 이 망치자루같은것두 부러진 자루를 맞추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단말이야.》

최상준이 가쁜숨을 쉬며 걱정을 터뜨렸다.

《우린 왜 유찬명을 보낸 오늘에야 그에 대한 좋은 말을 하게 되었나? 그가 처음 왔을 때는 젊은 시절이었구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릴 위해서 모든결다 바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 해준게 뭐요? 그 귀중한 마음조차 이제야 겨우 알게 된 우리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소?》

아니요. 유찬명은 보내야 하오.

그것이 우리 가슴에서 살점을 떼내는것처럼 아프다 해두 지체없이 보내야 하오. 여기엔 직장장두 우리두 다 죄가 있는이상 벌을 받아서 싸지, 싸아!》

최상준이 격한 소리로 말을 끝내자 박진구는 머리를 급히 숙이었다. 그러나 찌릿하고도 뜨거운것이 눈곱에 솟구치는것을 감출수 없었다.

그 눈물은 자기가 한 인간을 너무나 늦게야 알게 되었다는 자책과 회오의 눈물이자 그 귀중한 사람을 알자마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쓰라린 마음에서 나오는 피와 같은 눈물이었다.

× ×

박진구는 목메인 소리로 여기까지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가었다.

나는 그가 창문앞에 서있는 백양나무에서 생각 깊은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것을 보았다.

《...유찬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허전하고 괴롭던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나자신을 용서할수 없었습니다. 공장참모회의 뒤끝에 털어놓고 비판하였지요. 어떤 사람들은 뜻밖이라는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바이 박진구가 전 사업소적인 사업에 허심한 일군으



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 실제루 성실한 당원을 주력건설장에 보낸것만은 사실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리면에는 스쳐지날수 없는 인간문제가 있었던것입니다.

나는 참모회의참가자들의 심각해진 얼굴에서, 그리고 방안에 떠도는 침중한 공기속에서 그것을 또 한번 절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대중의 한결같은 규탄이나 엄한 책벌이라도 받고나야 빛진 마음이 풀릴것 같았습니다.

이윽하여 지배인동무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지요. 왜서인지 그의 눈빛에는 대견함이 어려있었습니다.

<책벌을 받겠단말이요? 우리가 동무에게 더 무

슨 책벌을 주겠소. 유찬명이로 하여 동무자신이 겪은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일생동안 받게 될 가책, 그것이야말로 동무에겐 다시는 그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게 할 생활이 주는 무거운 책벌로 되겠는데...> 하고 그는 회의를 결속짓는것이였습니다....

박진구의 긴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했다.

만일 박진구가 한 인간을 잘못본것으로 하여 생활에서 받은 고민과 피로움을 《책벌》이라고 한다면 유찬명이 그렇듯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남기게 된것은 그의 청춘과 한생에 대한 가장 값높은 표창이 아닐가!

## 쇠내

### 허창일

학교를 졸업하고 용해장에 온 날  
사품치는 쇠물을 보여주며  
로장은 나에게 말하였다  
-쇠내가 배야  
진짜배기 용해공이 돼!

쇠내란 어떤 냄새인가?  
끓는 쇠물에도  
부어낸 강피에도  
쇠에는... 쇠에는 냄새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쇠물을 휘저으며 나는 자랐다

불새같은 쇠물꽃이 튀어나오는  
시료를 앞에 놓고  
로장처럼 좋아할줄도 알았고  
쇠물에 섞인 한점 티를 두고  
가슴을 두드리며 성낼줄도 알았다

그러던 어느날  
출강이 끝난 뒤  
남비에서 흘러 굳은 쇠물방울을  
천근 강피인듯 모으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온 로장  
내 등을 툭 치며 말하였다  
-자네에게도 이제는  
제법 쇠내가 풍기거든!

아, 쇠내!  
쇠내는 있었다

한가마 후련히 끓인 쇠물을  
남비에 받는 순간  
보호안경 벗어들고 히죽이 웃는  
그 웃음들에...

퇴근하다가도  
출하장을 떠나는 강재화차들을 보면  
손저어 바래주며 흐뭇해하는  
그 마음들에...

그렇다, 쇠내  
쇠내는 있었다  
로와 한생을 기억하고  
말없이 묵묵히  
쇠물로 당을 받들어가는  
진짜배기 용해공에게서 풍기였다  
향기처럼!  
향기처럼!

세대가 바뀌어 오늘은 나도 로장  
배치장 뜬 애송이들이 용해장에 오면  
나를 받아주던 로장처럼 나는 말한다  
-쇠내가 배야  
진짜배기 용해공이 돼!

## 길에 대한 생각

리의남

누구에게나 길을 걸으면서 길가의 풍치를 즐기거나 깊은 사색에 잠기는 때가 흔히 있을것이다. 나역시 혼자서 길을 걸을 때면 여러가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면 그날에 해야 할 일을 그려보며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길에서는 하루일을 더듬어보기도 한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일어나 지난 1 년간에 있는 일을 더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난 일생에 있었던 특징적인 일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그런 생각은 깊은것일수도 있고 얕은 생각일수도 있다.

때로는 수풀처럼 일어서는 공장을 두고 환희에 잠기기도 하고 날로 변모되는 문화농촌을 두고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나 길 그자체를 두고 생각해본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나는 평양-원산간 고속도로도로를 걸으면서 길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참으로 나는 이 길을 두고 번영하는 우리 조국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끼는바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융성발전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눈썹리가 모자라게 아득히 뻗어간 도로, 시원하게 트인 세멘트포장도로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들이 줄지어 달려가고있다. 버스의 차창으로는 어디로 견학을 가는 학생소년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다. 그들은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농장별, 향기 그윽한 파수밭을 바라보며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고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 길을 걸노라니 지금으로부터 40 여년전에 있는 일이 생각키웠기때문이다.

그것은 지난날 내가 보던 길, 내가 걸던 길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길이였기때문이다. 이곳은 나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이 흘러간 잊을수 없는 고장이자다.

신계곡산이라 불리우는 이곳, 지금은 세멘트포장도로가 곧추 뻗은 여기에 40 년전에는 돌고개라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었다. 산은 높지 않았으나 경사가 급하고 길이 험해서 사람들은 산중턱에서 쉬어서야 넘어가곤하였다.

이 돌고개의 고개길은 멀리서 보면 실오리를 늘여놓은듯이 가느다란데 산비탈의 바위썸으로 뻗어

있었고 통선에는 회초리로 후려 놓은듯한 수풀속 오솔길이 있을뿐이었다.

해방전 어느날 돌고개너머에 있는 면소재지마을에 있는 지주집에 바칠 소작미를 소잔등에 싣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 고개를 넘던 때에 있는 일을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

아버지는 소잔등에 조가마니들을 싣고 지주집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고개마루를 힘겨웁게 오르던 소는 중턱에서 주르르 미끄러지면서 풀썩 꼬꾸라졌다. 소는 가마니무게에 눌리운채 움짱 못하고있었다. 어쩌면 자빠진 소의 멍청한 그 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원을 청하는듯싶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를 일궈세워보려고 소고삐를 당겨도 보고 소꼬뚜레를 쥐고 끌어보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려보기도 했으나 소는 종시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수없이 좁쌀가마니를 부리우고 소를 빼냈는데 그래도 소는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소는 다리뼈가 부러졌던것이다. 이 소는 우리 집 소가 아니었다. 지주집 윤두소였던것이다. 그런데 윤두소를 키워서 송아지도 내기전에 다리를 분질렀으니 눈앞이 아팠었다.

지주놈은 소작료뿐만아니라 남은 곡식마저 소값으로 모조리 털어갔으며 엄청난 빚을 들썩였다.

이렇게 온 1 년동안 피땀으로 지은 곡식을 빼앗기다니 온 집안이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집식구는 고향을 등지고 류랑의 길을 떠났다. 돌고개를 넘어...

사실 이 돌고개로 말하면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지주놈에게 땅을 떼우고 피를 빨리우며 죽지 못해 살다가 피나리보짐을 싸매고 수많은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넘어간 원한의 고개였다. 하여 일명 원한의 고개라고 불렀다. 그해에 돌고개마을을 떠난 우리 아버지는 철도공사판으로, 수전공사판으로 떠돌아다니며 품팔이로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나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닭알 노란자위같은 논밭 4,000 평을 분여받아 농사를 지어 현물세에 애국미를 덧쳐가지고 돌고개를 넘던 일이 선히 떠오른다.

토지개혁의 기쁨으로 온 마을이 흥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돌고개의 돌들을 뿔아버리고 오솔길을 넓힌후 달구지길을 만들었다.

현물세에 애국미까지 싣고 왈랑왈랑 소방울소리 높이 돌고개를 넘어가면서 하던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이 돌고개로 자기 황소잔등에 애국미를 싣고 넘어가볼수 있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니. 정말 장군님의 은덕은 하늘보다 높구나!》

그때로부터 근 10년이 흐른뒤 돌고개마을사람들은 달구지길을 넓히고 산을 낮추어 자동차길을 만들었다.

그것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한 이듬해였다. 그때로부터 이 신작로로 무쇠철마뜨락또르가 동음소리 요란히 풍년든 곡식단을 싣고 줄기차게 달려 마을로 들어왔고 신작로 좌우편으로는 관개수가 흘러넘쳐 기름진 논밭이 펼쳐졌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던 시기에 나는 조국보위초소에 나갔다가 체대되어 다른곳에 배치되는 바람에 오래동안 고향땅에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공업화가 완성되고 새로운 전망목표와 설제도가 펼쳐지던 시기에 자동차나 겨우 어길수 있는 신작로길을 넓혀 고속도로로 건설되었다.

...

나는 지나간 추억에서 벗어나며 책가방을 메고 달랑달랑 걸어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물었다.

《얘들아! 여기 돌고개마을이 어디냐?》

그러자 학생들은 서로 쳐다보며 대답을 못했다.

이윽해서야 오돌차게 생긴 한 학생이 《여긴 돌고개란 마을은 없어요.》 하고 대꾸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 새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자리에 원한 의 돌고개가 이전에 있었다는것도 알리 만무한것이다. 그것도 생각지 않고 아이들에게 물어본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 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깊이 느꼈다.

나에게는 이 끝은 길이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노래부르며 학교에 가고 자동차가 달리는 단순한 신작로로 생각되지 않았다.

이 길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시대의 자랑찬 변천을 이야기하고있다. 발전하는 우리 조국의 한 단면이 이 길에도 비껴간 것 같았다. 아울러 우리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은 높뛰었다.

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만 달려나갈 미래의 조국이여!

## 펼쳐든 신문에서

한철흡

이게 몇해만이나

숨은 공로자

펼쳐든 신문에서

만난 전우야

너로구나

폭풍에 홀날린

락동강가 모래알이 배졌다고

습격을 앞둔 그 밤에

뺨을 비비던 그 얼굴

너로구나

군모 아닌 안전모 눌러썼어도

해빛이 부신듯 쪼프린 눈

왜 우리 분대의 1보총수

고집스런 그 메밀눈이구나

헤어져 편지 한장 나눌길 없더니

채탄기 틀어잡고

땅밑에서 어깨우에 조국을 받들고

말없이 탄발을 넓혀온 그때

안전등을 마음의 눈으로 삼고

탄벽을 밀며 걷고걸은 걸음

내 어이 모르랴

밤눈이 밝아 길잡이는 자기노라고

밤의 지뢰원도 앞서 헤치던

그날의 마음 그 걸음이라는걸

못잊을 50년 그해 여름에

포연속에 소년티를 벗은 전우야

어느덧 50대에 이르렀어도

너는 변함없이

격전의 날의 1보총수로 살고있구나

그래서 띄운 편지 없어도

전선신문으로

너의 군공 전해주던 날처럼

너의 소식 내가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게니

수령님을 위하여

불비속을 헤쳐온 그날의 병사들

멋이 있구나 소식을 전하는 법도

멋이 있구나 전우를 만나는 법도

## 가까와진 길

안병모

먼길로만 생각되었더라  
농포-사봉  
사봉-농포  
제철소로 오가던 십리 출근길

바다기슭 백사장우엔  
흔들리는 갈대뿐  
허허벌판  
서서히 감도는 눅눅한 안개속  
아득히 지루하던 길

언제부터였던가  
넓으나 넓은 백사장우에  
딱 차게 숲을 이룬 철탑들  
우람한 강철로와 압연장  
열풍소리에 떠받들려  
나는듯이 걷는것은

반겨주더라

강철로에서 쏟아지는 쇠물의 흐름소리  
정다운 노래처럼 가슴 흔들며  
발걸음 재촉하더라  
파도쳐 내닫는 강관의 세찬 흐름이

어느새 닿는지 알수 없으랴  
어제날 그리도 멀어보이던 십리 출근길-  
오늘은 대야금기지의 벽찬 구내길-  
철의 거센 음향 노래처럼 들으며  
떠나가는 강관더미들 손저어 바래주며  
기쁨속에 걸음도 가벼워진 길

아, 가까와지는구나  
구내에 들어서면  
수령님 펼쳐주신  
이 길을 걷노라면  
멀리 보이던 길도  
높아보이던 강철 링마루도...

## 나의 공장

윤희혁

언제나 걷는 구내길이어도  
무심히 걸을수 없구나  
쇠물과 더불어 잔뼈를 굳혀온 그 자취들이  
걸음걸음 눈앞에 다가서는  
철의 기지-나의 공장이어

파도 설레이는 바다기슭에서  
관모봉기슭까지  
수령님 걸으신 거룩한 자욱우에  
아득히 펼쳐진 은빛 지붕들과 굴뚝들  
그 어디를 딛고서면  
흘러간 지난날을 다 가늠할수 있으랴

쇠물노을 흐르는 하늘밑에 태어나  
내 처음 눈동자에 비껴담은것은 쇠물이였다  
내 처음 들은것은  
우람찬 철의 음향이였다

번쩍이는 강철의 총계로  
입당의 기쁨안고 뛰여오르던  
그날의 감격이 여기 있다

저 하늘높이 치솟은 철탑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처녀와 속삭이던 언약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처음 쇠장대를 쥐던 그 새벽을 넘어  
광란하는 물줄기를 휘여잡던  
내 성장의 자욱들이  
한해계획 넘쳐낸 쇠물의 톤수  
당에 보고드리던 그 기쁨이

아, 나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내 심장의 맥박을 조국에 이어준 나의 공장  
너와 떨어져 내 조국을 생각할수 없고  
너와 떨어져 조국에 내 귀중할수 있으랴

나에게 조국을 받드는  
성실한 근로자의 량심을 키워준  
너를 위해 내 모든것 바치는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 없으리라  
철의 기지- 나의 공장이어

## 우리의 손

천일수

토론에 뒤이어 채택된 결의문  
긴 말이 없다  
강철직장 2계단 확장공사를 두고  
다만 작업량과 날자뿐

기어코 그날까지는 해야 할  
드릴수 없는 과업이기에  
우리는 이 손 높이 쳐들었다

우리는 안다  
건설자의 길이란 결코 순탄하지 않거니  
우리 가는 앞길에  
암벽도 태풍도  
때아니게 나타나리라는것을

쉽게 쳐든 손이 아니다  
당의 부름에  
온몸으로 받들어올린 이 손  
전후 재더미우에서도  
이 손으로 용광로를 일떠세웠다

당의 부름 받을 때마다  
말보다 먼저 쳐든 이 손

몇사람이 모여앉아서도  
우리 이 손만 쳐들면  
그것이 공장의 계획이 되고  
나라의 계획으로 되거니

욕망으로 쳐든 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바치는 충성이  
이 손에  
드림없는 맹세로 굳어졌기에  
한번 쳐들면 법이 된 이 손

강철의 날가리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꽃피울  
조국의 먼 미래까지 받들어 쳐든  
조선 로동계급의 이 손

토론에 뒤이어 채택된 결의문  
긴 말이 없어도  
높이 쳐든 이 손에  
벌써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새 강철직장 구내가 떠받들려있어라!

## 철산봉의 달

김경준

대발파에 떠받들려  
등실 솟았느냐  
휘영청 밝은 철산봉의 둥근달아

하늘이 낮아선가  
산성이 높아선가  
한번 키돋움하면 손에 잡힐듯

흥이 나더라 네가 솟으면  
쇠돌발 백리길에  
정답게 벗하며 웃어주는 달

쇠돌 실은 대형차마다 네 웃음도 덩실  
쇠돌 폭포 쏟아지는 락광정에도

아름지는 달빛이 유정하구나

창조의 숨결높은 위훈의 산정에  
높이 올라선 광부들이 대견해  
온 나라 눈빛들이 바라보는 여기

달아 그래서 너도 웃는거냐  
그 밝은 얼굴들의 웃음을  
네 얼굴에 다 모아안고

아, 위훈이 없이야  
밝은 네 얼굴 떼땀이 쳐다볼수 있으랴  
그 어이 너와 정다워질수 있으랴

## 그이가 쓴 원고

정은섭

## 1

저녁무렵이었다.

○○신문사 서한부 기자 오철민은 우유빛책상 위에 널린 원고지를 간중그러놓고 피곤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광산에서 착암기를 잡았던 그는 신문기자가 된 후 30년이 돼오도록 이방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철민은 락조가 비낀 창문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마당가에 서있는 오동나무의 황이 진 잎사귀들이 쌀쌀한 늦가을바람에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어디론가 구울러갔다. 무성한 잎사귀로 한낮의 폭양을 막아주던 나무였다. 역시 철은 어길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허전해졌다. 나무의 우듬지에 앉았던 산새 한마리가 구슬픈 목소리로 우짖으며 어스름이 깃드는 숲속으로 바빠 날아갔다.

이때 조용히 울리는 손기척소리가 났다. 그는 출입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한 녀인이 사무실안에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뒤로 처녀가 따라섰다.

머리수건밑으로 보이는 반백의 귀밑머리, 빛을 바랜듯싶은 주름많은 얼굴, 그러나 선량함이 어린 녀인의 두눈은 리지에 불타고있었다. 녀인의 젊은 시절을 단번에 그러보게 생긴 처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아니, 정임동무가... 딸까지 데리고...》

오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고 그들에게 의자를 권했다. 녀인도 웃음을 지으며 결상에 앉았다.

오철민은 시안의 멀지 않는곳에 자리잡은 등광산에서 일하는 이 녀인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녀인은 가방에서 두겹으로 검은 종이를 꺼내여 그에게 내밀었다.

《또 이렇게 가져왔군요. 이제는 년세도 많으신데 제가 어련히...》

오철민은 통신원고라고 짐작되는 그 종이를 받으며 미안한 어조로 말했다.

《원, 별 말씀을...》

녀인은 미소를 지으며 감회깊은 눈길로 사무실안을 눈여겨 살피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기억에 새겨두려는듯.

처녀의 눈길도 녀인의 눈길을 따라 움직이었으나 오철민의 얼굴에 자주 머물곤했다.

《전, 그만...》

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벌써 가시렵니까? 좀 이야기나 하시다가...》

오철민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어리었다. 그는 녀인과 처녀를 바래워주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오철민은 책상에 마주앉았으나 어쩐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자꾸만 방금 녀인과 처녀가 앉았던 그 의자에 가닿는것이였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등광산 당위원회에서 온 전화였다.

《...철민동무, 우리 광산 압축기작업반에서 일하던 한정일동무가 래일부터 년로보장수속을 합니다. ...》

등광산 당비서의 목소리는 흥분에 떨렸다. 오철민은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정임동무는 30여년간 통신원사업을 하면서 남에 대한 솔한 글을 썼는데 아직 누구도 그에 대한 글은 쓴적이 없구만...》

당비서는 오철민의 대답을 듣고 싶어했으나 그는 입을 열수가 없었다.

오철민은 무슨 말을 하고 송수화기를 놓았는지 한동안 자신을 견잡을수 없었다.

책상위에 놓인 하얀 종이가 그의 눈에 띄었다. 방금 한정임이가 주고 간 원고였다.

그렇다면 저것이 정임이의 마지막 원고란말인가. 이제 그를 여기서 더는 만날수 없단말인가.

오철민은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딸과 나란히 걸어가는 정임이가 저 멀리에 보였다. 소슬한 가을바람에 녀인의 머리수건이 기폭처럼 나뭇겼다.

정임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가고 하나의 작은 점으로 변해버렸다. 어느덧 그것마저 사라졌으나 오철민은 뿌리내린듯 창가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아,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되였는가. 량태머리처녀였던 그를 이방에서 만난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단말인가.

오철민은 자기의 눈앞으로 정임이가 레의 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듯한 환영에 사로잡혔다. 정임의 그 모습은 오철민에게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나가버린 30여년전의 일, 그날은 흰눈이 나무가지들과 마른 풀잎우에 포근히 내려앉아 새싹을 잠재우던 겨울이였다.

오철민이 퇴근하려고 사무실문을 나서니 눈이 발목에 잠기도록 내렸었다. 그런데 문밖에 낮모를 처녀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눈우에 찍히운 발자국이 없는것으로 보아 처녀가 문밖에 서있는지 퍼그나 오래된것 같았다.

오철민은 그에게 누구를 찾아왔는가고 물었다. 처녀는 수집은 얼굴로 언뜻 그를 쳐다보았다. 처녀의 빨강게 언 손에 통신원고가 쥐여져있는것을 알아본 철민은 그를 데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 앉소.》

오철민이 자리를 권해도 처녀는 앉을념을 않고 원고를 내밀었다.

원고는 대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직 서투르긴 했으나 광부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듯싶은 글이 었다.

알고보니 처녀는 등광산의 압축기운전공이었다. 그 누가 처녀에게 통신원고를 쓰라고 과업을 준것도 아니였다. 처녀는 쇠돌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광부들의 뜨거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큰 보람과 긍지를 안겨줄가싶어 글을 쓴것이였다.

오철민은 사무실창가너머로 광산마을쪽으로 종종 걸여가는 랑태머리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훌륭한 통신원을 만난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서른해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랑태머리처녀였던 저 녀인은 년로보장수속을 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마지막 발걸음을 어디로 옮긴것인가.

그가 남긴 마지막 원고는 저기 우유빛책상우에 놓여있다. 그가 30여년간 가져온 원고를 저 책상우에 쌓아놓으면 천정과 맞닿을것이다.

남을 위해 바쳐진 그 원고들에는 그의 성실한 한생이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오철민은 방금 수화기에서 울리던 등광산 당비서의 말이 가슴에 맺혀왔다.

내가 왜 정임이에 대해 쓰겠다고 그에게 큰소리로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가.

세월은 흘러 어느덧 그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어도 정임이는 어제날의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여기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오철민은 지금껏 너무도 정임이에 대해 모르고 살았다는 자책이 가슴이 쓰러났다.

문득 그는 정임이가 쓴 글들이 실린 신문에 생각이 미치자 서류함에서 신문묶음철을 꺼내놓았다. 신문들을 번지던 그의 눈에는 《불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소개한 등광산의 장두범굴진소대에 대한 기사가 안겨왔다.

정임이가 쓴것이였고 철민이 자신이 편집한것이였다. 장두범은 이미 십년전에 공훈광부가 되였다. 철민은 제대된후 장두범과 한막장에서 일했었다.

그는 장두범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온밤 잠들지 못한 오철민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 2

아침빠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낮익은 광부들과 인사를 나눈 오철민은 앞쪽에 빈자리가 띄우자 그리로 갔다. 그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누구인가 가볍게 귀땀을 했다.

《그자리는 정임아주머니의 자리라오. 여기에 앉소.》

그 사람은 오철민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빠스안에도 정임의 지정된 자리가 있다는것을 생각조차 못했다. 더우기 한정임이가 오늘부터 년로보장수속을 하며 이제는 이 빠스에서 더는 그를 볼수 없으리라는것을 이들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임이가 자기들의 대오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생각지 않는다는것을 느꼈을 때 오철민은 가슴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발동소리가 울리고 빠스는 달리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오른 그들이여서 간밤의 일을 두고 할 이야기도 많으련만 빠스안은 별로 조용하였다. 이따금 짹짹거리는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라지면 으흠하는 기침소리에 그것마저 잦아들고말았다.

《정임동무가 없으니 새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구만.》

옆에 앉은 광부가 안전등의 반사경을 닦으며 말했다. 서운함이 진하게 배인 그의 목소리에는 정임이에 대한 그리움이 스며있었으며 아침출근의 그 째시간마저 그냥 보내는 아쉬움이 깃들어있었다.

오철민은 아무런 준비없이 빠스에 오른 자신이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랐다.

만일 그가 지금 선동격문을 읽어주고 시정시를 읊어줄 때 이들이 랑만과 희열에 넘쳐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임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때 뒤전에서 처녀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에는 새로 나온 노래를 배워드리겠어요.》

모두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오철민은 모두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임이의 딸 순실이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처녀는 생긋 웃으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제가 먼저 새로 나온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광부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운전사마저 차안의 분위기에 맞추어 차를 몰았다.

오철민은 몸을 바로잡았다.

이윽고 손뽕금의 명랑한 반주가 차안에 흐르고

순실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맑고 부드러운 첫 소리에 뒤이어 힘있고 은은한 가락이 뒤를 따랐다. 그것은 아름답리나무의 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었다.

오철민은 노래속에 파묻힌채 명상에 잠겼다. 그는 정임이의 얼굴을 보는것 같았고 정임이의 목소리를 듣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를 알고 지나보낸 30 여년 세월의 그 갈피갈피들이 새로운, 크나큰 의미를 안고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순실의 노래소리는 점점 높아져가고 폭이 넓어져갔다.

오철민은 지금 뺨스에 앉아 가는것이 아니라 정임이의 손에 이끌리어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가는것만 같았다.

오철민은 갱식당의 식탁앞에 장두범과 마주앉았다. 식탁우에는 방금 부어놓은 맥주가 고뿌에서 거품을 뿜고있었다.

《자네, 정임이의 소식을 들었나?》

오철민은 장두범을 쳐다보며 물었다.

《들었네. 세월이란... 그가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기 그지 없네.》

《나역시 마찬가지질세. 이제 누가 것처럼 글을 쓰겠나.

자네 이 신문이 생각나지 않나?》

오철민은 그에게 26년전의 신문을 내밀었다.

《아니, 이게?! 정임동무가 쓴게로구만.》

장두범은 그의 손에서 신문을 빼앗듯 넘겨쥐었다. 오래도록 기사를 더듬던 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게 61년도 봄이였네. 그때만해도 압축기는 갱밖에 있었지...》

장두범의 얼굴에 추억이 실리었다.

...가스냄새가 채 가셔지지 않은 막장안에 그들은 말없이 서있었다. 용을 쓰던 착암기는 힘에 겨운듯 멎고 말았다.

《이거야 어디...》

누구인가 건디다 못해 두털거렸다.

《소대장동무, 이제는 압축기와 가까운 막장과 바깥이다. 우리도 다른 소대처럼 계획도 넘쳐하고 신문에도 나아 할게 아니요.》

《뭘라구? 그것도 말이라고 해? 이름이나 열자고 이 땅속에 들어왔어?》

장두범은 썩 소리질렀다.

《그럼 난 다른 소대로 가겠수다.》

《다른 소대에 간다구?! 이 못된녀석이!》

장두범은 한참동안 그를 쏘아보았다. 눈에서 불씨가 황황 이는것 같았다.

앞에 막아선 난관은 마치 그들의 심장의 무게를

달아보거나 하려는듯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압축공기의 부족은 올라가미를 조이는듯했다. 난관은 치명적인것이였다. 막장은 깊어갈수록 압축기의 배관거리는 멀어져가고 공기의 압력은 약해져만 갔다. 게다가 규격이 고르롭지 못한 관들의 째름으로 공기는 쉬임없이 새고 한토막의 관도 천금처럼 귀했다.

장두범은 굴길을 따라 맥없이 걸어갔다. 그는 배관을 점검하는 정임이와 마주쳤다.

《장동무, 미안해요. 제일 깊은 막장을 맡아가지고 저희들때문에...》

《그게 어디 정임동무탓이겠소. 압축기는 의례히 갱밖에 있어야 하고 거기로부터 관을 늘여 바람을 주는거야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기술자들도 만나보고 오랜 기능공들도 만나보았는데 끝내 손털고 나앉아버렸군요. 전 요즈음 잠을 잘수가 없어요.》

정임이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글쎄 배관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장두범은 나직이 한숨을 내뿜었다.

머칠이 지나갔다. 그는 매일같이 찾아와 한치의 압박이라도 더 밀고나가도록 고무해주던 정임이가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쩐지 그가 보고싶고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힘이 날것 같았다.

하지만 정임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온몸 생각을 굴리던 장두범은 굵은 바줄을 거머쥐고 복갱의 고굴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장두범은 그 몇번 고굴속에 들어가 내버린 관이라도 끌어내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르는 그 속에 몸을 들이민다는것은 싹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격이였다.

이따금 들려오는 진동소리,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박쥐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석수... 하지만 배관의 예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 장두범은 더 바재일수 없었다.

그는 고굴앞에 이르렀다. 서늘한 바람이 확 몰려와 얼굴을 때렸다. 온몸이 갑자기 졸아드는것 같았다. 장두범은 어깨에 맨 바줄을 추스르며 용기를 내어 한걸음 내짚었다.

이때 《장동무, 서라요!》하는 다급한 소리가 그의 등뒤에서 들려왔다. 몸을 돌린 순간 장두범의 두눈은 한껏 커졌다. 저기 둔덕을 넘어선 정임이가 손을 흔들며 엎어질듯 달려오는것이 아닌가.

장두범은 그만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어느사이 그의 앞에 다달은 정임은 한동인 숨이 턱에 닿아 장두범을 울롱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얼굴로 땀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리고 온몸은 화락하니 젖었다.

이윽고 정임이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풀렸어요.》



《풀리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버이수령님께서 검덕광산을 현지도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거기서 오는 길이에요.》

수령님께서 광산의 걸린 고리를 대번에 포착하시고 압축기를 갱밖에 놓고 바람을 넣을것이 아니라 압축기를 끌고 막장에 들어가라고 하시었어요.》

《수령님께서... 압축기를 끌고 막장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면 포도 내다놓고 싸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시었어요.》

문득 장두범의 눈앞에는 가렬한 전화의 그림이 떠올랐다.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원썬놈들을 코앞에서 때려부시지 않았던가.

그는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가슴이 확 열리었다. 이 세상 모든 기쁨을 한가슴에 다 받아안은것 같았다.

그는 정임이의 두손을 와락 부둥켜쥐었다.

《정임동무!...》

장두범은 불몽치같은것이 가슴을 지저놓아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고 머나먼 길을 한걸음으로 달려오지 않았는가.

《우리도 어서 압축기를 갱안에 넣자요.》

정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장두범은 말을 이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압축기를 막장에 들여놓은 날이었네.》

정임동무가 달려와 어서 착암기를 쥐라고 하지 않겠나. 공기변을 열어놓으니 바람이 어찌나 쎸지 착암기가 글썽 말처럼 길길이 뛰네. 우리는 너무 기뻐서 부둥켜안고 돌아갔네.

<동무들, 수령님께서 주신 바람이에요. 수령님께서...>

이렇게 목메어 말하는 정임동무의 얼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후였지. 갱휴제실에 들어서니 소대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싱글글거리며 신문을 내놓더군.

<불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대를 크게 소개한 정임이의 기사가 실려있었네.

다른 소대로 가겠다고 하던 녀석이 잘못했다고 자기비판을 하더군.

사실 신문에 실려야 할 사람은 바로 정임동무였네.》

장두범은 두눈을 슴뻑거렸다.

오철민은 그때의 일이 기억에서 되살아났다. 흥광산 장두범굴진소대의 소식은 삽시에 퍼졌으며 광부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펴놓았다.

《정임이도 떠나가고... 이젠 젊은 녀석들이 판을

치지. 그래도 젊은이들은 정임이를 잊지 못한다네. 자네, 송기철소대장을 만나보게. 아는 사이지?》

철민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 정임이를 생각하며 오래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오철민은 장두범과 헤어졌다. 그는 송기철소대장을 찾아 갱입구에 이르렀다.

### 3

오철민이 갱입구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송기철은 인차에서 내리고있었다.

그는 반가운 눈길로 기철을 바라보았다. 철에 맞게 선택한 진회색 양복은 그의 품에 잘 어울리었다. 햇빛에 넥타이 뺨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뒤로 그와 비슷한 차림새의 소대원들이 따라섰다. 알고보니 오늘 소대원전체가 광산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기철동무도 졸업식에 가오?》

오철민은 기철이가 이미 5년전에 광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우리 소대에 경사가 났는데 소대장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것도 정임아주머니가 진심으로 도와주었기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송기철은 제대배낭을 메고 곧장 선광장건설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건설장에서 고향처녀인 송옥이를 만났다.

건설이 끝날무렵의 어느날, 그들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석양녘의 선명한 색채가 불타오르는 청루덕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주홍빛으로 물든 하늘, 손에 잡힐듯 낮추 떠가는 보라빛구름장들, 가벼운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잎들과 벌써 땀을 내기 시작한 풀잎들...

그들은 말없이 걷고있었다.

공기는 가슴이 확 열리도록 시원하고 물씬한 숲의 향기는 코를 찔렀다.

웅장하게 일떠선 선광장과 아담한 살림집들이 략조의 빛발속에 유난히도 두드러져보였다.

《아이, 산딸기! 산딸기예요.》

송옥이는 아이들처럼 손뼉을 쳤다.

《어디, 어디요?》

기철이는 두릿두릿 주위를 살폈다.

가파로운 바위벼랑아래에 개암나무들이 듬성듬성한데 그곳에는 산딸기들이 한벌 쪽 깔려있었다. 그 가시돋힌 줄기에 맺힌 발그스름한 열매들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랐다.

그는 바위벼랑을 타고내려가 가시에 손이 긁히우는것도 모르고 딸기를 따다.

둘은 딸기가 담긴 수건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난 병사시절에 고지에서 산딸기를 많이 따먹곤 했소. 그때마다 고향생각이 나더구만. 이번에 선광장을 건설하면서 나는 제대병사가 서야 할 위치를 두고 꼼꼼히 생각해봤소. 난 여기에 남겠소. 쇠돌을 캐면서 광산대학에 다닐테요.》

《정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남겠어요.》

그들은 스스럼없이 손을 마주잡았다.

그후 기철은 채광소대에서 일하면서 광산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일을 마치고 대학에서 배운다는것은 그의 생각대로 낭만적인것이 아니였다. 피곤한 몸에 이미 삭막해버린 지난날의 지식을 더듬으며 새로운것을 익혀갈 때면 온몸에 진땀이 빠질때마다 돌곤했다. 자신을 과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는 날이 갈수록 느꼈다. 지식도 모자랐고 힘도 모자라는것 같았다.

첫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한 그날, 기철은 자기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송옥이와 마주 섰다.

그는 처녀의 동정과 힐책 그리고 고무의 눈길앞에 자신을 뒤흔들고 내세울수 없는것이 부끄러웠으나 다음날부터 대학에 나오지 않았다.

《기철동무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합숙호실에 찾아온 송옥이는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다. 처녀는 그의 호실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기철은 송옥이가 일하는 압축기실로 찾아갔다.

늘쌍 반갑게 맞아주던 정임아주머니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닙니다.》

기철은 머리를 수그리며 바빠 돌아섰다. 그는 송옥이가 자주 다니곤하는 광업본연구소에도 찾아갔으나 처녀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다. 그는 송옥이가 자기를 멀리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기철은 비로소 과학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려던 자기의 이상도, 처녀의 사랑도 다 잃어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다음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배반당한 자존심이 담백처럼 욱-하고 일어섰다.

기철은 처녀들의 합숙으로 찾아갔다. 송옥이가 있는 호실앞에 이르렀을 때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송옥이, 기철이는 우리를 위해서 언 땅에 가슴을 붙이고 밤을 밝히며 초소를 지킨 사람이야. 그가 여기에 남아 쇠돌을 캐며 대학에 다니는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요즈음 너무도 힘에 겨워서 생각이 많아졌겠지.》

정임이의 타이르는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철

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난 그것이 싫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배움에서조차 주저앉은 사람이 어떻게 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수 있겠어요.》

송옥이의 안타까움에 젖은 목소리였다.

기철이는 가슴이 선뜩했다.

《그것은 주저앉은게 아니라 마음의 고충이지. 이런 때 그에게 무엇을 줘야 하겠어. 그가 초소를 지킬 때 송옥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됐지. 이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거야.》

나는 송옥이가 그에게 줄수 있는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이란 받는것이 아니라 주는거지. 지금 기철이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이 바로 송옥이의 뜨거운 사랑이야. 사랑의 힘앞에 숙어들지 않는것이 없어.

난 송옥이가 선광장건설이 끝날무렵에 산딸기를 따먹으며 기철이와 굳게 결심을 다졌다는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하곤하지.》

정임이의 목소리는 절절하였다.

기철이는 더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그는 황황히 계단을 내려 밖으로 나왔다. 합숙의 울타리를 벗어나 큰길에 나섰을 때에야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두 녀인이 마주하고 앉은 합숙창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송옥이를 만나려고 압축기실에 들리면 남먼저 반갑게 맞아주던 체소한 녀인, 빛이 바랜듯싶은 주름 많은 얼굴에 선량함이 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미소짓던 그 녀인의 가슴속에 저토록 뜨거움이 가득차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기철이는 다시 달려가 그 녀인에게 자신을 꾸짖어 달라고 빌고싶었다.

그는 문득 고향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저 네가 집에 오기만을 바랬구나. 그런데 너의 편지를 보고 네가 얼마나 장한 생각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쇠돌도 많이 캐고 대학공부도 잘해라. 어머니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아들을 가진 보람을 느끼고있다.》

그날밤이었다.

기철이는 대학에서 돌아와 땀수마찰을 하고 책을 펼쳐놓았다.

이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 정임이가 호실안에 들어섰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

그는 너무 기뻐 자리를 차고 일어나 정임이를 두 손으로 맞아들였다.

《공부를 하느라고 수고하누만. 오늘은 대학에 갔다지.》

《네.》

《아무렴, 그래야지. 기철이야 일선병사가 아니었나.》

정임이는 흐뭇해하며 비닐봉지에 찢것을 꺼내놓았다. 산딸기였다.

《딸기를 좋아한단지?》

《저야 뭐.》

《그럼 송옥이가 좋아한다는 소리구만. 똥다가 주라구.》

《이젠 발길도 안합니다.》

《무슨 소리. 이제 두고보지. 자네같이 끝끝한 신랑감을 어데서 만난단말인가.》

기철은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정임이가 그 선량함이 어린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기철은 제 정신이 들어 정임이의 온몸을 살펴보았다.

여기저기 굵직한 아래다리, 이슬에 젖은 치마폭...

그럼 산딸기를 마주놓고 송옥이와 다진 맹세를 잊지 말라고 그 험한 산에 올랐단말인가.

《아주머니!-》

기철은 고개를 폭 떨구었다.

《기철이, 지금 온 나라가 자네들과 같은 젊은 제대군인들을 바라보고있네. 나라의 쇠돌산을 지켜선 자네들을 말이야. 바로 자네들의 어깨우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있네.》

젊은 혈기의 독심이나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수 있는가. 안돼,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결음도 움직일수 없네.

그런데 자넨 대학의 문앞에서 뒤걸음쳤지. 과학의 높은 봉우리우에 오르기를 주저했지. 처녀들도 이제는 독심이나 가진 총각들을 따르지 않아. 그런 때는 지나갔네.》

방안에 울리는 정임이의 목소리는 준절하였다.

기철이의 머리는 더 깊이 수그러졌다.

《나도 자네와 함께 대학에 다니기로 결심했네.》

《예?! 아주머니가요?》

기철이는 놀라운 눈길로 정임이를 쳐다보았다.

《이래봐도 난 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이였네. 나 이때문에 주저한 생각을 하면... 지금 당에서는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바라고있네.》

정임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렸다...

송기철의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오철민은 흥분된 마음을 달랠수 없었다.

그때 오철민은 정임이가 가져온 원고를 신문에 그대로 실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제대군인》이라는 제목을 단 그 기사는 광부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대학 부학장은 갑자기 늘어난 대학생들때문에 광

산당위원회로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오철민은 원고에 깃든 사연을 비로소 알게 된 오늘, 정임이의 그 깊고 뜨거운 마음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오철민은 신문사로 향했다.

## 4

오철민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해살이 창가에 비껴들어 책상우에 놓인 연록색 전화기며 원탁우에 올라앉은 보온병이며 정교한 무늬를 박은 대리석화분 그리고 결상에 깔려있는 두툼한 꽃무늬방석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든것이 낯설어보였다.

오철민은 손님용으로 놓아둔 딱딱한 나무결상에 앉았다. 못마땅한 눈으로 방안의것들을 살펴보면 그는 책상우에 놓인 하얀 종이가 눈에 띄우자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다.

정임이가 두고간 마지막원고였다. 원고는 은덕쟁의 굴진소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었다.

그는 오래동안 원고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내용도 의의있는것이지만 통신원의 이름을 밝히는 란에 정임이의 이름과 나란히 그의 딸인 순실이의 이름이 적혀있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어찌하여 정임이는 자기의 마지막원고에 딸의 이름을 밝혀놓았을까.

오철민은 사무실안에서 오락가락하며 한동안 생각을 굴리었다.

여기에 정임이의 그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것이 아닐까.

오철민은 다시 등광산으로 떠나갔다.

정임이가 일하던 작업반을 찾아간 그는 막장의 압축기실에서 순실이를 만날수 있었다. 순실은 어머니가 30 여년간 지켜온 바로 그 기대를 넘겨받은 것이었다.

그는 순실이를 따라 압축기로 갔다. 압축기는 어찌나 깨끗이 거두었는지 전동기며 본체 그리고 소소한 나사에 이르기까지 거울처럼 알른거렸다.

조작변우에는 커다란 액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화국창건 20 주년 훈장이 금빛을 뿌리고있었다. 그옆에는 《26 호모범기대》 칭호표식이 두개나 새겨져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오철민은 이제까지 느낄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 정임이가 가슴속에 무엇을 새기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게 되는것이였다.

오철민은 순실이와 마주앉았다.

순실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기대를 넘겨받던 날이였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두개의 두툼한 수첩을 주더군요.

요.

하나는 어머니가 30 여년간 기대를 말아보면서 압축기의 경력이며 기술상태를 손금보듯 환하게 적어놓은것이였어요.

그리고 다른 수첩은 소대별 긍정자료를 적어 놓은 것이었는데 글썽 거기에는 어느 소대의 누구는 고향이 어디고 성미는 어떻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며 어느 처녀를 사랑한다는것까지 다 적혀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던 압축기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들과 광부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꽃피었는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압축기를 광산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심장에서 피가 온몸에 퍼지듯이 압축기에서 바람이 모든 착암기에 퍼진다고말이에요요.

어머니는 압축기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하고 바로 그 심장으로 압축기만이 아니라 광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원고를 썼어요.》

오철민은 비로소 정임이가 무엇때문에 자기의 한생을 통신원생활에 바쳤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정임은 바로 광산의 심장인 압축기만이 아니라 광부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걷는 그 발자욱의 가치를 빛내주려고 스스로 30 여년세월 통신원생활을 해왔고 그 길에 딸까지 세웠던것이다.

순실이는 말을 이었다.

《그런 압축기운전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떤 지 겁이 나요.

기자동지, 어떻게 하면 겁이 없어질까요?》

오철민은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를 빠끔히 쳐다보는 그 순진한 눈길에 대답을 줘야 했다.

《그건 겁이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값높은 자각이지.

나는 순실이도 꼭 어머니처럼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오철민의 얼굴에 진정의 빛이 떠올자 순실은 밝게 웃었다.

《고마워요. 기자동지는 어머니를 30 년전부터 아는 사이라지요.》

《그래, 하지만 어머니앞에서는 나도 너와 같은 신입생이다.》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렸다.

오철민은 순실이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랐다. 순실이도 정임이가 걸었던 그 길을 트림없이 걸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압축기실로 걸어가며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오철민은 자리에서 꿈쩍할수 없었다. 순실이가

남긴 미소며 청아한 목소리는 정임이의 그것과 더불어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조용히 속삭여주는것만 같았다.

오철민은 정임이를 알고 지낸 30 여년의 세월이, 장두범과 송기철이며 순실이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고 증광산 당비서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움을 느끼었다. 그 모습과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 그의 가슴을 뜨겁게 지져놓았다.

오철민은 일찌기 보지 못한 한 인간이 례의 그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앞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정임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자기가 보아 온 평범하고 이름없는 녀성이 아니라 아득한 삶의 령마루에서 자기를 어서 오라 부르는 시대의 기수로 안겨왔다.

위훈과 자랑으로 빛나는 증광산 력사의 증견자인 양 저기 서류함에는 수천매의 신문들이 국보처럼 보관되어있다.하건만 거기에는 단 한줄도 정임에 대한 글은 없다.

그래, 막장에 때어난 석수가 터졌을 때 총알처럼 남먼저 달려가 심장의 목소리로 광부들을 결사전으로 부르던 사람이 정임이가 아니란말인가. 사람들이 앞가슴에 훈장을 빛내이며 수훈식장을 나설 때 행복의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안겨주던 사람이 바로 정임이가 아니었던말인가....

참으로 광산이 걸어온 자욱자욱마다에는 정임이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지 않은곳이 없는것이였다. (아, 나는 왜 이런 성실한 인간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오철민은 푸들거리는 입귀를 실룩이며 눈을 꼭 감았다. 때늦은 자책감이 사그라져가던 그의 정력에 호된 매를 내리쳤다.

정임은 광부들의 충성심에 꺼질줄 모르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보람을 주는 삶의 영원한 압축기였다.

오철민은 정임이가 걸어온 그 길에 그리고 순실이가 걸어갈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그렇소! 정일동무, 동무가 쓴 원고들은 인간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원고였소....)

오철민은 갱밖으로 나왔다.

태양은 마음껏 해살을 뿌려주고있었다. 그 해살아래 펼쳐진 광산마을은 하나의 대가정을 방불케 했다.

정임이네들이 빛내어왔고 순실이네들이 더욱 활짝 꽃피워갈 그 대가정은 나라의 쇄돌산을 더욱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오철민은 큰결음을 내디디며 자기의 사무실로 힘있게 걸어갔다.

#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정신세계에 대한 시적 탐구

리근실

서해갑문건설식으로 80 년대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높은령마루를 향하여 비약과 전진의 서사시를 수놓아가는 우리의 벽찬 현실은 시인들을 흥분시키는 무궁무진한 시적탐구의 원천으로, 시문학의 주제영역을 넓히는 생활적 바탕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탐구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영화예술론》, 20 페이지)

오늘 시문학에 새롭게 등장하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은 기동적이고 전투적인 우리 시문학이 새롭게 탐구한 적극적이고 참신한 주제분야이다.

올해 《조선문학》 1, 3 호에 실린 시 《수호자의 새 모습》(김영남), 《내가 지킬 땅은...》(박해출) 등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다. 이 시들은 우리 시문학에서 새롭게 탐구개척되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 창조와 관련한 미학적 문제들에 의의있는 시사를 주고있다.

## 대조의 수법과 초점

제대군인들이 공장이나 농장, 건설장이나 탄광, 수산부문에 나간다는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역군인들이 군모의 모표와 령장 그대로 군기를 휘날리며 평화적 건설장에 전투초소를 옮겼다는 전례는 동서고금의 어느 력사에서조차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사변적인 일로 된다. 그러므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 창조는 우리 당의 평화적 리념을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며 시형상으로 옹호하는 영예로운 일임과 동시에 우리 시문학에서 새롭게 탐구개척되어야 할 어렵고도 책임적인 미학적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서리어린 총창  
가슴에 그러안고  
눈덮인 전호가에 서있는  
전사의 모습이 아니다  
...

여기 방사직장건설장-  
기중기의 동음이 울려가는 하늘가  
아슬한 기둥을 조립하며  
잠시 용접면 벗어든

군인건설자의 모습이며

이것은 시 《수호자의 새 모습》의 첫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수호자-전사의 새로운 모습, 눈덮인 전호가에 서있는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방사직장건설장에서 잠시 용접면을 벗어든 군인건설자의 새 모습에 대한 시인의 감명깊은 정서가 노래되고있다.

부정과 강조의 수법으로 된 시의 이 부분에서는 특히 군인건설자의 오늘의 모습이 부각되고있다. 시에 쓰인 대조의 수법은 감정을 조직하고 서정적운동을 승화시켜 인상적인 결구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놓고있다.

군인건설자의 시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을 탐구적인 립장에서 잘 쓰지 못한다면 우선 시의 초점을 명백히 할수 없게 된다.

대조의 수법은 뜻이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사실을 서로 대비하여 표현하는 형상방도이다.

시에서 대조의 중요한 조성방도는 반의어의 리용, 시행과 시련조직에서 부정과 가정 및 강조이다. 대조의 목적은 그를 통하여 시인이 자기의 뚜렷한 주장을 내세우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이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들의 시형상창조에서 너는 군인이고 건설자라는 식으로 이 불가분리의 두 측면을 아무런 뚜렷한 특징도 없이 노래하게 될 때에는 서정을 감동적으로 펼칠수 없게 될것이다. 이러한 후과는 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 시의 우점은 대조형상수법을 일관하게 사용하여 감정의 기복을 조성하면서도 시의 초점을 명백하게 한것과 관련된다.

군인건설자의 시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을 탐구적인 립장에서 잘 쓰지 못한다면 또한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도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군인이며 건설자라는 두 측면을 평균주의적으로, 대조하는 식으로 감정을 조직해나간 시는 결으로 보기에는 미끈한 감을 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에서는 서정대신 양상한 론리만이 남아있게 된다.

서정이 시의 고유한 특성이고 생명이라고 할 때 이러한 시의 본성은 오직 시의 초점을 명백히 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뿐아니라 정서적운동의 진폭을 자유분방하게 넓혀나가야 할것이며 그래야 서정적주인공-군인건설자의 영웅적 시형상은

더욱 부각될것이고 시의 정서적 감흥도 비할바 없이 커질것이다.

## 서정의 깊이-시대감정의 정수

사상이 정서를 통하여 표현되는것만큼 서정의 깊이는 곧 시적 사상의 깊이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시의 사상은 시대감정의 정수를 체현하였을 때 시적 일반화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시는 시대와 함께 숨쉬며 시대의 맥박으로 될것이다.

우에서 이야기된 시의 초점문제도 구경에는 서정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대감정의 정수를 노래하는데로 시를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초점이다.

군인건설자의 영웅적 시형상 창조에서 서정의 깊이를 보장하려면 서정적 주인공을 시대감정의 정수를 체현한 시대감정의 대변자로 형상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희생도 두렵없이 기어이 해내야마는 군인건설자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것이 그들의 사상정신적 핵이며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들의 시적 형상에 체현된 시대 감정의 정수이다. 여기에는 당과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 사고와 실천, 행복과 리상 등 참된 삶에 대한 철학이 응결되어 보석같이 빛나고있다.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의 전형적인 시대감정은 풍부한 서정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

추상적인 론리, 개념적인 선언, 무미건조한 구호의 라렬은 시대감정 자체를 왜소화할뿐아니라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의 발현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의 전형적인 사상감정, 시대감정의 정수는 풍부한 서정을 타고 흘러나와야 사람들에게 깊은 미학정서적 공감을 줄 수 있게 된다.

...

피로 지킨 땅  
고지를 타고왔은 기쁨인듯  
제방을 타고앉아 발을 잠그니  
등근달도 병사의 담력에 놀리운듯  
내 발을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흐뭇하구나  
눈뿌리 아득한 간석지 새땅이여  
내 땀이 스민 너를 보며  
생각하노라  
병사가 수호할 조국이 넓어진다고  
(시 《내가 지킬 땅은...》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해낸 군인건설자만이 지닐수 있는 충성과 의리, 의리와 행복감이 감칠맛이 있으면서도 약동하는 정서를 타고 노래되었다.

시는 여유있고 대범하며 호방하고 담력이 번뜩이는 서정적 주인공의 영웅성에 제압된 《달》과 《제방》을 의인화하여 감성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저항하는 대자연을 길들이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격로를 열어어나가는 서정적 주인공의 영웅적인 시대 초상을 짙은 서정에 담아 영원한 부각상으로 제시하였다.

시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여러가지 사건사실에 대하여 서술하지 않았으나 무연한 간석지의 달밤을 흐뭇한 마음으로 감수하는 서정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쪽의 그림과 같은 생동한 시적화폭을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시는 속도전의 열풍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의 영웅적 시대를 특징지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 충동을 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가 체현하고있는 시대정서의 높이와 깊은 서정이 있는것이다.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들이 체현한 시대감정의 정수는 또한 전형적인 시적 정황과 생활에 의하여 예리화되어야 한다.

군인건설자들의 활무대는 대건설전투장이다.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은 여기를 시적 정황으로, 생활적 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시적 환경도 다양하지 않을수 없다. 군인건설자들에게는 건설전투가 있는가 하면 락천적인 생활도 있다. 그러므로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은 건설전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파정에 표현되는 생활을 각이한 시점에서 특색있게 형상해야 한다. 그래야 군인건설자들의 형상을 창조한 시문학의 주제령역도 넓힐수 있고 양상의 다양성도 보장할수 있다.

× ×

이밖에도 서정적 주인공-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시형상 창조에서는 총대신에 마치를 든 건설자를 노래하면서도 군인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살리는 문제, 양상과 서정구조, 시적표현과 언어 등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미학적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시인들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형상에 대한 시적 탐구를 더 깊이있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평화적 리념을 옹호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시문학사에 군인건설자들의 빛나는 형상을 깊이있게 새겨놓아야 할것이다.

## 초소의 별빛 외 1편

한길초

정적이 깃든 전호가의 밤  
잠시 머리들고 바라보니  
유난히도  
별  
별이 반짝이네

어찌 보면  
저 별빛  
내 정든 고향 떠나올 때  
군복 입은 이 아들이 그리도 대견해  
조용히 미소지으며 내려주던  
어머니의 그윽한 눈빛인듯

어찌 보면  
저 별빛  
고향의 자그마한 역두에서  
손 흔들던  
정다운 처녀의 눈빛인듯

내게는 생각되어라  
마치도 저 별빛  
나를 믿고  
이 초병을 믿고  
마음껏 웃는  
그 눈동자처럼

생각되어라  
그들을 잊지 말라고  
고요히 속삭이는  
어머니조국의 눈빛처럼

아, 이밤  
병사의 이 가슴에  
별은  
지켜갈 삶의 빛으로  
영생의 웃음으로 빛나고있어라

## 쉬엿구령은 내리지 않았기에

어제날  
락동강전투도 참가했다는  
앞가슴에 금별이 빛나는  
장령동지

이제는  
군모밑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렸건만  
오늘도 전사들과 함께  
행군길을 걷네

높은 산도 넘고  
깊은 강도 건느며  
험한 진펄길도  
앞장서 헤치며...

그뒤를 따르던 나 어린 전사  
기회를 보다가 슬쩍 물었네  
장령동지는 이젠 쉬어도 될텐데

행군길을 걷는가고

허물없는 전사의 물음에  
허허 웃으며 장령은 말했네  
-쉬다니, 무슨 소리요  
조국은 아직도 나에게  
쉬엿구령을 내리지 않았소!

웃으며 한 장령의 말이였건만  
아, 그것은  
뒤따르던 전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뜨겁게 울려주었네  
엄숙한 구령소리처럼 들려와  
전사들의 발걸음 저절로 높아졌네

침노한 원썩을 무찌르라  
전화의 날 조국이 내린  
《돌격 앞으로!》 구령을  
엄숙한 구령으로 받아안고

못다한 옛 전사의 마음

전사들은 알았네

가야 할 행군길은 아직도 멀고멀어

조국은 그 누구에게도

아직 쉬엣구령을 내리지 않았음을

전사들은 다그쳤네

땀이 비오듯 내려도

누구도 쉴념을 하지 않고

혁명의 행군길

그 마지막기슭을 향해

쉬엣구령을 내릴 그 종착점을 향해

## 단 상

# 배낭에 대한 생각

차영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취재차로 우리 당의 위대한 수도 건설구상에 따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웅장한 거리로 일떠서는 광복거리 건설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다. 때는 건설이 한창 시작되던 시기였던지라 조국땅 곳곳에서 피끓는 청춘들이, 군인건설자들이 달려오고있었다.

참으로 건설장은 양양된 흥분과 기쁨과 각오로 들끓었다.

어디선가 웅을 쓰는 불도젤소리, 기중기소리, 굴착기소리...

여기저기에 벌써 돌격대원들의 병실이 일어섰고 지붕마다에는 기발들이 바람에 펄럭이였다. 나는 이 모든 건설장의 열띤 공기를 폐부깊이 마시며 수고많은 건설자들의 보급자리를 찾아 병실문을 열었다.

알뜰히 정돈된 생활의 요람이였다. 눈같이 새하얀 하불이며 한줄로 《차렷!》한 정결한 베개들...

나의 눈길은 어느덧 뒤벽에 가끈히 줄지어 걸어놓은 보위색배낭들에 닿자 주춤 그루를 박았다.

(아, 배낭!)

모름지기 저속에는 간편한 생활필수품과 학습노트 그리고 사품이 들어있을것이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배낭으로부터 시작된 병사시절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군사복무기간에 물이 날도록 지고다닌 배낭! 그때 내가 메고나선 배낭은 《어머니조국앞에 아들된 의무를 다하리라.》는 군인선서를 하고 메고 나선 것이였다. 이를테면 조국앞에 다진 신성한 맹세로

하여 그 배낭을 메고나설 자격을 부여받았던것이다.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목숨걸고 조국앞에 메고나서는 전투배낭!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메고나섰던 《한별정신》이 깃들어있는 배낭, 멸적의 함성이 남해가를 진동시키던 락동강의 포연서린 저 배낭...

바로 그 배낭을 이들은 오늘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에 메고온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조국이 부르는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장들에, 온갖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기어이 당이 준 임무를 앞당겨 완공 할 불타는 마음들이 태천과 순천으로,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가고있으리라.

병실뒤벽에 걸려있는 수수한 배낭들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던 나는 심장박을 쿵- 하고 울리는 충격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빛갈 고운 려행용 가방이나 류행에 따르는 트렁크에 비하면 너무도 소박한 저 배낭,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하고 사치한 지참품에 비길수 없는 전사의 배낭이다.

보면 볼수록 헤아릴수 없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저 배낭을 과연 누구나 쉽게 메고나설수 있을까.

오직 어머니조국과 진정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운명을 같이할 그런 성실한 아들딸만이 서슴없이 메고나설것이였다.

나는 요즘도 조국의 번영을 위한 대건설전투장에 웃으면서 달려가는 시대의 전위들을 만날 때면 그리고 그들이 메고있는 배낭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진다.

조국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 우리의 궁지와 보람과 지향이 그 배낭속에 숨배여있기때문이다.



#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기술자들의 참다운 형상

장편소설 《야금기지》에 대하여

오춘식

최근 우리 작가들속에서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고있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장편소설 《야금기지》(허춘식)는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와 구상을 꽃피우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성실히 바쳐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 인테리, 로동계급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참된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을 통해서 인물의 체형 세계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한 그의 사상정신적 면모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없다.》

인간세계를 파고들며 형상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작품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작가는 인간세계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탐구로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형상으로 밝혀내야 하며 시대의 미학적 요구에 옳은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에는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형상 시도들이 적지 않게 엿보이며 형상의 심도가 보장되어있고 철학적깊이가 느껴짐으로써 독자들에게 일정한 공감을 주고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 특히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기술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주체사상으로 교양되고 무장된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철한 과학적 신념과 창조적 열정, 진지한 탐구와 성실성, 숭고한 지향을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파고들어 진실한 형상으로 구현하고있다. 현시대 지성인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념과 의지, 사색과 탐구, 량심과 의리 그리고 사랑과 고민, 창조의 희열과 아름다운 지향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그들의 무한대한 창조적사색은 무엇을 소원하고 성취해야 하는가, 주체위업의 완성을 과학기술로 담보하는 그들의 심장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일정한 해답을 주고있다.

현장 야금기사인 강기석은 이 문제의 해명을 위

해 설정된 새세대기술자의 전형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형상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당이 의도하고 구상하는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투철한 과학적 신념과 창조적 사색, 열정적인 탐구정신, 이것은 그가 체현하고있는 중요한 성격적 특질이다. 새것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고 신념이 굳세며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는 여기에 새형의 혁명적 인테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기술자로서의 그의 성격적 특징이 있다.

《나는 공장지구에서 자랐고 이 제강소에서 생활을 시작했소. 로동하면서 공부했고 기사가 됐소.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오.

지금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중앙의 커다란 관심속에 거창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뜻깊은 사업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기사이고 내 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어디가서 찾겠소.》

상급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안중에 들게 된 좋은 기회를 디딤돌로 삼아 좋은 생활이 보장되어있는 직급의 층계를 톱아올라 갈것을 희망하는 혁명의 권고에 맞서 강기석은 고집스럽게도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하며 자기 진심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련된 생활을 누리는데서 만족과 보람을 찾기보다 당의 뜻과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창조적인 투쟁속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고 싶어하는 주인공 강기석의 진심의 고백이다.

강기석은 남의 비호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창조적 능력과 완강한 의지력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려 하며 자신에 대한 온갖 그릇된 편견과 관념을 깨끗이 해소시키고 허영심과功名심 같은것도 깡그리 질식시켜 버리는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어엿한 야금기사로 과학자로 키워준 당을 위해 한몫 하겠다는 량심과 의리에 기초한 신념이다.

인간의 성격적 특징은 각이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간의 대립과 충돌, 투쟁속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감성심리를 심화하여 보여줄 때 성격의 개성화는 확고히 담보된다.

이 작품은 주인공과 련관되는 인물들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면서 그 과정에 겪게 되는 체험세계를 분석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강기석의 성격을 일정하게 특징화하였다.

강기석의 지향을 가로막고 억제하는 첫 대상은 지배인의 관료주의이다. 완고하고 드센 최병기지배인은 주관과 독단으로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당면한 생산의 복잡성과 긴장성을 구실로 강기석의 기술혁신안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기석은 지배인의 관료주의에 단호히 맞서나선다. 권위앞에 수그러들고 관료주의를 용납하면 기술혁신안을 추진시킬수 없고 과학적 신념을 지킬수 없었기때문이다. 더우기 비굴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리게 하고 저버리게 하기때문이었다. 하여 그는 직권을 가지고 억누르며 새 기술혁신안을 단마디로 부결하는 지배인의 권력앞에 조금도 굽어들지 않고 항거해나서며 물리친다. 자기 리념과 지향을 알아주려 하지 않고 억누르는 권위앞에 자기를 잃으면서 순응하고싶지 않고 비굴하게 굽어들고싶지 않은것이 그의 신념이고 의지였던것이다. 때문에 그는 자기 신념과 존엄을 지켜 지배인의 관료주의에 맞서게 되는것이다.

강기석의 지향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장애는 기사장의 요령주의와 기술지도국장의 본위주의이다.

리익이 없는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며 손해가 없는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해야 한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기사장 한명택은 옷사람에게는 발라맞추기 좋아하고 아래사람들에게는 걸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표리부동한 인간이다. 그는 강기석이 제기한 대형성구기혁신안을 걸으로는 지지하는척 하면서도 휴지장처럼 짓밟으며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해임된 강기석의 아버지처럼 사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술지도국의 동원을 구실로 그를 현장에서 떼여내려 한다. 그러나 강기석은 기사장의 이러한 값싼 충고나 동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방해에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야금기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것이다.

강기석의 재능을 먼저 발견한 금속공업부 기술지도국장은 전국적 판도에서 벌어지는 기술지도국사업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운운하면서 제강소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의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뒤전으로 밀어놓고 강기석과 같은 능력있는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수하의 실무일군으로 두려고 하며 현장에서 떼내어 등용시키려 한다. 이것은 승급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며 등용되기를 바라는 젊은 사람들의 공명심을 야기시키는 미끼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명예와 직위에 대한 유혹도 강기석의 일관한 지향과 고결한 마음을 들뜨게 할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국장의 권유와 설복을 물리치고 정은 일터인 제강소로 내려오는것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선명히 드러낼수 있는 인간관계를 더욱 심화하여 다양하게 맺어준다.

작가는 강기석의 지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아버지 강정민의 협애한 감정과 혜영의 허

영심을 극적으로 대치시키고있다.

강정민은 이곳 제강소지배인으로서 자기 능력과 기술을 타산하지 않고 새 야금법도입을 시도하다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해임된 일군이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예를 더럽히고 인심을 잃었던 곳에서 고통스럽게 일하지 말고 자그마한 제철소가 있는 자기에게로 떠나올것을 당부하며 요구한다. 그러나 강기석은 아버지의 파오가 결코 자기의 지향을 잃어낼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것으로 하여 위촉되거나 소심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발하며 새 기술혁신 창안에 자기의 성실성과 량심을 다 바친다.

혜영은 강기석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에는 리기심이 있고 허영이 있다. 중앙급에서도 인정하는 강기석의 재능과 열정에 현혹된 혜영은 강기석이가 구태여 고행의 길을 걸지 않고도 성공할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걸을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술지도국에 동원된 유리한 기회에 그곳에 눌러앉도록 재삼 권고한다. 그러나 강기석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 요구도 단호히 거절한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심장을 바칠수 있어도 정의의 위해서는 그 사랑도 서슴없이 희생하리라는 의로운 마음과 지향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것이였다. 강기석의 완강한 고집과 주견에 불안을 느낀 혜영은 그로부터 점차 멀어지며 결렬하러고까지 한다.

이처럼 강기석은 각이한 직급의 인간 그리고 인정적으로 맺어진 인간들의 이리저러한 장애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장기사로서 자기가 맡아안은 임무를 완강하고 성실하게 다하려 하며 야금공업의 주체화에 이바지할 기술혁신 창안에 탐구와 사색을 멈추지 않으며 마침내 성공의 대문에 들어서서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주인공 강기석을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지향이 억세며 사색적이고 진취적인 기술자로 형상하였다. 여기에 생산현장속에서 자라난 새형의 기술자, 주체형의 과학기술인테리로서의 그의 성격적 특질이 있다.

주체의 요구대로 기술을 개조하는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온갖 넓은 사상과의 심각한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고 과학기술혁명을 이룩하는것은 시대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나선다.

작가는 강기석의 형상속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체현시키려 하였으며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인간탐구들 형상과제로 삼았다. 강기석의 형상이 일정하게 공감을 주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자, 기술자를 형상한 일부 작품들에서 소심하고 나약하며 신념이 확고치 못하고 우유부단한 측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인테리들의 전형적

특질인 것처럼 형상하는 것은 하나의 편향이며 류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오직 과학세계에만 파묻혀 있어 초보적인 인간 생활에도 무능하며 시대에 민감하지 못한 기형화된 인간으로 그리는 것도 그릇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결코 생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면적이고 특수적인 현상일 따름이다. 생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서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아울러 지성세계가 높을 수 없다. 과학자들일수록 시대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예리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고 시대에 민감하지 못한 과학자, 기술자가 당에서 의도하는 절박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신념이 확고할 수 없다는 것은 생활이 밝혀주는 교훈이며 진리이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생활도 정서도 모르는 무능하고 메마른 기형적인 인간으로, 주견과 대가 없고 소심하며 투쟁할 줄도 모르는 나약한 인간으로 왜소화하고 일면화하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은 정책적으로 예리하고 주체적 신념이 확고하며 따라서 새것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고 투쟁력도 있으며 담도 또한 크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에서 작가는 로동계급속에서 나온 새형의 과학자, 기술자들, 주체형의 과학기술인텔리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 특질을 주인공의 형상속에 체현시키려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형상의도가 다 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 작품은 다음으로 최병기, 한명택을 비롯한 행정기술일꾼들과 박성국, 원옥희, 최혜영 등과 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에서도 개성화의 심도가 일정하게 보장되어 있다.

인물들의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고 생활과 투쟁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면모를 진실하게 형상하는 것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부정을 극복하고 긍정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것이 현실속에서 살고 있는 생활의 주인공들이다.

사회주의 현실주체작품에서 긍정인물이라고 하여 부족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보거나 부정의 체현자라고 하여 긍정면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그리면 발전과정에 있는 새 인간성격을 창조할 수 없다. 전자는 성격을 리상화할 수 있고 후자는 성격을 기형화할 수 있다.

지배인 최병기는 주관과 독단이 심하고 성미가 거칠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위압감이 있으며 관료주의적인 작품상 결함이 적지 않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때때로 심각한 비판을 받기도 하며 강기석

의 새 기술혁신안을 무시하고 부결하는 실책을 범하기도 한다. 작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족점을 날날이 해부하면서도 솔직하고 진실하며 책임성이 높고 사업상 원칙과 혁명적전개력이 있는 좋은 측면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면에 의해 지배인이 자기의 결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당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훌륭한 조직자, 관리자, 지배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이 성격형상의 진실성이 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지만 자기의 감정과 의도를 웃음속에 가리워버리는 양면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기사장 한명택의 성격도 개성적이다. 물론 기사장의 성격에는 더 해명할 여지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아름다운 허울이 벗겨지고 심장에 병든 자신의 사람됨이 날날이 드러남으로써 뼈아픈 가책으로 모대기는 혜영에게 강기석이 하는 다음의 말은 그대로 발전과정에 있는 인간의 성격적 본질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결함이 없고 실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들처럼 생활에 대한 안목이 높지 못하고 경험이 많지 못한 젊은 나이에는 결함이나 실책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요.

웅이는 나무의 흠집이지만 그것이 나무를 장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과도 같은 자연미를 더 하여주기 때문이겠지요.》

작가는 자립적인 생활력과 의지력이 약하고 허영심에 들뜬 혜영의 부정면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도 그의 성격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긍정을 애착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는 부정을 일소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해명은 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좋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한다.

과학자적 량심이 결백한 박성국의 형상도 매우 개성적이고 참신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다소 변덕스럽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적 문제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허위도 용납하지 않는 그에게는 량심과 진실이 체질화되어 있다. 현장기사인 강기석의 기술적 창안이 자기의 창안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로서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혁신안이 성공하고도 입퇴게 된 그 순간에도 서슴없이 자기의 창안품을 집어던지고 강기석의 창안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양보한다. 이것은 오직 깨끗한 과학자적 량심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다.

작가는 강기석을 비롯한 이러한 인물형상을 통해 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지향과 아름답고 깨끗한 지성세계를 현대지성인들의 사상정신적 높이에

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당의 뜻을 받드는 그들의 자세와 립장, 순결한 충성심에 대하여 열렬히 긍정하고 배찬하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관계설정과 해명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있다.

주인공인 야금기사 강기석과 지배인 최병기, 기사장 한명택, 기술지도국장 그리고 금속연구소 조수 최혜영과의 관계가 인간학적으로 얹혀져있으며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성국과 구단광연구실 연구사 원옥희, 용해공 박동길과 전동차운전공 장인숙들의 각이한 애정선들이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일관하게 복종되면서도 그들의 성격상 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해결되고있다.

작가는 강기석과 혜영의 결렬상태에 이른 애정문제를 조급하게 서둘러 범박하게 결속짓지 않고 그들의 애정륜리관과 정신적 준비정도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성격과 생활론리에 충실하고있다.

혜영은 어려서부터 근심걱정을 모르는 좋은 환경에서 순탄하게 자라왔고 언제나 호의를 품고있는 사람들속에 둘러싸여있었기때문에 어려운 일을, 제 힘으로 치르내지 못하며 고생이 떠우고 생활이 흔들리게 되면 남자의 손에 매달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그런 여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강기석이라는 진짜 인간을 본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에 현혹되어 허영심에 들떠 사랑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허울로 자신을 가리우고 장식하고있었다. 이것이 날이 드러났을 때 그는 자신을 강기석이와 나란히 세워놓을수 없었고 그의 열렬한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수 없었다. 혜영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이러한 량심과 정의감이 그의 들뜬 마음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는 자신을 인간답게 떳떳이 빛내일 그 때에 가서야 강기석의 참다운 길동무로, 인생의 동반자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박성국과 원옥희사이의 애정문제도 지성인들의 생활에 맞게 잘 처리되고있다. 한 로동청년기사가 창안한 기술혁신안에서 우월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창조의 열매를 가지없는것으로 스스로 선포하는 박성국의 과학자적 량심과 자기 희생정신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을 찾아보고 처음에는 경원시하고 엇서기만 하던 그를 오히려련모하는 원옥희의 애정세계는 매우 흥미있게 특징적으로 형상되었다.

이 작품은 또한 지성인들의 감정과 심리, 그의 섬세한 변화를 분석적으로 보여주면서 철학적이고 의미깊은 대사들과 박력있고 무게있는 언어문장구사로서 형상의 철학적 심도를 보장하고있다.

작가는 인물들의 대사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것은 될수록 피하면서 마디마디에 생활의 깊은 의미를 담은 뜻있고 무게있는 말, 교훈적인 명답을 쓰고있으며 다시금 되새겨 보고 음미해보고싶도록 철학을 부여하고있다.

주인공을 축으로 하여 뗫어지는 각이한 직급의 인간들과의 호상관계를 나타내는 심리묘사와 대사들은 직설적인 감정을 피하고 표현적으로 뜻깊게 울리고있으며 그들의 사람됨과 지성세계의 일면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의미심중한 말들로 이어져있다.

당일군과 행정일군, 기술일군 그리고 노동자들은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감정심리와 성격을 드러내는 성격적인 말을 하고있으며 야금공학기술에 대한 논의와 세계의 이름있는 과학자, 야금기술자들에 대한 일화들은 야금공업의 시대적 발전추세를 가늠하게 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탐구세계를 생활적으로 방불하게 그려보이게 하고있다. 이것은 작품의 지성도와 철학적 깊이를 생동한 형상으로 감수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작가는 야금공학기술자들의 생활과 그들의 창조의 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었으며 그것을 독창적인 미학적 안목과 형상능력으로 재현하고있다.

우리는 이 작품형상에서 이상의 긍정적 성과와 함께 일련의 부족점도 찾아보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 강기석과 지배인, 기사장 그리고 금속공업부 기술지도국장과 관계들이 처음에는 인간학적으로 얹혀들어가다가 성구기대형화를 위한 기술혁신안이 성공한 다음부터 그 이후의 실험 생산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성격적 충돌과 투쟁이 없이 인간관계가 스스로 풀려지게 함으로써 작품의 전반부에서 기대되었던 문제들이 후반부에서 명백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있으며 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강기석과 혜영의 애정선이 주선으로 되고 이여의 인물들간에 얹혔던 심각한 문제들은 뚜렷한 해명이 없이 엉성하게 처리되었다. 이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더 높이 끌어올릴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있다.

작품은 특히 주인공과 대결되는 주되는 부정, 주되는 장애를 명백히 밝히지 못함으로써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투쟁에 제동기를 거는 주되는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주인공의 과학적 신념과 지향에 대립되는 주되는 부정이 기사장도 아니고 지배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혜영이도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인공과 지배인, 주인공과 기사장 그리고 기술지도국장과 극적인 충돌과 투쟁이 암시되어있었으나 이렇다할 정면충돌이 없이 스스로 물러서고 자취를 감추게 하였다. 따라서 주인공의 기술혁신안은 별로 커다란 우여곡절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성공하게 되었으며 주인공의 애정선에는 품을 많이 들이면서도 각이한 직급의 인간들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는 깊이있게 밝히지 못하고 공백을 남겨두었다. 주인공의 과학적 지향과 대립되고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고 제동기를 거는 주되는 부정의 완고성, 집요성이 현실그대로 날카롭게 해부되지 못하였다.

작품은 강기석의 과학기술적 지향에 지배인의 관료주의를 맞서워 놓고도 심각한 충돌과 된 타격이 없이 지배인으로 하여금 인차 자신을 뉘우치고 강기석의 창안을 지지하는 립장에 서게 함으로써 부정으로서의 대가 약한 인물로 되게 하였으며 기사장의 부정면에 대하여 날카롭게 해부하면서도 심각한 개변의 계기없이 어정쩡하게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뒤의 운명과 성격발전에 대하여 미지수를 남겨두고있다.

작품은 주되는 부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와 대결되는 주인공의 생활과 투쟁을 보여주면서 주체형

의 과학자, 기술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심도있게 파고들었어야 하였으며 부정의 개진과 혁명화과정을 보다 날카롭게 보여주었어야 하였다. 여기에 주인공의 성격을 더욱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 있고 작가가 제기한 사상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는 방도가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새로운 형상시도로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참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 로반에서 만난 처녀

한기운

헐치 않게 열어가는 길  
내 생각속에 걷고싶어  
멀리 또 굽이굽이 몇십리  
로반따라 걷다가  
로반에서 만난 처녀

생각속에 묻혀  
로반가에 포기포기  
들장미 꽃나무를 심어가는  
돌격대원처녀

반가워 물었더니  
조용히 고개들어 웃으며  
이야기보다 먼저  
아득히 뻗어간 로반을 바라보는  
속깊은 그 마음

멀지 않아  
들장미꽃 붉게 핀 새 철길로  
수령님 초상화 높이 모시고  
첫 렬차 달릴 그날을 그려보는가

먼 후날  
이 철길로 달리는 차창가에서  
이 철길에 바친 청춘시절을  
그 꽃과 함께  
추억속에 마주 웃고싶어선가

아, 북방의 흑한속에서  
길길이 언땅이 꼭깁이를 텅길 때

손바닥에 물집들이 터져도  
노래만을 알았다는 처녀

막아서는 천만산악 끈게 뚫고  
사품치는 깊은 강 끈게 건너  
멀리도 뻗어온 로반 한끝에서  
웃음어린 눈굽을 적시며  
속삭이듯 이야기하네

래일 아침엔  
산세 험한 새 구역으로 떠난다고  
새 건설구간으로 갈 때마다  
돌격대천막가에 피웠던 꽃을  
이렇게 로반가에 옮겨심고 떠난다고...

수백리 새 철길을  
수백리 새 꽃길로 덮어  
조국의 대 료환선을 이어가는  
다감한 그 마음

지나온 길이 험해서  
창조의 보람 그리도 크고  
하는 일에  
쏟아붓는 사랑 그리도 뜨거워

아, 태고의 사나운 자연과 맞서  
할일 앞에선 언제나  
웃음만을 알던 처녀  
해놓은 일 앞에서  
뜨거운 눈물도 아네

## 그가 한번 적을 때엔...

김덕선

온 탄광이 다 알더라  
당비서가 수첩을 펼치고  
무엇인가 적을 땐  
약속한다는 말인줄  
믿어도 된다는 말인줄

허나 어찌 알수 있으랴  
그것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되기까지  
그의 가슴속엔 얼마나 많은  
생각의 실머리 감겨야 하던지 ?...

적어놓은 글자는 몇자 안돼도  
불밝은 도시 뒤에 두고  
탄전의 제대군인 찾아  
처녀가 밝은 웃음 안고 오기에는  
그가 걸은 길 수백리

새 암반앞에 발걸음 떠지는  
청년굴진소대  
그 전진의 길 열어주자고  
기술자들과 함께 지새운 밤은  
그 얼마...

짧게 적어넣은 그 글 몇줄에  
가슴속 진정 다 어렸든가  
꼭질 많은 한 기사의 운명도  
당의 품에 따뜻이 안아주나니

아, 새겨지더라  
수첩은 작아도  
탄부들의 밝은 웃음과 함께  
탄광의 높은 숨결과 함께  
당의 뜻 꽃피우는 크나큰 기쁨이

사람들  
말없이 바라는것도  
약속 없이 기다리는것도  
새겨안아 적고 또 적는  
당비서의 수첩!

온 탄광이 다 알더라  
그가 무엇인가 적을 땐  
약속해도 된다는 말인줄!  
믿어도 된다는 말인줄!

## 세멘트외 2편

리광선

누가 도리질 하더냐  
세멘트란 말  
시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더냐  
세멘트는 돌가루  
그래서 시에 옮겨  
옳을 맛도 없노라고

어디 가나  
세멘트를 달라더라  
철의 도시에 가보아도  
먼 항구도시에 가도

어디서나  
세멘트를 달라더라  
북부철길 공사장에서도  
서두수와 먼 바다기슭

외진 등대마을 섬에서도

공장과 살림집에

기념비적 건축물들에

우리 걸음 반들어주는 다리들에

기둥으로 기초로 어디나 있는것

세멘트로 정히 닦은 길이 있어

젊은이들 걸음 활기롭고

꽃배도 자유로이

부두에 닳을 내리노라

수억만 창문들이 밝게 빛나더라

그렇더라

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것

그처럼 너는 정깊고

그처럼 너는 우리와 가까워

그처럼 너는

부드러운 노래더라 기쁨이더라

행복에 젖은 수억만 가슴에

서정의 노래 왜 울려주지 못하랴

우리 생활의 아름다움에

왜 아니 어울리랴

정다운 시로

창조의 노래로!

## 《로동자-사무실》

일을 하는지 사무를 보는지

조용한 정숙

누구나의 옷차림이

일하는 사람같지 않아

내 진정 놀랐노라

소성공들

자동화된 기대앞에 앉아

목에 넥타이를 매고

하얀 위생복을 입고

결상에 척 앉아

신호단추만 누르는 그들앞에서

내 진정 회한했노라

무더운 여름에도 땀 한방울 안흘리고

웃으며 일하는 소성공들

사무실이면 것처럼야 신선하랴

소성공들의 일터라고 믿기엔

너무도 희한한 현실

나날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례사로운 로동현장

아, 지난 세월

고역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이들

아, 오늘에 이어 영원한 세월

행복의 대명사로 태어난 삶이여!

## 정다운 나의 조국

내 많은곳을 다너보았노라  
쇠물 폭포치는 용해장  
황금물결 설레는 농장벌  
꽃비단 짜는 직기앞이며  
탄캐는 천길 막장에

참으로 많은곳 가보았노라  
이 땅 한끝의 저 우암으로부터  
분계선의 관문점  
물결 춤추는 저 동해기슭 마을로부터  
저 서해기슭 몽금포까지

참으로 많이 걸었노라  
륙로로 수백리-  
배길로 수백리-  
한낮이 모자라면 열밤을 이어  
쉬임없이 이어가는 보람찬 나날에  
가보는 고장마다 살고싶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정이 들더라

조국이며, 그대는 주었노라  
달리는 열차안에서는  
즐거운 아이들의 노래

기차길이 끝나면 배길을 열어  
들에서는 행복넘친 물이야기  
물에서는 웃음넘친 바다이야기

산골에 가면 구수한 토장국과 산채로  
바다에 가면 푸짐한 생선국으로  
취재의 발걸음도 붙잡고  
밤깊도록 들려주는 그 모든 이야기  
고장마다 차고넘쳐 자랑이더라

술한고장 술한곳  
가면 가는곳마다에서  
들리면 들리는곳마다에서  
얼마나 많고많은 이야기가  
이 가슴 설레게 했던가

백리길 걸은들  
천리길 걸은들  
이런 기쁨 가슴 가득 안고 걷는  
조국이며!  
그대의 품에선 그 어데 가도  
천년을 살고싶은 정만이 샘솟는구나